금주의 법구-〈법구경〉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욕망에서 벗어난 자가 돼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9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6월 15일)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홍법사서 만난 인류무형유산 '몽골 나담축제' 몽골의 최대 전통축제인 '나담축제'가 부산 홍법사에서 열렸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7월 3일 경내에서 '제11회 부산 몽골 나담축제 2022'를 개최했다. 나담축제는 몽골 혁명 기념일인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몽골 전역에서 열리는 몽골의 최대 전통축제로 씨름 말타기 활쏘기 등 세 가지 전통 경기가 주를 이루며,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단 총림 요건 완화
원로의장 '3년 단임' 추진

중앙종회 제225회 임시회 논의안건은

7월 19일 개원 예정인 조계종 제225회 임시회에서 원로의장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과 총림 구성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한 개정안이 입법발의될 예정이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대원)는 7월 6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원로회의 의장·부의장 임기를 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종헌 개정안 발의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장 궐위시 보궐선출 및 잔여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로회의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로의원 권한에 대한 조정안도 논의됐다. 원로의원들의 다양한 경륜과 지혜가 종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원로회의는 현재 2급 이상 법계 심의권을 '대종사 법계 심의권'으로 개정하고 '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종단 주요종책의 조정권'에 심의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원로회의는 기타안건으로 종단 화합을 위한 멸빈자 사면 건의의 건을 상정했지만, 논의 끝에 차기로 이월키로 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제36대 대한불교조계종 집행부의 마지막 해"라며 "지난 4년은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이 한결같은 자세로 종단의 안정과 승가의 화합을 위해 매진했던 시간으로,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성과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 모든 것은 항상 종단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종정예하와 원로스님들의 덕화속에 가능했던 불사"라며 "종단은 사부대중의 마음이 모아져 안정되고 승가는 종정예하를 중심으로 화합하여 승가 공동체를 굳건히 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납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종단이 신뢰받고 화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종법 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호산)는 7월 7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총림 구성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총림법 개정안을 성안했다. 개정안은 출가자 감소로 인해 인원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황을 반영해, 현행법 상 선원·승가대학·율원·염불원 등 4개 교육기관을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한 총림 구성요건을 3개 기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애초 특위는 총림법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총림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는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반영하는 취지에서 종헌개정안을 함께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총림 요건으로 4개 이상을 의무화한 종헌 103조를 "총림은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 가운데 선원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수행기관을 두어야 한다"로 변경하고, 연관법으로 총림법 2조 2조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총림의 방장 자격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총림법은 "선·교·율을 겸비한 승랍 40년 이상의 비구로, 20안거 이상을 성만한 본분종사"로 명시돼 있다. 특위는 신설조항으로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

원로회의, 7월 6일 회의 결과
종헌개정안 발의 추진 결의해
종헌특위, 총림요건 완화취지
종헌·총림법 개정안 입법발의

한 자로서, 전문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한 이력이 있는 자"를 추가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총림 구성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7대 총림의 실질적인 어려움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중앙종회가 총림실사특별위원회 실사를 통해 총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당시 8대 총림 가운데 선원과 강원, 율원, 염불원 4곳을 모두 갖춘 곳은 영축총림 통도사가 유일했다. 해인사와 송광사, 백양사, 동화사, 범어사, 쌍계사는 염불원을 갖추지 못했고 수덕사는 율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학인 충원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불총림 백양사의 경우 총림 구성요건을 수년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제217회 정기회에서 총림 지정해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기도 했다.

송지희 기자

신성민 기자의 기획연재 · 15면
다시 돌아와야 할 성보들 ① 흥천사 동종

선암사 항소심 태고종 승소…논란 여전히

조계종 · 태고종 선암사 소유권 분쟁 향방은

광주고법, 7일 등기말소 소송서
조계종 선암사 당사자적격 부정
'각하' 결정…"등기말소 이행하라"
태고종 승소에도 법리 논란 '여전'
조계종 선암사 항소 가능성 높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순천 선암사를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 간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소유권 분쟁과 관련, 핵심소송으로 주목받았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말소소송'에서 태고종이 승소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피고 조계종 선암사의 당사자적격을 부정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내용적으로는 태고종 선암사의 승소지만 법리적으로는 또 다른 논란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고등법원 제1-2민사부는 7월 7일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등기의 실제 이행자인 윤선웅(조계종 선암사 4대 주지, 예비적 피고인)에 대해 조계종 선암사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태고종) 측이 부담토록 했다.

이번 판결은 당사자 적격 부분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원심과도 대치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원심 판결에서 조계종 선암사가 태고종에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판결하고, 예비적 피고인 윤선웅 씨에 대해서는 당사자 자격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조계종과 태고종 측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태고종 측은 '조계종 선암사' 등기행위의 부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소유권 분쟁의 종식을 예견하는 분위기다. 특히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조계종 선암사' 등기행위자에게 등기말소 이행을 결정한 것은, 사실상 태고종 측의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태고종 관계자는 환영의 뜻과 함께 "가까운 시일 내에 태고종의 입장을 공식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계종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야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지만,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계종은 그동안 선암사 소송과 관련, 재판부에 "한국불교 역사와 정체성을 지켜달라"고 요청해 왔다는 점에서, 항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등기행위자인 윤선웅 씨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예비적 피고인데다, 이미 원심 판결에서 "예비적 피고는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것으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로 각하된 바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번 재판을 참관한 조계종 측 법률대리인은 "원심 판결에서 법원은 이미 예비적 피고 윤선웅 씨에 대한 태고종 측 주장을 각하했고, 이에 대한 항소는 없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라며 "판결문을 확인해야 명확해 지겠지만, 원론적으로 윤선웅 씨에게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각하의 이유로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가 부정된데 따른 판단도 엇갈린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법당의 존재여부와 승려·신도·규약의 존재, 사회적 실체로서의 활동여부가 기준이 되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조계종 선암사는 실체적 요건을 갖춘 상태다.

이와 관련 조계종 선암사는 △선암사가 일제강점기 '조선불교' 소속 사찰이었던 점 △1962년 불교재산관리법 시행에 따라 통합종단 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한 점 △1962년부터 조계종이 주지를 임명해 선암사를 관리·감독했고 조계종선암사가 사찰재산 관리와 종교의식을 진행해 온 점 △1970년 창종한 태고종이 선암사를 무단으로 점거해 왔다는 점 등을 주장해 왔다.

반면, 태고종 선암사는 △선암사를 태고종 소속 사찰로 점유·사용해 온 점 △선암사가 조계종에 가입한 바 없다는 점 △선암사의 각 부동산은 태고종 선암사가 사정받은 토지 혹은 태고종 선암사가 신축한 건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해 왔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태고종간 선암사 소유권 분쟁을 가름할 또 다른 소송인 '선암사야생차체험관철거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7월 20일 예정됐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여파가 어떤 형태로 소유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차주 상보)**

백만원력 결집불사
희망의 불교,
미래의 불교를 함께 열어갑시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준공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불교요양원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조성
- 위례 상월선원 신축불사
- 나눔 및 교육기금 조성

대한불교조계종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준공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NAVER Daum
www.buddhism.or.kr

▶매일 발우저금통에 보시
▶정기후원(CMS) : 신청서 또는 전화신청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문의전화 02)6273-0108, 0109

• 모아진 발우저금통은 재적사찰 또는 문의전화로 상담해주세요.
•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기부재단으로 백만원력결집 공식 모금창구입니다.

박정희 정권 주도로 우여곡절 끝 통합

통합종단 60년, 과거서 현재를 보다

① 성립 배경 ③ 출범 이후
② 출범 과정 ④ 주요 인물
⑤ 평가와 과제

비구 · 대처 갈등 해소 위해
불교재건위원회 구성 추진
승려 자격기준 쟁점 사안
문교부 강도 높은 중재로
비구승 측 중심으로 출범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통합종단 출범의 시발(始發)은 1960년 박정희를 의장으로 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종교자율 · 비구대처 통합 방침에 기인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비구대처간 갈등해결을 위해 불교재건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종교 내부에서 자율적인 해결을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비구대처 통합을 요구했다.

이 같은 정부방침에 대처승 측은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비구승 측인 조계종은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처승을 승려로 인정할 수 없고, 정화과정에서의 재산손실에 대한 배상과 소송비 청산 등을 종단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 때문이었다. 특히 당시 문교부는 불교재건위원회 위원에 대해 양측이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를 요구했는데, 비구승측 입장에서는 불교정화의 주역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측과 비구 · 대처간 입장조율은 쉽지 않았다.

상당기간 조율한 끝에 불교재건위원회 조례안은 1961년 12월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불교정화 과정에서 제기된 소송의 일괄 취하조치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1962년 1월 양측은 불교재건위원회 구성에 최종합의했고 문교부 주재의 선서문에 서명했다. 당시 위원은 비구승측 원허 스님, 청담 스님, 추담 스님, 경산 스님, 행원 스님과 대처승측 조용명 스님, 안흥덕 스님, 이남채 스님, 박승룡 스님, 황성기 스님으로 구성됐다. 재건위원회가 결성과 함께 1차 위원회가 열렸고, 각 분과 위원장 선출 등 임원진이 확정됐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 구성과 종헌종법을 제정할 재건비상종회를 구성하고 비구대처 각 15인씩 30명을 선출했는데, 재건위원회가 구성된 지 불과 한달만에 비상종회가 개원할 정도로 빠르게 추진됐다.

불교재건위원회는 2월 12일 조계사에서 열렸다. 종회의장은 비구측 행원 스님이 맡았으며, 부의장은 대처측 조용명 스님이 맡았다. 동수로 구성된 종회였기 때문에 무엇하나 쉽지 않았다. 특히 승려 자격조항과 종회의원 비율이 쟁점사항으로 대두됐다.

승려자격은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로 규정됐고, '사실상 사찰에 거주라며 수도교화에 전력하는 자' '가족 부양의 책임을 가지지 않는 자' '범속인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 자' 등 기준을 만들어 대처승의 자격도 일부 인정됐다.



1962년 1월 22일 불교재건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문교부에 모인 비구 · 대처 양측 대표 모습. 사진출처=한국불교100년

종회의원 비율은 비구승 32명, 대처승 18명으로 확정됐다. 비구측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요인은 당시 박정희 최고의장이 비구승측에 힘을 싣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종헌의 무게중심이 비구승측에 쏠린 까닭에 대처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양측간 대립각이 심화되자 정부는 세부사항을 문교부에 일임하는 조건으로 종헌을 통과시켰다.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나 승려의 자격이었다.

비구승측의 주장과 문교부의 방침대로 출가독신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처승의 상당수가 포교사나 주지서리 정도로 전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처승 측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3월 6일 대처승측이 불참한 가운데 종헌이 최종 통과됐다. 대처승측의 동의를 얻지 못한 종헌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고, 결국 비상종회는 해체됐다. 비구대처 갈등을 봉합하는 통합종단을 출범시키려는 정부측 의지는 강경했다.

비구대처측 각 5인을 선출해 정부측 인사 5인을 포함한 15인 비상종회가 다시 구성됐다. 기존 비상종회가 해체되고 새로운 종회가 종헌을 제정하고 공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일에 불과했다.

정부는 새로운 종헌에 근거해 승려자격을 독신출가자에 한정하는 중재안을 통과시켰고, 4월 1일 제9차 재건비상종회에서 통합종단의 기틀을 구성했다. 종정에 효봉 스님이 추대됐으며 총무원장에는 임석진 스님이 선출됐다.

그리고 1962년 4월 11일 조계사에서 통합종단이 공식 출범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4월 12일자 '불교분쟁의 해결을 환영한다' 제하의 사설에서 "만 7년에 걸친 불교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빙탄불상(氷炭不相)의 대립을 지속하던 비구 · 대처 양승단이 과거의 모든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이제 혼연일치의 통합을 보게 된 과면에는 당사자들의 꾸준한 수습노력과 정부의 조정과 알선이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종단은 양측 사무를 인계하고 4월 14일 25개 교구본사를 구성, 문교부 등록을 완료했다.

"총무원 문화부, '문화원' 독립 · 격상 필요"

조계종 문화부, 7월 5일 역대 문화부장 정책간담회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를 별도의 '중앙불교문화원'으로 독립 ·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성공)는 7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교문화비전 2030 수립을 위한 역대 문화부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역대 문화부장 스님들의 의견을 정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 문화부장 성공 스님을 비롯해 현법 · 혜일 · 성정 · 수경 · 진명 스님 등 역대 문화부장 스님과 문화특보 정현 스님이 참석했다.

역대 문화부장 스님들은 문화부 조직이 포교원, 교육원과 같이 문화원으로 격상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현법 스님은 "중봉 성파 종정 예하께서도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종단 내 문화원 설립이 필요하다고도 하셨다"고 강조했다.

문화특보 정현 스님은 "문화부의 사업 규모에 비해 예산도 적고 인력도 부족하다. 이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문화부장 성공 스님은 향후 추진할 종책사업 계획들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성공 스님은 "가을부터 연말에 열리는 언론 · 출판 · 음악 등의 시상식과 미술전 등을 한데로 묶어 '불교문화대전'을 신설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면서 "문화재관람료 중 3%를 성보환수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낙성 앞둔 광제사에 마지막 원력 결집

7월 5일 기금 전달 잇따라

세종 광제사의 8월 9일 낙성식을 앞두고 수도권 주요사찰들이 신도시 포교원력을 담아 마지막 불사에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

강화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은 7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광제사 건립불사 기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어 서울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도 원행 스님에 2000만 원을 전달하고 "광제사 낙성식에 화계사 대중들도 참석, 축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도선사 태원 스님도 광제사 건립기금 5000만 원을 쾌척했다.<사진> 태원 스님은 "마무리 과정에 있는 광제사 건립에 신도들과 동참하기 위해 기금을 십시일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국지장사 주지 도호 스님이 2000만 원을 전달하며 광제사 불사에 적극 동참했다. 원행 스님은 사부대중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광제사는 종단 신도시 포교의 거점이자 시민들의 전통문화 향유 공간으로 운영될 방침"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임은호 기자

광주시, 나눔의집 지원금 보류…대안 마련 시급

경기도 감사따라 지원 결정키로
"할머니 보호 중단하란 말이냐"

경기도가 나눔의집 법인 및 시설 지원과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나눔의집에 대한 3분기 지원을 보류했다. 나눔의집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조례 개정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7월 5일 나눔의집에 2022년 3분기 양로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8200만 원에 대한 미교부를 통보했다. 시는 향후 감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여부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주민감사 시민대책위원회가 4월 20일 접수한 '나눔의집 법인 및 시설 불법지원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6월 20일부터 감사에 들어갔으며 7월 8일 완료한 상태다.

광주시민 235명으로 구성된 시민대책위는 감사 청구서에서 "조계종 주도로 설립된 나눔의 집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무료 양로시설로 등록돼 광주시로부터 불법적인 지원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광주시가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 환수와 책임 공무원 징계, 시설 폐쇄 및 독립 법인화를 촉구한 바 있다.

시민대책위의 주장은 현재 나눔의집이 무료노인양로시설로 지정돼 있어 문제가 불거졌다. 무료노인요양시설의 경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10명 이상이 거주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995년에 설립된 나눔의집은 한때 16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했지만 고령으로 사망, 현재는 4명만 거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눔의집 대표이사 성화 스님은 "기준을 맞추려 일반 저소득층 할머니들을 입소시키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 거주시설이라는 정체성이 훼손된다"면서 "게다가 입소 어르신들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특별법에 의해 보고받고 있는 상태로, 요양시설의 법적 기준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 및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눔의집은 7월 6일, 광주시에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실 동안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인도 분황사 주지에 본원 스님 임명

원행 스님, 7월 7일 임명장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의 초대 주지로 현지 건립불사를 지휘한 본원 스님(붓다팔라 스님)이 임명됐다.<사진 오른쪽>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본원 스님에게 분황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하고 "분황사를 잘 운영하면서 한국 성지순례자들을 잘 살피고 수행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본원 스님은 "한국불교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실히 소임을 다해, 2~3년 후에는 분황사가 부다가야의 중심 사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본원 스님은 "내년 1월 세계 수행자들을 분황사로 초청, 불교 수행과 불법을 알리는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라며 불자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본원 스님은 성원 스님을 은사로 1977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인도 현지 법인인 물라싼가를 창건, 교육 및 수행 지도를 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봉 대한불교관음종 제9세 종정 추대법회 및 총무원장 취임식 행

불기2566(2022)년 7월 14일 종로구 낙산 묘각사에서 대한불교관음종이
영산 홍파스님을 제9세 종정으로 추대하고, 청산 법명스님이 제11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합니다.

한국불교의 중견 종단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생방송 중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어에 "btn 불교tv"로 검색해 보세요

일시 : 불기2566(2022)년 7월 14일 오후 2시 장소 : 총본산 낙산묘각사


총무원장 청산 법명스님


종정 영산 홍파스님

대한불교관음종 제9세 종정 추대법회 및 총무원장 취임식 봉행위원회 합장

조계종 파송 장점 살리는 '중도의 묘' 필요

[기획] 군승 파송 절벽 다가온다

④ 20년 화두 타종단 진출, 해법될까?

십수년 이어온 문호개방 요청
금강대 후보생 선발자격 신청
시민단체 범불교적 참여 성명

조계종 단일파송 장점 상당해
범불교 참여 이끌고 위상 높일
종단적 협력체제 필요한 시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3년 1월 16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당시 교구장 자광 스님 명의로 신년기자회견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바로 '타 종단의 군승 파송에 대하여 종단 지침과 방침을 따르며 교구에서 별도 입장을 가질 사안이 아니다' 는 것이었다. 당시 신년기자회견에서 잠시 언급이 된 것 만으로도 별도의 입장문을 낼 정도로 조계종 외 다른 종단의 군종장교 파송 문제는 가장 예민한 사안으로 꼽힌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군승 파송 미달사태 해결을 위해 절치부심하던 4월 15일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대한불교삼보회, 우리는선우,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신대승네트워크,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등이 함께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직업군인인 군종장교가 출가수행자 계율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며 군승 신분규정 등 근본적인 개선책과 함께 "금강대(천태종)와 위덕대(진각종)가 사관후보생 양성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며, 개신교계의 '군선교협의회' 와 같은 협의체 구성으로 범불교적 참여를 도모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불교시민단체들의 성명은 그동안 단일 파송주체인 조계종의 책임에 대한 목소리임과 동시에 범종단적인 군종장교 파송을 구성하여 군포교를 활성화 하자는 오래된 요청이기도 하다.



군포교 현장에서는 조계종 단일파송에 대한 긍정 여론도 높다. 사진은 2018년 6월 19일 조계종 총무원이 위치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 군승 설법대회 모습.

군승 파송 대한 요구 이어져

조계종 외 다른 종단들은 군종장교 선발에 대한 문호 확대를 꾸준히 요청해왔다. 천태종은 2013년 8월 20일 종립대인 금강대 졸업자를 군법사로 파송하는 공문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내고 선발대상학교로 지정 신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기존 파송주체인 조계종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2014년 11월 19일 군종장교운영심사위를 열고 파송 요청을 부결했다.

당시 천태종은 조계종이 국방부 파송 인원 충족을 못시키는 점을 사유 중 하나로 들었지만, 이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파송 요구인원을 %% 충족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에는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도 나왔다. 당시 인권위는 국방부가 군종장교 선발요건을 조계종단으로만 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는 2001년 조계종 승려로서 임관하여 혼인 후 태고종으로 전종했으나 전역 처분 당한 진정인에 의한 것으로 조계종이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고, 국방부가 조계종 단일파송 입장을 다시 밝히며 일단락 됐다.

정체성 정립 · 일사분란 장점 지녀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조계종 외 종단에도 파송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요청에도 군포교 현장에서는 조계종 단일파송에 대한 목소리도 상당하다.

비구승인 한 군승법사는 "조계종 종단 정체성이 강화되며 군승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체성 시비가 사라져 위상이 올라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상당하다. 다른 종단에서 파송시 단일화된 전력에 손상이 갈 것"이고 말했다.

4기로 임관, 군종감을 지낸 예비역법사단장 원명 스님(영주 관음사 주지)은 "교단이 난립한 개신교 파송 방식의 단점도 많다"며 "군은 일사분란한 체제 하에 효과를 발휘하기에 여러 종단 난립보다 조계종 단일 파송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다른 종단 종립대에도 사관후보생 선발 기회를 제공, 이를 동국대나 조계종 군종교구서 교육하여 단일 파송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엄격한 선발을 통과한 여러 종립대 학생들에 대해 조계종 군승으로 승적 부여 방법도 모색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1기 불교군종장교인 권기종 동국대 명예교수는 "첫 파송 당시 5명 중 故이지행 법사는 태고종 승적에도 조계종 승적을 다시 줘 파송했다. 그만큼 군포교에 대한 절실함이 있었다"며 "군승 파송은 무엇보다 근본 목적이 포교다. 조계종이 한국불교를 이끄는 장자종단으로서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말했다.

민추본, 불교통일아카데미

8월 20~21일, 서울 조계사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가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민추본은 8월 20~21일 양일간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 제1강의실에서 총 4강에 걸쳐 '공존 상생 합심의 불교통일아카데미' 를 연다.

8월 20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는 1강의 주제는 '대 혼돈의 세계와 남북관계' 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가 강의한다. 오후 3시 30분에 진행하는 2강에는 '평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서울과 함께 하는 미래' 를 주제로 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강의한다.

3강은 8월 21일 오후 1시 30분 진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외교정책과 평화의 과제' 라는 주제로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강의한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부터는 '우리가 아는 북한, 우리가 알아야 할 북한' 을 주제로 미주 언론인 로창현 뉴스로 대표가 4강을 진행한다.

신청은 8월 16일까지. 홈페이지(www.unikorea.or.kr) 참조. 02)720-0531

임은호 기자

평불협, '통일보살' 30년 발자취 한 권에

기록물 '평불협 30년사' 발간
960쪽 분량에…성과물 담겨
"남북교류 새로운 장 열리길"

불교계 통일운동 단체인 평화통일불교협회(이사장 법타, 이하 평불협)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발자취를 돌보는 '평불협 30년사' 를 발간했다.

평불협 이사장 법타 스님은 7월 4일 서울 종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립 30년을 맞아 남북불교교류의 물코를 트며 '통일보살' 의 길을 걸어온 지난 세월을 회고하고 그 역사적 의의와 전망을 담은 기록물 '평불협 30년사' 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평불협 30년사' 는 △제1장 평불협 소개 △제2장 평불협 연보 △제3장 평불협 활동과 성과 △제4장 평불협 자료실 △제5장 북한불교의 현황과 조선불교도연맹 등 5장으로 구성됐으며 총 960쪽 분량이다. 대북지원과 남북교류, 유적복원 등 평불협 활동과 성과, 사진으로 보는 평불협 30년, 북한 불교의 현황과 조선불교도연맹 등 다양한 자료가 담겼다.

법타 스님은 "남북 불교 교류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자주적인 역량과 향후 역할을 제고하자고 한다"면서 "남북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는데 출간의 목적과 의미를 뒀다"고 '평불협 30년사' 발간 의의를 설명했다.



1992년 2월 12일 공식 출범한 평불협은 불교계 최초의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이다. 출범 당시 비제도권에서는 유일한 통일운동 단체로 꼽혔다. 법타 스님의 주도로 지난 30년간 대북지원과 북한 내 문화유적지 복원, 인권회복, 학술문화, 포교 교육 등 남북교류 분야에서 역할을 해왔다.

법타 스님은 통일운동을 하던 1994년,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옥고를 치른 바 있다. 그럼에도 '밥이 통일이다' '밥이 평화다' 를 구호로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진력을 아끼지 않았다. 1997년 황해남도 봉산군에 '금강국수 공장' 을 세우고 매달 인천항을 통해 60톤의 밀가루를 보냈고 하루 7700명분의 국수를 생산, 무상으로 제공한 일은 잘 알려진 일이다.2003~2006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와 공동으로 59개 북한 사찰 단청 불사를 진행, 단청면적 12만 3715m² 에 필요한 안료 4만 7269kg을 지원했다. 또 북쪽 스님들에게 홍가사 200바탕과 장삼 옷감을 후원하기도 했다. 통일부에 신고된 평불협의 대북지원금액은 50여억 원에 달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타 스님은 몇 해 전부터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되면서 평불협의 활동도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법타 스님은 "평불협은 출범 이래 30년 동안 온갖 희비곡절 속에서도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일' 에 기여하고자 진력해왔지만 현 상황은 마치 '잃어버린 30년' 처럼 허망한 현실 앞에 놓여 있다"면서 " '통일보살' 의 길은 그야말로 인욕으로 점철된 형자(荊刺)의 길이었고, 그렇기에 더더욱 평불협의 지나온 발자취를 남기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코로나19 소강에 불교NGO 자비행 박차

더프라미스, 난민 지원 캠페인
공생회, 캄보디아 등에 물탱크
홈커밍데이 개최한 로터스월드

코로나19 팬데믹이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지구촌 곳곳에서 부처님 자비를 전하고 있는 불교 국제구호단체도 다양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며 자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가장 발 빠르게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에 나섰던 더프라미스는 독일과 폴란드 TPU(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단체)와 함께 우크라이나 동부인 드네프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지원에 나섰다. 식량 및 비상약뿐 아니라 특히 어린이를 위한 지원 사업에 집중, 장난감과 미술도구 등 다양한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성우)는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류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육 시설 및 식수시설 건립 등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라오스 싸이타니구 켕카이 마을에 1동 3칸 규모의 유치원을 건립했고 현재 캄보디아 20번째 교육 시설인 뽀몬뜨라이 법성초등학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더프라미스로부터 장난감과 미술도구 등 다양한 물품을 전달받은 우크라이나 아이들.

생명의 정수 물탱크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캄보디아 학교 내 정수필터를 갖춘 생명의 정수 물탱크 2기를 건립 중이며, 연내에 5기 추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탱크가 건립되면 공공장소에서 보다 쉽게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6월 3~5일 3일간 캄보디아 아동센터에서 졸업생과 원생이 함께하는 '제1회 로터스 홈커밍 데이-반갑다 친구야' 를 진행했다. 이번 홈커밍 데이에는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봉 남북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부처님 진신사리탑 제막식' 행



모시는 말씀

대한불교조계종 부산 문수사에서는 〈부처님 진신사리탑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진신사리탑에는 스리랑카 종정스님으로부터 기증받은 불사리를 모시게 됩니다.
특히 금번 문수사에 모시는 불사리탑은 남북이 하나되는 통일의 염원을 담아
탑의 기단 및 탑신부는 북한 묘향산 보현사 8각 13층 형태를,
탑의 상륜부는 남한 불국사 석가탑의 형태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뜻 깊은 불사에 제방의 원로대덕 스님과 내외귀빈 그리고 불자 여러분을 모시고,
원만회향을 기념하려 합니다.
제막식과 더불어 〈신도회장 이 · 취임식〉도 봉행하오니,
수희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기2566(2022)년 7월 좋은 날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사 주지 지원 외 사부대중 일동 합장

● 일시 : 2022년 7월 16일 (토) 오전 10시 ●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사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사 부산시 남구 홍곡로 336번길 41 (용당동) 전화 : 051·624·3754 팩스 : 051·623·9253

폭염 잊은 상월결사 평화방생순례…1500불자 발원

7월 6일 보은 법주사 일대서 순례 봉행

석문, 상수도수원지 등 순례
불교 중흥과 세계 평화 발원
역대 최다 1500명 전국 운집
8월24일 은해사서 순례예정

보은 법주사=노덕현 기자

수은주가 34도까지 치솟은 이른 무더위도 불교중흥과 세계평화를 위한 불자들의 순례를 막을 수 없었다. 상월결사(회주 자승)가 7월 6일 법주사 일대에서 진행한 제4차 평화방생순례에는 순례 최다 인원인 1500여 명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발원했다.

이날 평화방생순례는 법주사 대웅보전 앞에서의 입재식으로 시작됐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대독을 통해 "올 한해 상월결사의 화두는 세상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마음의 자유, 곧 마음의 방생이며, 세계의 평화를 선도하자는 것"이라며 "마음의 방생을 바탕으로 평화방생순례가 무한한 원력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뭇 생명과 함께 진정한 평화가 어우러지는 시대에 걸맞는 수행과 신행문화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어 "옳고 그름의 경계 속에서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고 끊임없는 자비행을 실천해야 평화로운 세상이 이뤄진다. 법주사 순례를 하며 평화방생순례의 본래 취지를 잘 참구하여 사바세계가 불국정토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회주 자승 스님은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에게 상월결사를 상징하는 죽비를 전했다. 이에 정도 스님은 "오늘 순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한국불교의 방향과 수행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록이자 역사가 될 것"이라며 "법주사에서 이러한 순례 인연이 이어지는 것과 이에 동참할 수 있는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순례에 앞서 대중들은 연경희 법주사 신도회장을 대표로 발원문을 낭독하며 순례 의미를 새겼다.

입재식 이후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1500여 명의 사부대중은 법주사 대웅보전을 출발해 총지선원을 지나 석문을 반환점으로 다시 상수도수원지를 거쳐 미륵대불 앞까지 약 7km의 순례를 진행했다. 수원지에서 미륵대불까지는 저수지 둘레길을 통해 행선을 이어갔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왼쪽)과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을 필두로 순례 대중이 행선하고 있다.

이른 무더위에도 스님들은 가사를 수하고 마스크를 쓰고 묵언 순례를 이어갔으며, 거동이 불편한 불자들은 서로 부축해가며 무사히 순례를 진행했다. 순례에 참여한 이들은 땀으로 온몸이 젖었지만 환희심이 가득해 보였다.

순례 회향에 맞춰 청주 용화사를 비롯해 공림사, 미륵세계사, 덕주사 등에서 시원한 음료를 보시했으며, 긴 행렬이 모두 법주사로 들어올때까지 불교음악원이 음성공양을 올려 박수를 받았다.

김경화 연운사 총회장은 "상월결사 순례에 매달 참여하고 있다. 더운 날씨였지만 스님들과 함께 수행정진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어서 의미있었다"며 "원만회향까지 계속해서 마음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 행렬을 30여 충북지역 포교사들과 함께 안내한 김명동 포교사단 충북지역 단장은 "많은 인원에도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끝나 다행"이라며 "오늘 순례를 보며 새로운 불교전법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회향식에서는 총도감 호산 스님의 평화방생축원기도와 함께 진오 스님이 대표로 발원문을 다시 낭독했다.

순례대중은 발원문을 통해 "오늘 평화방생순례는 미륵부처님을 만나고자 찾아온 여정"이라며 "부처님 법이 머무는 이곳 법주사에서 우리는 서로 화합하여 세상의 등불이 되는 제자로 나아가기를 서원한다"고 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순례대중은 8월 24일 영천 은해사에서 진행될 5차 평화방생순례에도 마음을 모을 것을 다짐하며 회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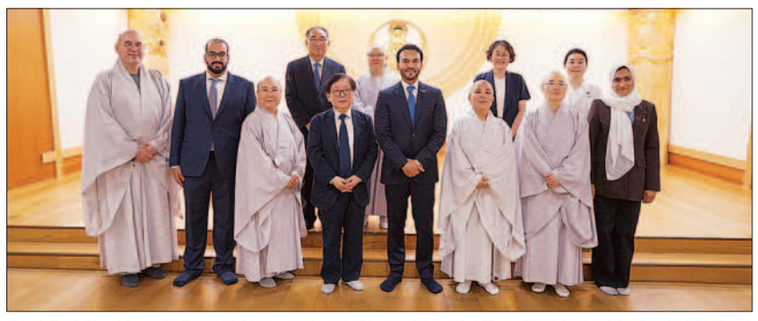
한편, 이날 평화방생순례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법원 스님, 중앙종회 부의장 각림 · 만당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스님 30여 명이 참석했다.

여기에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윤성이 동국대 서울캠퍼스 총장, 이영경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총장 등 재가단체 지도자와 김영환 충북도지사, 최재형 보은군수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동참했다.

또 서울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진관사, 전등사, 연운사, 대덕사, 백담사, 호압사, 안국선원, 용화사 등 전국 각지에서 불자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한마음선원 방문

6월 30일 한마음과학원 국제학술대회 협의차 진행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을 방문한 UAE대사 일행과 선원 스님들이 국제학술대회 원만성취를 기원하고 있다.

조계종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6월 30일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등 외교관 일행이 한마음선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한마음선원을 방문한 이는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아랍에미리트 주한 대사(H.E. Abdulla Saif Al Nuaimi, UAE Ambassador to Seoul) 등으로 이들은 한마음과학원 운영위원장 혜찬 스님과 한마음국제문화원 실장 청고 스님의 안내로 도량 경내를 둘러보았다.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은 선원에 방문한 아랍에미리트 대사에게 "이번 학술대회에 특별강연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 종교를 넘어서 팬데믹 이후 지구촌의 공생과 통합, 평화는 더 중요한 사안"이라며 "오래전부터 대행 선사께서는 지구 보전에 대한 법문을 많이 해주셨다. 일체가 다 한마음에서 비롯됐고, 일체를 내 생명처럼 생각하고 아끼며 살아가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압둘라 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 지구촌에 많은 문제들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부터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랍에미리트 측의 이번 방문은 올해 묘공당 대행 선사의 열반 10주기를 맞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뉴노멀 시대, 지구촌 공생의 삶 : 마음, 과학, 종교' 특별강연 건으로 인한 것이다.

노덕현 기자

명상, 과연 명약일까…불교진흥원 7월 강좌

7월 19일 다보빌딩 다보원서
미산 스님 · 김은미 교수 강사

명상의 최대 효과를 끌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7월 19일 오후 7시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명상, 과연 명약일까'를 주제로 7월 화요 열린 강좌를 진행한다.

7월 열릴 강좌 대상도서는 〈명상하는 뇌〉이며 강사로는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 김은미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 교수가 참여한다.

미산 스님은 1972년 백양사로 출가한 이래 봉암사와 백양사 운문선원 등에서 간화선 수행을 했으며, 인도와 미얀마에서 초기 불교 명상 수행을 했다. 동국대 선학과 졸업 및 인도 뿌나 대학교에서 석사, 옥스퍼드 대학교 동양학부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장을 비롯해 상도선원장, 하트스마일명상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은미 교수는 카이스트 화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IT경영학 석사 학위를, 서울불교대학원대 심신통합치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브라운 의과대학과 하버드 의과대학 명상과학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MBSR), 마음챙김 자기연민 프로그램(MSC), 마음챙김에 기반한 우울 치료(MBCT)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했다.

진흥원은 "어떻게 해야 명상의 최대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최신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방법론을 제안한 〈명상하는 뇌〉의 번역자 2명을 초청해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 일대기, 레고 무비로 최초 선보여

조계종 포교원,
7월 6일 유튜브서 공개
레고 인플루언서 '꾸삐' 콜라보
어린이 포교 일환 제작을 시도
스톱모션 활용, CG 등 가미해


레고 스톱모션으로 제작된 부처님 일대기 영상의 한 장면.

시대를 초월한 장난감 레고를 소재로 만든 레고무비는 2014년 첫 개봉 당시 전세계 4억 6100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렸다. '레고 닌자고 무비' '레고 베트맨 무비' 등 외전격 후속작에 이어 2019년 '레고무비2' 까지 수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런 레고 무비에 활용된 레고 스톱모션을 활용해 부처님 일대기를 보다 친숙하게 전하는 영상이 7월 6일 공개됐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범해)은 최근 신포교 콘텐츠 개발 사업 일환으로 부처님 일대기를 그린 '레고 스톱모션' 영상 콘텐츠를 제작, 7월 6일 공개했다.

포교원 유튜브 채널 및 '꾸삐KUPI'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번 영상은 국내 최초로 '레고 스톱모션'을 활용해 부처님 일대기로 만들어졌다.

스톱모션은 영상 프레임마다 피사체를 이동시켜 촬영, 마치 움직이는 듯한 시각효과를 내는 것을 말한다.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아날로그적 감성을 바탕으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유튜브 속에서 스톱모션을 활용해 손그림 · 레고 · 클레이 · 펠트 등을 소품으로 한 다양한 영상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처님을 레고 피규어로 만들고, 여기에 CG(컴퓨터그래픽) 작업을 더해 다채로운 영상미를 보여준다.

포교원의 이번 부처님 일대기 레고 영상은 국내 최고의 레고 인플루언서 '꾸삐KUPI'와 협업하여 만들었다.

꾸삐는 레고를 좋아하는 이른바 레고덕후들에게는 꾸통령으로 불리는 이다. 구독자 62만여 명을 자랑하는 꾸삐는 어린이가 쉽게 구하기 어려운 다양한 레고를 직접 조립해 소개한다. 한국의 레고 고수들이나 컬렉터들을 만나는 콘텐츠도 있으며, 영상제작팀의 도움으로 레고 영상을 선보이기도 한다.

포교원은 "이번 영상은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 대중들이 불교를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불교에 접근하는 경로를 다양화하여, 더 많은 사람이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2022년 불이상 수상자에 법장 스님 · 법륜회 · 구미래 소장

불이회, 제37회 수상자 발표
연구 · 실천 분야…특별상도


법장 스님



법륜회


구미래 소장

2022년 불이상 수상자에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 법륜회,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이 선정됐다. 불이회는 6월 30일 제37회 불이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불이상은 불교계의 학술적 역량과 대승적 이념을 구현하는 실천적 정신을 고취하고자 연구와 실천 2개 분야로 나눠 매년 시상하고 있다.

연구 분야의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원, 시간강사, 연구교수, 강의교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

올해는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이 연구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 후 일본 하나조노 대학원에서 석 · 박사를 취득한 법장 스님은 동아시아 고대 승려들의 계율 사상에 관해 여러 연구를 발표했으며 사상적 특성과 차이를 밝히는 세밀한 연구를 진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본 국제선학연구소 연구원, 동국대(경주) 강사, 조계종 교육아사리, 조계종 포교원 편집위원, 현대불교신문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2017년 한국불교학회 불교학술진흥상 최우수상, 2018년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학회상, 2021년 은정학술상을 수상했다.실천 분야는 선행과 포교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실천분야 수상자에는 법륜회가 선정됐다. 1999년 설립된 부산불교연합회 개인택시 법륜회는 '달리는 법당'이라는 슬로건 아래 현장 포교는 물론, 결손 가정에 대한 장학금 지원,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 및 생필품 나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산지역 재가불자 단체로 봉사활동을 두루 펼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올해는 불교 민속학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독보적인 활동을 해 온 학자에게 특별상을 추가로 시상하기로 하고 구미래 소장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은 불교 민속학 분야를 오랜 기간 연구하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역할을 해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문화창달위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한국불교민속학회 연구이사, 한국종교민속연구회 연구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편수연구원, 성보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한국인의 죽음과 사십구재〉(2009), 〈불교 상제례 안내〉(2011), 〈한국불교의 일생의례〉(2012), 〈존엄한 죽음의 문화사〉(2015) 등이 있다.

연구 및 실천 분야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2000만 원,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

한편 한국 불교 발전과 재가불교, 여성불교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자 만들어진 불이회(不二會)는 1985년 불이상을 제정, 한국 불교계의 참신하고 훌륭한 불교인들을 독려하고 한국 불교 중흥의 선구적 역군이 될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산불 피해 울진 보광사에 1억 원 전달

지난 5월,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 보광사에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정성으로 모인 기금이 전달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보광사 주지 정혜 스님에게 산불 피해 복구 지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조계종이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대형 산불 발생 직후 펼쳐온 긴급구호 모금캠페인에서 모연된 것이다.

제11교구본사 불국사 말사인 보광사는 5월 28일 울진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대웅전과 종각, 요사채 등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원행 스님은 복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라면서 "어려움이 크겠지만 종단에서 마련한 기금이 도량 복구 불사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혜 스님은 "작은 말사까지 신경써줘 감사하다"면서 "원장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불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만큼, 불사에 매진해 염려와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달라이라마는 6월 26일 열린 한국인 대상 친견법회에서 보리심과 선한 마음을 당부하며 "나와 남이 다르지 않으며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고통이 아닌 행복을 원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타인에게 자비심을 베풀고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과학은 양 날개…공성 지혜 증장"

박영빈 객원기자의 달라이라마 존자 친견기

6월 26일 한국인 대상 친견법회
불교와 과학 교류 중요성 강조해
韓 애정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한국인만을 위한 보살계 수계도
"함께 하겠다"는 말에 눈물 왈칵

인도 다람살라=박영빈 객원기자

3년만 이다. 달라이라마 존자를 친견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한국인 친견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해외방문이 어려워진 이래 거의 3년만에 잡힌 자리였다. 내 기억에 마지막으로 달라이라마를 친견한 것은 2020년 1월 보드가야였다. 외국인 단체 친견에 한국인 그룹이 낀 자리였다. 그러나 이번은 오직 한국인들만을 위한 시간이라고 동행한 남카 스님께 전해 들었다.

이번 한국인 대상 친견 법회는 〈불교과학총서 1: 물질세계〉를 봉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불교과학총서' 는 달라이라마가 기획한 것으로 지난 2014년 처음으로 발간됐으며, 올해 5월 경 한국어판이 발간됐다.

인도로 가기 위한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높았기에 개인방역도 신경써야했다. 6월 25일 아침 인천을 출발해 6시간가량 비행후 델리에 도착, 다시 버스를 타고 12시간을 달려 익일 아침 다람살라에 도착했다. 일행들 모두가 장기간의 이동에 지쳤지만 달라이라마를 곧 뵐 수 있다는 기대감에 모두 들뜬 모습이었다. 달라이라마 사무국에서 사람이 나와 검사키트로 음성임을 확인 받고서도 만일을 위해 숙소 밖을 나가지 않고 몸을 사렸다.

친견일인 6월 26일 아침, 달라이라마 관저 입구에서는 철저한 보안검색이 이뤄졌다. 먼저 친견자 명단에 따른 신분확인과 소지품 확인 등이 진행됐다. 휴대폰이나 카메라와 같은 개인 전자기기는 모두 반입금지라는 공지를 들었기에 미리 호텔에 맡기고 나와 큰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 이날 단체 접견이 몇 건 잡혀있는지 길을 안내하던 경호원은 한국인은 별도의 접견장소라며 티베트인들과는 다른 길로 안내를 했다.

도착한 접견실은 흔히 달라이라마 사무국 사진이나 영상 속에서 보던 장소였다. 벽에는 날란다의 논사들을 묘사한 불화가 걸려있고, 달라이라마의 자리 뒤로는 고행상이 중앙에 모셔져 있었다. 달라이라마는 고행상을 좋아하여 침실 머리맡에 오직 이 고행상 사진 하나만이 걸려있다고 한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엄청난 고행과 노력을 거치셨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한다. 아침 9시 20분경 시자들의 부축을 받아 달라이라마께서 접견실로 들어오셨다. 법문은 라디오를 통해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

달라이라마는 먼저 '불교과학총서' 의 한국어판 발간 소식을 듣고 불교와 과학의 대화와 합일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불교와 양자물리학의 동일한 점을 대중에게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달라이라마는 "오직 언설과 명칭만으로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중관의 견해와, 관찰자가 관찰하는 순간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양자물리학의 견해는 거의 동일하다. 이와 같이 불교와 과학간의 대화와 소통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실체가 없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들이 서로 의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판단하는 객관이나 주관은 결국 서로 의지하는 하나일 수 밖에 없다"며 연기법의 가르침을 과학적으로 풀이했다.

달라이라마는 이러한 과학적인 논리와 해석의 목적으로 "불교를 수행하는 이들이 과학에 대해서 살피고 그 견해를 분석하는 것은 모두 중생들을 위한 보리심과, 공성의 지혜를 증장시키기 위함이다. 이 둘은 새의 양 날개와 같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마음에 새겨야한다"다고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는 "우리 모두는 동일한 중생으로 모두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난 한 중생이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으며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고통이 아닌 행복을 원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보리심을 일으켜야한다"며 보리심과 선한 마음을 가질 것을 거듭 당부했다.

달라이라마는 한국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을 보였다. 자비에 대해서 설하면서 한국의 분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달라이라마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민족이 서로 등지고 살아야하는 것은 너무나 비극이다. 서로를 향한 자비와 지혜로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자유와 통일을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이어 "전세계를 여행하면서도 유일하게 가보지 못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오래전부터 한국 방문을 소망했으나 이제는 다리가 불편하여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기가 어렵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지금처럼 여러분이 나를 찾아와 만나고 교류할 수 있다"며 언제든지 한국인 불자들을 위해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비춰보였다.

법문 뒤에는 간단한 질의응답을 받았다. 첫 질문은 "과거와 현재, 미래 가운데 현재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 달라이라마는 여기에 대해 즉각 "언제나 자비를 가지고 모두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시금 보리심에 대하여 짧게 강조했으며 가능한 모두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했다.

이어서 나온 질문은 '불교와 과학, 특히 양자역학 이 둘을 함께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였다. 달라이라마는 "그 두 가지가 합쳐지는 교차점은 바로 공성에 달려있다. 모든 불교의 부파와 전통에 공성의 가르침이 있다. 공성의 논리가 불교와 과학의 합일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질문은 인도에 오기 직전 어머니를 떠나보냈다는 한 불자의 질문이었다. "망자를 위하여 어떠한 기도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달라이라마는 먼저 불자의 어머니를 위해 잠시 기도한 후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를 예시로 답을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기도를 올렸다. 자비의 본존이신 관세음보살께서 세세생생에 어머니를 돌봐 주시길 기원하며 60만 번의 육자진언을 회향했다"고 일렀다.

질의응답을 마치고 달라이라마는 참석한 한국인 불자들을 위해 보살계를 수계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우슬착지 혹은 호궤합장으로 바닥에 앉아 달라이라마의 인도에 따라 계를 수지했다. 계를 지키겠노라 다짐하는 게송을 3번 반복했다.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라고 서원한 한국인 대중들은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보살이 되겠노라 다짐했다.

달라이라마는 수계식이 끝나고 부처를 이루려는 목적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며 "패러글라이딩은 바람을 타고 목적지로 간다. 나는 여러분의 바람이 되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세세생생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많은 불자들이 이 말에 눈물을 보였다. 필자 역시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눈물을 흘렸다.

1시간가량 이어진 이번 법문은 긴 여운으로 이어졌다. 참석자 중엔 몇 번이나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거나 법문을 들은 이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과 같이 특별함은 없었다"며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감동과 감사를 이야기 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이번 만남은 오직 한국인 불자들을 위한 법문과 번역본 봉정을 위한 것이었기에 달라이라마 사무국의 공식 일정 공지에는 전혀 올라가 있지 않았다. 달라이라마는 보통 3년간의 공식 일정이 모두 차있다고 한다. 그런 바쁜 일정 속에 오직 한국인 불자들을 위해 단독으로 시간을 마련하고 수계식까지 집전해 주신 노스승의 은혜에 다시금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며 관저를 나왔다.

대한불교 영산법화종 **영산법화사**

2022년 하반기 종도모집

재단법인 영산법화회는 대한민국 제일 법화도량으로 법화조사님의 개창 66주년을 맞이하고 동시에 장흥도량에 큰 불사를 앞두고 있어 법화경에 인연 있는 종도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법화경 전문 도량으로 현재 공찰이 미국 LA 외 전국19개 도량이며, 기본자산이 일천억이 넘은 법화 제일 도량입니다. 스님 복지 우선으로 4대 보험, 각종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현재 재단 이사장이며 교단에 법주 이신 행학 큰스님을 위주로 법화홍통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법화도서관 및 법화노인요양원 등 사회에 이바지하는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화홍통(法華弘通)으로 꿈과 희망을 찾으시려는 재능 있는 많은 인재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꿈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해드립니다.

나무묘법연화경

- **모집대상** : **출가승려, 행자, 법화경 연구자, 사찰등록 하실 분**
- **모집인원** : 00명
-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 반명함판사진 3매
  법당내부 · 외부 사진(사찰등록하실 분), 타종단 법랍인증(승려증사본)
- **출가행자 모집** : 18세 이상
- **분 담 금** : 상담 후
- **영산법화사 각 도량 소개** : 영산법화사 홈피(http://ysbuphwasa.org) 참조
- **디지털법화도서관** : 법화경 관련 서적 50여종
- **문의전화** : 02)762-4922 (서울 종로구 동숭길116 영산법화사 본사)

※ 본 재단은 개인재산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 영산법화회 이사장 행 학

개교 40주년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 연수 인증교육 [비대면 ZOOM]

- 과 목 : 뇌과학적 사실로 이해하는 붓다의 깨달음과 마음의 구조
- 일 정 : 2022년 8월 22일(월)~26일(금) 5일간 13:30~16:30
- 교 수 : 동국의대 해부학 교수 문일수 (서울대학원 · 캐나다UNB박사)
- 교육비 : 10만원
- 특 징 : 2600년전 붓다의 깨달음을 현대의학으로 규명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제공

부동산 융합풍수학과

- 개 강 : 2022년 9월 19일(6개월간 매주 월요일 오후7시~9시)
- 교육비 : 월 7만원

여해스님 (부산이산학회 회장, 한국풍수최고봉 이산 장태상 선생 수제자)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

보살계로 다시 살펴본 '삶과 죽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학술대회
7월3일, 통도사 반야암 연구원서

'불교의 생사관과 불교의례' 주제로
"죽음 선택, '자비심'이 중요 기준돼
선업위한 죽음방법 自意 선택 필요"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이 7월 3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불교의 생사관과 불교의례'를 주제로 제7회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목숨과 죽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타인의 목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보살계에서는 이러한 목숨과 죽음에 대해 보살의 자비심과 연민심에 의한 방편이라면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죽음에 대한 불교적 관점과 불교의례의 진정한 의미를 고찰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이 7월 3일 통도사 반야암 내 연구원에서 '불교의 생사관과 불교의례'를 주제로 제7회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은 '보살계에 나타난 웰다잉'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자살·안락사 등 죽음을 보살계를 근거로 한 예외 상황을 언급하며 죽음에 대한 또 다른 가치관을 제시했다.

먼저 법장 스님은 죽음을 선택하는 시점에서 자비심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장 스님은 "자신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기에 연명치료를 포기하거나, 혹은 가족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치료를 포기하는 결정을 자비심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보살의 방편행"이라며 "자리이타의 실천이기에 공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살계의 이런 방편행은 현대에 발생하고 있는 생명의 존엄과 관계된 여러 문제에서 불교적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죽음을 맞아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법장 스님은 "보살계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존재는 자신만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인연 관계 속에서 삶이 형성된다. 이는 일체의 모든 것을 연기의 입장에서 설하는 불교적 관점의 연장선"이라며 "죽음을 앞두고 미안함이나 상처가 있는 관계가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업을 남기고 떠나야 한다. 또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마무리를 선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1부 개회식에서 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 지안 스님의 개회사와 김성태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2부 학술대회는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이 '보살계에 나타난 Well Dying'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명우 동의대 교수가 '불교의 중음세계와 지옥관(지장시왕경·예수시왕생칠경과 정법념처경을 중심으로)'을,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가 '불교의 추천·초도 의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각 주제 발표 이후에 동국대 박사 현암 스님과, 윤종갑 동아대 교수, 조수동 대구한의대 교수, 동국대 박사 신경 스님,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 구자상 동의대 교수가 논평했다. 학술대회는 주제발표 및 논평 후 종합토론으로 마무리 됐다.

김명우 교수는 "지옥이 필요한 이유와 136곳이나 되는 지옥을 설정한 연유는 근본적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경책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라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불교사상에 대한 학문적 고찰 및 연구 그리고 대중화를 위해 2011년 설립됐다. 이후 상구보리 하화중생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불교학술대회 및 연구를 지원하고 반야학술상을 제정해 연구자를 격려하고 있다. 아울러 학술강연회, 불교경전 등을 강연하고 월간 반야 등 다양한 방편으로 학술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원장 지안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혼탁하고 괴로움이 가득한 사회를 맑히는 정화의 역할을 담당해주길 바라고 불교의 참된 가르침이 전달되어 바른 인식을 제안하는 자리이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 불교를 널리 전하고 불교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을 설립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인 죽음을 통해 삶을 알고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윤회의 고리를 끊는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태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해 삶과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불교의 생사관을 전달해 진정한 의미를 일깨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불교문인협, 〈실상문학〉 통권 100권 발행

'불심이 꽃피는 축제한마당' 개최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차정연)가 7월 2일 서면 영광도서 8층 문화홀에서 창립 35주년 및 〈실상문학〉 통권 100호 발행을 기념하는 '불심이 꽃피는 축제한마당'을 개최했다.

〈실상문학〉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불자 문인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문학에 담아 실천하고 안내하기 위한 부산불교문인협회 대표 문학지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사장 혜총 대종사와 천룡사 주지 능지 스님, 관음정사 주지 보우 스님, 부산진구불교연합회 회원 스님들과 차정연 회장 등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이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인 부산불교문인합창단의 음성공양 '합창'과 성복순 시인의 '여는 시'로 시작했으며 1부에서는 국민의례 및 삼귀의와 차정연 회장의 인사말, 혜총 대종사의 격려사 순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문인들에게 감사패와 공로상 및 신인상 등을 수여했다. 감사패는 혜총 대종사가 받았으며, 공로패는 강민수 수석자문위원이 받았다. 신인상은 전병열, 정지우, 이장옥, 김세희가 시 부문으로 당선돼 수상했다. 2부 축제한마당은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들이 직접 장구, 민요, 축무, 하모니카 연주 등으로 다채로운 무대를 펼치며 〈실상문학〉 100호 발행을 축하했다.

혜총 대종사는 "〈실상문학〉 속의 작품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님의 법문이라 생각한다. 투박하고 매끄러운 글의 겉모습 보다 의미에 가치를 두면 작품 하나하나가 모두 나의 스승이 될 것"이라며 "〈실상문학〉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문인들 개개인이 만드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각자 글을 부처님 모시듯 정성을 다하면 그 정성들이 모여 〈실상문학〉이 우주법계에 큰 광명을 발할 것이다"고 격려했다.

차정연 회장은 "통권 100호 발행까지 함께해준 모든 분들의 덕분이다. 먼저 불문협을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역임한 원광 스님께 오체투지를 올린다. 또 역대 회장님과 회원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불교문학인으로서의 선한 삶을 약속하고 불퇴전의 신심으로 수행하고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서원했다.

부산불교문인협회는 1988년 8월 26일 원광 스님을 초대 회장으로 창립해 같은 해 12월 5일 〈실상문학〉을 발간했다. 35주년을 맞아 통권 100호를 발행했으며, 문학기행 및 수계식, 마스크 나눔 봉사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이사장 혜총 스님은 1998년 〈실상문학상〉을 지정해 불교문인들을 격려하며 매년 연말 시상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진각국사 혜심 스님 다례재 봉행


진각국사선양회는 6월 24일 화순문화원에서 혜심 스님 다례재를 봉행했다.

고려의 2대 국사인 진각국사 혜심스님의 다례재가 봉행됐다. (사)진각국사선양회(대표 도균)는 6월 24일 화순문화원에서 혜심 스님 탄신 844주년을 맞아 다례재와 지역주민 경로 위안잔치를 열었다.

행사에는 도균 스님을 포함해 흥산스님(세계불교승황성 이사장), 박철언 화순부군수, 이형일 前 화순문화원 원장, 김형래 화순문화원장을 포함해 2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올해 17년째 이어진 다례재는 식전행사에 이어 꽃피움절의 육법공양, 법패의식, 헌시 낭독, 축사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과 축하공연으로 의미를 더했다.

도균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혜심 스님은 고려 무신정권시대에 백성의 안녕을 위해 헌신한 분으로, 오늘날 큰스님의 가르침과 수행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공덕을 찬탄했다.

박철언 부군수도 축사를 통해 "화순에서 태어나신 혜심 스님은 화순을 빛낸 큰 어른이고, 한국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스승"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17년째 다례재를 봉행 중인 (사)진각국사선양회는 그동안 학술대회, 경로 위안잔치를 통해 혜심 스님의 가르침과 뛰어난 애민애족 사상을 지역에 전파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경선 스님 선서화전 개막

'월인-묵언(月印-墨言)'
7월 3일~8월 6일,
범어사성보박물관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의 선서화전이 열린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7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2층 전시실에서 주지 경선 스님의 선서화전 '월인-묵언(月印-墨言)'을 개최한다.

7월 3일 열린 개막식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법륜사 회주 선래 스님, 금강암 주지 정만 스님, 범어사성보박물관 관장 환응 스님을 비롯해 김도흡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백종헌 국회의원, 김재윤 금정구청장, 전호환 동명대 총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참가 내빈들은 축사를 통해 경선 스님의 전시를 축하하며 글과 그림에 담긴 수행의 여정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전시는 경선 스님이 첫 전시 후 11년 만에 여는 두 번째 전시로, 말로 전할 수 없는 오랜 수행의 깨달음을 묵향에 담아 언어 대신 마음으로 전하는 불립문자의 향연이라는 평가다.

경선 스님은 "범어사 주지 소임을 맡으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바쁜 시간 가운데서 붓을 잡으며 수행자의 본문을 생각했고 선서화는 정진의 도구가 되었다"며 "그림을 마주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수행의 기쁨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7월 3일 박물관 앞 특설무대에서 '성보박물관 신축이전 기념 힐링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는 박물관 불사 기간 동안 동참해준 불자들과 시민들을 위해 진행됐으며 세종국악단 개막 연주로 시작해 김동규 바리톤, JGL아카펠라, 김영임 명창, 인기가수 알리가 화려한 무대를 펼쳤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남북평화통일 서원 담은 '불(佛)사리탑' 세운다

부산 문수사, 7월 16일 오전 10시 제막식

민족 통일 위한 도량, 염원 계승
북한보현사 8각 13층 석탑 모형
불국사 석가탑 상륜부, 통일 상징
스리랑카 진신사리서 분과된 2과
40여 년 불사 마무리, '화룡점정'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남북평화통일 염원을 담은 부처님 진신사리탑이 부산 남구 문수사(주지 지원)에 조성된다. 문수사 진신사리탑은 40여 년 동안 도량 불사를 이어 온 주지 지원 스님의 도량 불사 회향이자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해온 스님의 삶을 상징한다.

문수사는 7월 16일 오전 10시 진신사리탑 앞 마당에서 제막식을 봉행하고 불사 회향을 알린다. 제막식에는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법흥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원 스님은 "남북이 분단되어 혈육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진 지 반세기가 넘었다. 우리 민족의 숙원은 남북통일"이라며 "그 염원을 모아 부처님의 위신력에 기도하고 민족의 정신을 일궈내는 데 의미가 있다. 인연이 된 부처님 사리를 문수사에 여법히 봉안하고 민족통일을 위한 도량으로 염원과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문수사 진신사리탑은 지원 스님의 남북통일 염원을 담아 북한 묘향산 보현사 8각 13층 석탑 형태로 구성됐다. 보현사는 북한 국보유적 제40호로 7세기경 건립된 주요 사찰이며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소실됐다. 현재 대웅전과 만세루 등이 1970년 복원돼 묘향산력사박물관으로 지정됐다. 보현사 8각 13층 석탑은 북한 국보유적 제143호로 고려후기에 조성됐으며 화강석으로 높이 8.58m에 달한다. 3단 지대석에 단층기단, 13층의 탑신부, 상륜부로 이뤄진 다각다층석탑으로 고려 석탑 중 가장 층수가 많고 화려하다.


문수사 진신사리탑 조감도.


불사리탑 불사를 진행해 온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

문수사 진신사리탑은 보현사 8각 13층 석탑 형태에 불국사 석가탑 상륜부를 본떠 조성했다. 이는 북한과 남한을 대표하는 불탑을 함께 조성해 화합과 통일을 상징하기 위함이다. 또 진신사리는 7월 4일 기단 2층에 봉안됐으며, 대승경전인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을 비롯해 신도들이 직접 사경한 경전, 현대를 상징하는 물품인 핸드폰과 전자펜 등도 함께 봉안했다.

봉안된 부처님 진신사리는 스리랑카 야스기리아 종단 종정 스님이 1978년 방한해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며 김종필 前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불사리 5과에서 분과한 사리이다. 스리랑카에서 전달받은 불사리 5과는 2군 사령부 호국법당 무열사에 사리탑을 조성해 봉안됐고 당시 지원 스님은 군종병으로 근무하며 사리탑 조성 모연에 앞장섰다. 스님은 사리탑 조성 모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분과된 사리2과를 받아 당시 문수암(현, 문수사)주지이자 지원 스님의 법은사인 덕암 스님께 전달했다. 덕암 스님의 입적 후 발견된 사리는 4년 전 사리함을 조성해 대웅보전에 이운했고, 사리탑 조성 위원회를 구성해 불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진신사리탑 회향을 통해 문수사는 민족통일을 상징하는 도량으로 완성됐다. 문수사는 70여 년 전 덕암 스님이 주석한 참회기도도량이었다. 지원 스님이 주지로 소임을 담당하면서 현 부지로 옮겨 중창불사를 진행했다. 도심 중심에 7000여 평에 이르는 부지에 대웅보전과 지장전, 삼천불전을 비롯한 요사채 등 20여 개의 종교 건축물과 신앙공간을 조성했다. 지원 스님은 대북사업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통일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위드아시아를 설립해 북녘 어린이를 위한 자비의 신발보내기, 통일자전거 보내기 운동, 남북학생미술전시회 등을 개최했고 북한 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및 생필품 보내기 등 다양한 대북지원사업을 펼쳤다. 이뿐 아니라 근현대사의 소외계층을 보듬고 동체대비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에도 앞장섰다. '합천평화의집'을 통해 원폭피해자 2세 복지지원, 나눔의집 등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활동도 주도했다.

지원 스님은 "이제 문수사는 정법신앙의 전당이 되고 사회교화의 광장이 되었다"며 "사리탑을 조성함으로 민족의 염원과 역사를 담아 이 땅에 불타(佛陀)의 법우(法雨)가 내려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태화선원 개원 법회 참석 대중이 불교중흥을 서원하고 있다.

울산KTX역 도심포교도량 태화선원 개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태화선원(주지 명본)은 7월 2일 선원 대웅전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개원식 행사는 식전 축하공연,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축사, 법어(대법륜사 금강 스님), 명본 주지스님 인사말, 사홍서원, 회향,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태화선원은 울산KTX역세권 신도시 도심포교 중심 역할로 개원과 함께 사시예불기도로 100일정진이 진행 중이다.

삼남읍 울주군보건소에 인접한 태화선원은 명본 스님의 원력불사로 문화, 수행정진의 힐링도량으로 자리하고 있다. 태화선원은 현대식 건물에 맞배지붕 형식으로 현대와 전통의 미를 살린 공간으로 구성됐다. 연건평210평(693m)에 3층 단독건물 1층에는 요사체 및 종무소,(80평), 2층에는 대웅전(50평 법당), 3층에는 명상실(50평)로 꾸며졌다.

개원법회 하루 전 창원 아랫녘수륙보존회 백운사 석봉 스님의 집전과 김해 대법륜사 금강 스님의 증명으로 석가모니불 점안법회도 봉행했다.

주지 명본 스님은 인사말에서 "도심포교의 일환으로 삼남읍 신도시에 휴식공간과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불사를 진행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포교하고 정진하는 도량으로 발전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회에는 김해 대법륜사 금강 스님, 태화선원 명본 스님, 영축총림통도사 총무국장 현덕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해남사 해원 스님, 내원암 진응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등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월주 스님', 7월 정읍 역사인물 선정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등 사상 재조명

전북 정읍시(시장 이학수)가 한국 불교계의 사회운동을 이끈 월주 스님을 7월의 정읍 역사 인물로 선정했다.

월주 스님(1935-2021)은 정읍시 산외면 출생으로 서울 중동중학교에 다니다가 한국전쟁 발발로 중퇴하고 낙향했다.

1954년 정읍 농업고(현 정읍제일고) 2학년 재학 중에 속리산 법주사에서 당대의 선지식인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61년 26세 나이로 김제 금산사 주지가 되었다. 조계종 본사(本寺) 주지로는 최연소 기록이다.

1980년 제17대 총무원장에 선출됐으나 전국 사찰이 군홧발에 짓밟힌 '10.27 법난' 당시 강제 연행돼 취임 6개월 만에 총무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신군부의 전두환 지지 성명을 내라는 명령을 거부하자 서빙고 보안실로 연행되어 23일간 고초를 겪기도 했다.

1994년 제28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복귀한 뒤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고민한 끝에 1995년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불교계 시대적 책무로 설정했다. 이후 1990년대 말부터 故 김수환 추기경, 故 강원용 목사와 함께 '종교 지도자 삼총사'로 불리며 불교계 사회운동을 주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 나눔의 집 이사장, 지구촌공생회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2021년 7월 22일 김제 금산사에서 입적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의 역사적·예술적으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재조명되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정읍의 인문 역사적 가치와 시민들의 자긍심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송광사 '송광백련 나비채 음악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단됐던 완주 송광사 '송광백련 나비채 음악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7월 2일 송광사 앞 마당 특설무대에서 '2022년 송광백련 나비채 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에 앞서 송광사 사운당에서는 송광사 백련지에서 수확한 연을 재료로 한 연음식 만찬이 열렸다.

올해 나비채음악회는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 최영선)의 카르멘 서곡을 비롯한 12곡의 클래식의 아름다운 선율로 무더운 여름밤을 수놓았다. 또 소프라노 정혜옥, 테너 하만택, 바리톤 김동섭이 출연해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함께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보여줬다.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은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행복하다 즐겁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며 "여러분도 행복의 조건들에 따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멈췄을 때 행복해진다는 생각으로 생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순 개천사, 치유음악회 열어

코로나19 방역 종사자를 위한 치유음악회가 열렸다. 화순 개천사(주지 보원)는 지난 7월 2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을 위한 치유음악회를 500여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터울리기풍물의 신명나는 풍물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소리꾼 백금렬 씨의 사회로, 국악가요(김주희, 송혜원), 거문고 연주(서여경)로 2년여 동안 이어진 코로나펜데믹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한 무대를 열었다.

무대는 국악공연이 이어졌다. 바라춤(문영숙), 가야금병창(김민지, 이유리), 판소리 백금렬, 남도민요(김주희 외 3명)와 트로트 한가은 씨의 노래로 참여한 시민들의 치유음악을 선사했다.

보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방역 종사자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고자 했다. 어려운 시간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강경한문+법화경강좌

부산
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장소 : 부산역 앞 광장호텔 뒤 참맛집 5층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200-13)

대구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장소 : 이시아 폴리스 태왕아너스타워 상가1층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41)

● 동참자격 : 불교정법 공부를 서원 하신 분
● 수강회비 : 무료 (단, 교재비 3만원 자부담)
● 교육기간 : 1년 2학기 (수시모집)
● 문의전화 : 010-4501-8711

嶺南僧伽大學 總長 崔 空 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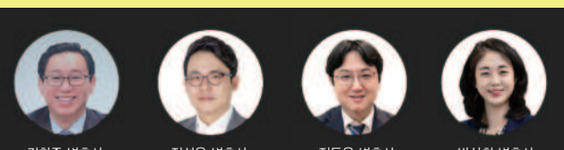
종도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금송
T.055)747-1300 F. 055)747-1307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293번길 7, 301호(유니언빌딩, 신안동)


김회종 변호사 전 진주지청장
정성윤 변호사 민사/가사 전문
정동윤 변호사 형사/부동산 전문
박상희 변호사 이혼/형사 전문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종도를 위한 고문변호사"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전화 02)739-4780

세계유산 '엔랴쿠지' 온라인서 만나요

10월, 온라인 라이브 플랫폼 공개
사이쵸 대사 원적 1200주기 맞아
MZ세대 겨냥 가르침 · 문화 소개
패션쇼 보며 실시간 구입도 가능

박영빈 객원기자



오는 10월 개최되는 온라인 라이브 이벤트 '전등 라이브'의 홍보 메인 이미지. 사진출처=PR타임즈

일본불교 중요 성지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히에이잔 엔랴쿠지(比叡山延暦寺)가 오는 10월, 온라인 라이브를 개최한다. 사찰 탐방은 물론 전통문화 소개와 패션쇼, 전통 공예품 라이브 커머스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번 온라인 라이브에 교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일본의 'PR 타임즈'는 '전등(傳燈) 라이브'라는 이름이 정해진 이번 이벤트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일본 천태종 총본산인 히에이잔 엔랴쿠지는 1200년에 걸쳐 일본의 문화와 사상, 역사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왔다. 일본문화의 수원지라고도 불리는 이 도량이 현대문화와 다시금 함께 발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엔랴쿠지의 개산조인 사이쵸 대사의 원적 1200주기를 맞이하여 독자적인 온라인 라이브 플랫폼을 개설, 다양한 콘텐츠를 공개하고 천태문화와 전통문화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 이번 목표다. 이번 이벤트의 이름인 '전등(傳燈) 라이브'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미래에 전달하듯 불교의 가르침과 문화,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항상 연결되어 마음의 어둠을 밝히길 바란다는 뜻이 담겼다.

엔랴쿠지는 온라인 가상맵으로 사찰의 통탑(東塔) 구역을 재현하고, 이 맵을 선택하고 돌아보는 것에 따라 다양한 행사와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벤트는 아미타당의 복도에서 열릴 패션쇼다. 일본의 기모노를 스트릿 패션으로 재해석한 브랜드 '베듀타'의 의상 30여 점이 공개되는 이번 패션쇼는 모델들이 착용한 상품을 실시간으로 구입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패션쇼에 사용되는 음악과 조명은 대부분 일본 전통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융합을 확실히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패션뿐만 아니라 전통공예품도 라이브 커머스로 전시 및 판매된다. 운영 측은 "히에이산이 큰 영향을 미쳐온 일본의 전통공예를 MZ 세대들에게 소개하고, 또 새로운 최첨단 상거래의 방식을 장인들에게 소개하여 상생의 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라이브 커머스의 목표를 밝혔다. 또 엔랴쿠지의 스님과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소개하는 사찰 투어,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타종 등의 행사도 모두 동일한 플랫폼을 이용해 라이브로 진행된다. 현재 운영 측은 프로젝트에 참가할 업체와 새로운 기획에 대해 공모를 받고 있다.

엔랴쿠지 측은 "이번 온라인 라이브는 이곳 천태의 성지에서 문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발전이 진행될 수 있음을 밝히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운영 측 역시 "이번 라이브 이벤트를 통해 일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日, 재해피난 장소로 사찰 활용

요코하마시 · 시불교회 공식협정
피난소 · 시신안치소 활용도 논의



요코하마시와 요코하마시 불교회가 대규모 재해 시 사찰을 피난장소로 제공하는 협정을 맺었다. 사진출처=타운뉴스

호우나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 시 지역주민들을 임시로 수용하고 피난하는 장소로 사찰을 활용하는 협약이 일본의 지자체와 불교계 간에 맺어졌다. 지난 6월 30일 일본의 '타운뉴스'는 재해 시 피난장소활용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요코하마시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 칸토(關東)에 위치하며, 도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요코하마시(横浜市)가 불교계와의 협의 끝에 대규모 재해 시 주민들의 피난소 및 시신안치소 등으로 사찰을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 요코하마시 불교회에 따르면 "2014년 요코하마시 니시구(西區)가 동일한 내용으로 불교회와의 협정을 맺은 바 있지만, 시 전체와 공식 협정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넓은 부지를 가진 사찰을 재해 시 피난장소로 지정한 사례를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시 전체가 협정을 맺고, 그 내용에 단순 피난뿐만 아닌 시신안치에 대한 내용까지 담긴 것은 드문 경우다. 요코하마시 불교회 회장인 요시나미 유쇼 스님은 "올해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 칸토 대지진이 있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여러 법요를 준비하며 사찰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생각했다. 이중 열린 사찰을 위한 한 방법으로 피난장소로 사찰을 개방하는 것을 시에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요코하마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요코하마시의 다카사카 테츠야 위기관리감독은 "사찰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마음의 의지처다. 지역민들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장소가 피난소로 늘어난다는 것에 매우 감사하다"며 불교계의 결정에 감사를 표했다.

현재 요코하마시 불교회에 가입한 사찰은 419개소. 이중 여러 자연재해에도 큰 영향 없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사찰을 선정해 피난소로 활동할 예정이다. 유쇼 스님은 "원래 사찰은 지역정보의 중심지로, 현대의 학교나 구청, 보건소와 같은 곳"이라면서 "피난소로 사찰을 개방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행을 실천하면서 다시금 사찰이 지역에 녹아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청년 불교화가, "그림은 영적 실천 연장선"

존 윌리엄스, 블루밍턴센터 전시
'타라 보살' 작품 "소박함의 표현"



미국 인디애나주서 활동한 불교 청년화가 존 윌리엄스.

미국 인디애나주 북서부에서 활동하는 불교 청년화가 존 윌리엄스(John Wilems)가 타지에서 첫 번째 전시회를 연다.

존 윌리엄스는 아크리트 아트 콜렉티브(The Accrete Art Collective) 주최로 블루밍턴 아트 얼라이언스 센터(Arts Alliance Center)에서 열리는 기획전 '거품 같은, 그리고 공허한' (Fluffy & Airy)에 참여한다. 해당 전시는 생각, 자연, 그리고 단순함을 주제로 7월 8일부터 8월 6일까지 열린다.

그의 주작업은 불교 도상화(종교나 신화적 주제를 표현한 미술 작품에 나타난 인물 또는 형상)이다. 블루밍턴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도 그는 고통으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키는 타라(Tara)보살을 그린 그림을 전시한다.

그는 "타라보살은 자비와 연민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소박하고 익살스러운 면도 지니고 있다"며 "그걸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그는 "그림은 내 영적 실천의 연장선"이라고 웃어 보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삶이란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답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우연히 만난 명상치유모임에서 그 답을 찾고 배웠다"는 것이다.

그는 "치유모임은 나를 나아가게 했고, 예술로서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며 "불교는 당신 삶의 방향을 설정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명상은 여러분의 삶에서 현재에 머무르게 도울 것"이라며 "나에게 있어 불교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고 또한 벗어나게 했다"며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선택권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머리를 맑게 하고 평정을 찾기 위해 종종 명상을 한다. 불안감, 슬픔, 고민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스스로 노력하기 위함이다. 그는 "기독교인이든, 무신론자이든, 불자이든 관계없이 명상은 영적 치유를 위한 훌륭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자신이 불교로부터 배운 것을 표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그는 "타지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작품들을 통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美 대법 '낙태죄 합헌' 판결 불교계 찬반 '극명'

"생명 귀하게 여겨야 한다"
"여성 선택권 존중" 엇갈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하자 찬반 논란이 거세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불교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는 6월 28일 "불교는 낙태와 관련해 매우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교계 반응을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24일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공화당에서 임명한 6명의 대법관들은 '합헌' 판결을, 민주당에서 임명한 대법관 3명은 '위헌' 판결을 각각 내렸다. 또 이들은 '5대4' 의견으로 낙태권을 보장했던 이전 결정들을 기각했다. 이로써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은 50여 년 만에 공식 폐기됐다.

이 가운데 불교계에선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쪽에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은 가장 중요한 불교 덕목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한다. 종교 매체 릴리전 언플러그드(Religion Unplugged)는 "불교는 윤회를 믿으며, 인간 생명은 태아 때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친다"는 영국의 불교학자 데미온 키온(Damien Keown)의 말을 인용하며 "새로운 존재(태아)는 성인 인간과 같은 도덕적 존재로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퓨리서치(Pew Reserch)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불자 중 82%가 '모든 또는 일부 상황에서 합법적 낙태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해당 매체는 "불교는 생명을 해하는 낙태를 교리상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임산부에게 중요한 선택에 대한 연민과 관용의 관점에서 찬성하기도 한다"며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낙태를 법으로 금지할 경우 여성들이 불법 의료 현장에 내몰릴 수 있다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평가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우공침술
개·인·교·습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TLS 침법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과 같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 및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신경학, 면역학적인 원리에 의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락이나 경혈들을 애써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뇌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TLS 침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침술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침술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침술을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습니다. 별 의미도 없이 지나치게 형식화된 경혈을 죽어라고 익히고 그곳에 단순히 침을 찌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침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발한 침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초보자도 딱 6일만 시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TLS 침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3일 동안의 속성과정으로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공침술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저에게 오셔서 교습을 받으시거나 또는 제가 방문하여 교습해 드립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 및 수강신청 : 010-4054-7110

자신 체험 바탕, 동서양 심리치료와 명상 결합



스님의 그림자
효록 지음
운주사 펴냄
1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승려로서는 최초로 권위 있는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효록 스님이 털어놓는 자기 치유 이야기이다. 출가수행자와 상담전문가라는 권위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감추고 싶었을 자신의 내면까지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 가는 과정을 담은 심리치유 경험담이자 탐험기이다.

인간의 마음은 복잡 미묘하다. 그래서 '내 마음나도 몰라' 라는 말에 공감한다. 마음은 교육 받은 대로만, 논리적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는가? 일반적으로 동양의 전통적인 수행과 종교는 개인의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서구의 심리학은 영적인 영역에 무심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두 영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마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대응을 위해서는 상호 융합적 연구와 성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인간 의식 연구 대가인 켄 윌버는 의식 발달의 두 가지 길을 말하는데, 성장의 길은 자신의 무의식적 그림자를 자각하고 치유함으로써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길이고, 깨달음의 길은 조건화된 자아의 경계를 넘어 자기의 참된 본성을 찾는 길이다. 성장의 길은 서양의 심리학과 심리치료가 탐구해온 영역이고, 깨달음의 길은 동양의 수행과 지혜 전통이 밝혀왔던 영토이다. 이제 이 두 가지 길은 함께 조망되고 융합, 통합되어야 한다.

저자인 효록 스님은 이 두 길을 걸어가는 수행자이자 상담심리전문가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이 두 길이 어떻게 융합되고 통합될 수 있는지, 자신의 체험을 통해 보여준다. 즉 승려로 출가해서 상담심리전문가가 되고, 심리상담과 명상을 통합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탐험기이다. 그리고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내담자로서 오랜 기간 상담을 받았던 경험은 상담심리전문가가 되는 데 커다란 자양분이 되어 주었다. 스님은 이 여정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바닥까지 용감하게 내보인다. 그는 스님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권위 있는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했다. 물론 자격증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는 치열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찰했으며, 끊임없이 부딪히는 자신의 내면과 주변 환경 등을 극복해냈다.

저자, 상담 심리치료 전문가 자격 취득
수행과 상담심리의 융합 체험을 소개해
직접겪고 체험한 여정 가감없이 그려내

이렇듯 이 책은 시중에 흘러넘치는, 적당히 위로하며 대충 살아가게 하는 부류의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자신의 내면으로 깊게 침잠하여 고통과 자신의 방어기제들을 더 철저히, 온전하게 직시하는 것만이 작은 에고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라는 제대로 된 가이드를 제시한다.

수행자 중에는 깨달음을 명목으로 영성과 영적 수행을 이용하여 개인적 ·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 를 회피하거나, 불안정한 자기를 지탱하려고 하고, 기본적인 욕구나 감정 그리고 발달과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 버리는 영적 우회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효록 스님은 이 책서 자신이 직접 겪고 체험한 치열했던 여정을 가감 없이 그려내고 있다. 자신 안에 있던 빛과 그림자, 상처와 영광 모두를 보여준다. 이처럼 자신 안의 천사와 악마를 모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선과 악의 이원성을 넘어서는 시각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의 실제적 경험과 체험을 바탕에 두고 동서양의 심리치료와 명상을 결합시켰다는 점이다. 여성 수행자로서 때로 감추고도 싶었을 자신의 모든 면을, 내면을 성찰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고 고백한 스님의 용기 또한 박수 받아 마땅하다. "나는 이 책에 내 수치심 죄책감 불안 공포 두려움 분노 우울 무기력 불신 등 부정적인 감정과 신념의 찌꺼기를 마주하는 흔적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담았다."는 저자의 말처럼,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힌트를 얻어가기를 기대한다. 이 책을 출간하는 지금도 스님은 여전히 공부하고 성찰하고 스스로를 실험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깨달음은 어렵지 않다…분별서 벗어나면 될 뿐"



도법 스님의
신심명 강의
도법 지음
불광 펴냄
1만 7천원

"지극한 진리(깨달음)는 어려울 것이 없네. (지도무난 至道無難)
오직 분리하여 가려냄을 꺼려 할 뿐. (유혐간택 唯嫌揀擇)"

중국 선종 3조인 승찬 대사가 대중들이 알기 쉽게 선(禪)의 요체를 풀어쓴 〈신심명〉의 첫 소절이자 가장 유명한 구절이다. 또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구절이기도 하다. 146구 584자라는 짧은 분량이지만 그 안에는 깨달음은 거창하고 신비로운 무엇이 아니라 분별과 집착을 벗어나면 가능한 것이라는 가르침이 녹아 있다. 바로 중도(中道)의 가르침이다. 이 책은 도법 스님이 〈신심명〉을 읽고, '중도연기' 의 시각으로 풀어 쓴 것이다. 글자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구절에 담긴 의미를 중심으로 〈신심명〉을 새롭게 옮기고, 그 구절에 담긴 가르침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롯이 자신의 눈으로 풀어내었다. 이를 통해 무엇이 깨달음이고, 어떻게 해야 그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는지를 살폈다.

특히 중국불교에서는 인도서 불교가 전래된 이후 저술된 것 가운데, '최고의 문자(文字)' 로 꼽히며 선문(禪門)에서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으로 여겨진다. 이 짧은 글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깨달음' 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심명〉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분별하거나 집착하여 차별하지 않는 것, 바로 중도(中道)의 자세다. 나와 남, 미움과 사랑, 있음과 없음, 옳고 그름 등의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도를 깨우치는 것이고, 말과 분별에서 벗어난 그곳에 바로 '깨달음' 이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내 삶과 세계를 살리는 진리로서의 불교를 강조한 도법 스님이 〈신심명〉을 읽고 새롭게 풀어쓴 책이다. 그동안의 강설서들이 각 구절의 문자적인 의미에서부터 〈신심명〉의 가르침을 풀어나간 것과 달리, 도법 스님은 글자나 용어의 세세한 뜻에 매이기보다는 '중도연기' 의 입장으로 〈신심명〉을 새롭게 풀었다. 한자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 우리말 번역 대신 단번에 읽고 이해와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각각의 구절을 옮기고, 쉬운 비유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설명으로 〈신심명〉의 핵심 가르침을 알려준다. 붓다의 가르침 중 핵심은 '중도연기' 라고 여기는 스님의 시선으로 읽고 풀어낸 이 책을 읽다 보면 깨달음은 도달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무엇이 아니라 누구나 언제든 실현시킬 수 있는 경지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난여름, 실상사에서는 대중 스님들이 뜻을 모아 안거 기간 동안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바로 실상산중 '승가연찬' 이다. 그리고 그 공부 모임의 첫 주제가 바로 〈신심명〉이었다. 그러나 도법 스님이 이때 〈신심명〉을 처음 접해본 것은 아니었다. 선방이나 강원에서 공부할 때면 반드시 접해 보는 책인 만큼, 도법 스님 역시 20대 때 〈신심명〉을 처음 만났다.



'중도연기' 입장으로 〈신심명〉을 새롭게 푼 도법 스님.

〈신심명〉 큰핵심은 '중도'의 가르침
저자, '중도 연기' 입장으로 재 해석

하지만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던 청년 시절의 스님에게 〈신심명〉의 가르침은 큰 감흥을 주지 못했다. 큰스님들은 물론이고 여러 경전과 선어록 등등에서 치열한 정진으로 확철대오해야 한다고 하는데, "깨달음은 어렵지 않다"라고 정반대의 말을 하는 〈신심명〉의 내용은 납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50년 만에 다시 읽은 〈신심명〉은 달랐다. 이미 '확철대오' 라는 허수아비를 찾기 위해 노력하다가 좌절을 겪었고, 이후 전통이나 권위 등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새롭게 다가왔다. 그 속에는 치열하게 수행한 소수의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신비로운 경지로서의 깨달음이 아닌, 누구나 바로 이해하고 현재의 삶에서 실현할 수 있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이 책에는 도법 스님이 공부하면서 이해하고 느낀 〈신심명〉 이야기를 담았다. 스님 스스로 공부한 기록이기에 경전, 어록 등 다른 참고자료 대신, 오직 '상식의 눈' 으로 읽으면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주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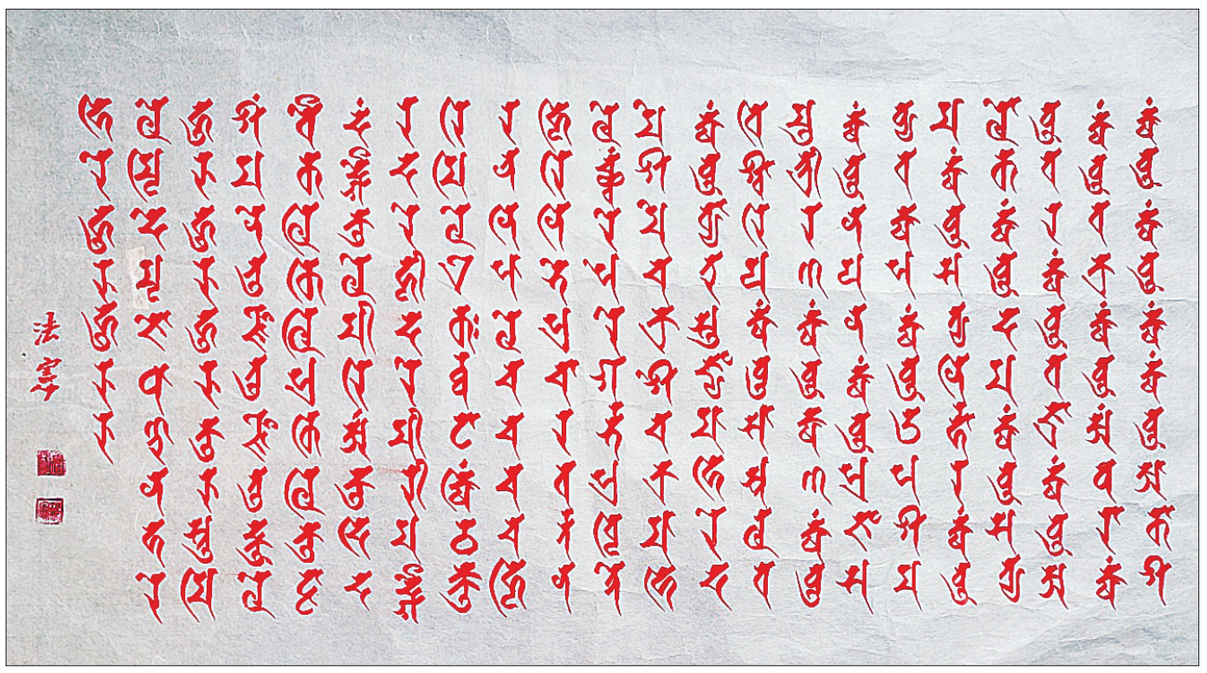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처님 말씀 원음에 다가가는 '실담범자' 사경

'실담범자 진언 · 다라니 · 만다라' 展
7월 13~19일 서울 한국미술관 3층

법헌 스님과 제자 10여 명 참여해
실담자 진언 등 작품 50여 점 전시
수익금 우크라이나 희생자돕기 성금
"실담범자 가치 의미 알리는 기회로"


법헌 스님 作, 츰부다라니


법헌 스님 作, 성여의륜근본다라니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부처님 말씀을 실담범자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한국실담범자협회(회장 법헌)는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 3층에서 '실담범자 진언 · 다라니 · 만다라' 전을 개최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언, 다라니, 주(呪)의 음가와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이번 전시는 20여 년 동안 실담범자를 연구해온 법헌 스님과 그의 제자 10여 명이 참여해 실담범자 진언, 다라니, 만다라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수익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 돕기 성금으로 회향할 예정이다.

7월 13일 개막식(오전 10시)에서는 실담범자 삼밀수행의 하나인 '무드라 명상' 시연과 '실담범자'의 음가를 그대로 재현한 '실담범자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또한 오후 12시에는 보신각으로 이동해 '범종타종식'을 통해 경전에 기록상으로만 그 의미를 갖고 있던 진언과 수인의 삼밀가지 불은을 온 세상에 회향하는 시간을 갖는다.

실담범자는 범어를 표기하는 인도 고전 문자 중 하나로, 불교 경전과 함께 중국에 전해지면서 실담범자라 불리게 됐다. 한국 · 중국 · 일본 등의 동아시아에서 주로 의식, 진언 등에 쓰이고 있으며, 당시의 원형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이렇게 실담범자로 전해지는 진언 · 다라니는 예로부터 오종불번(五種不翻), 즉 그 의미를 번역하지 않는 다섯 가지 중의 하나로 여겨 번역하지 않았다. 범어는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를 지칭하는 한자어로, 범천이 만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0여 년 전부터 실담범자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게 된 법헌 스님은 불자들에게 좀 더 정확한 부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원력으로 실담범자 연구를 시작했다. 스님은 많은 대중에게 실담범자를 전하고자 이번 전시에 맞춰 한국실담자협회를 창단한다. 이번 전시는 협회 창단 준비 작업의 일환이다.

진언은 '거룩하고 참된 말'이라는 뜻으로 산스크리트어 만트라를 번역한 것이다. 주(呪), 신주(神呪)라고도 번역한다. 진언을 다라니라고도 하는데, 다라니는 '모든 선함을 기억하여 지니고, 모든 악함을 일어나지 않게 막는다'는 의미로 총지, 능지, 능차로 번역하기도 한다.

불교에서 진언은 수행의 한 방편으로 매우 중요시했는데, 진언을 반복해서 외우거나, 진언 자체를 관하는 명상을 하거나, 정성껏 받아쓰는 등의 수행을 통해 물질적 · 정신적 장애들을 극복하며,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얻어 궁극에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았다. 진언수행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다. 외우는 방법에는 입으로 외우는 방법과 이를 정성껏 받아쓰며 외우는 방법이 있다. 다만 진언 사경은 입으로 외우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이 다르다. 그만큼 사경은 입으로 외우는 것보다 정성과 노력을 더 필요로 하는 수행인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경전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경전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상징하고 있다. 진리 자체는 문자로 나타낼 수 없지만 문자를 떠나서도 진리를 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경전에 쓰인 문자는 부처님이 중생들을 진리로 인도하려는 자비심의 상징이기도 하다. 사경을 통해 대중은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차분하게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사경하는 행위 그 자체가 훌륭한 수행인 것이다. 그래서 옛 수행자들은 자신의 피로 사경을 하기도 하고, 한 글자를 쓸 때마다 삼배의 예를 올리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훌륭한 수행이자, 스스로의 정성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룩한 불사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좀 더 정확히 해석하고 알아가는 일은 부처님 말씀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으로, 부처님 말씀의 원음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실담범자의 연구는 더불어 중요한 불사라고 할 수 있다.

법헌 스님은 "〈반야심경〉 등 실담범자 범어본이 남아있는 경전들은 한역이 아닌 범어본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전시가 좀 더 많은 대중에게 실담범자의 존재와 그 가치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실담범자를 통한 새로운 포교로 많은 대중이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법헌 스님은 1944년에 태어났고, 순천 선암사에서 득도했다. 연세대 산업대학원, 동국대 박물관대학원, 한국불교태고종 중앙강원을 수료했다. 실담범자 진언 · 다라니 연구회를 설립(2010년)했으며, 8차례에 걸쳐 실담범자 서화 전시회(2012~19년) 및 국회초청 의원회관 개인전(2014년)을 열었다. 현재 안산 법륜사에 주석하면서 집필 및 실담범자 사경 지도를 하고 있으며, 2020년에 한국 최초로 〈실담범자 반야심경〉을 펴냈다. 문의 (02)720-1161.

2022 이철진의 '월요 승무 이야기'



7월 4일~8월 29일 성균소극장
중요무형문화재 한영숙류 승무
러닝타임 40분 전판 솔로 공연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한영숙류 승무 전판(40분)이 무대에 오른다. 한영숙류 승무를 전승한 춤꾼 이철진이 7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서울 성균소극장에서 '2022 이철진의 월요 승무이야기'를 통해 한영숙류 승무 전판을 선보인다. 〈사진〉

2007년 '보름간의 승무여행'으로 시작한 이철진의 승무 공연은 '30일간의 승무이야기(2009)', '100일 승무이야기(2010, 2016)' 등 장기공연을 이어왔다. 2022년 이철진의 승무이야기는 새롭게 단장해 관객을 맞는다.

이철진은 러닝타임이 40분인 이번 공연을 솔로로 진행한다. 이철진에게도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이번 공연은 이철진이 자신의 무용인생 전부를 건 공연으로, 한국 남성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시작 전에 공연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이 진행될 예정이며, 공연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된다.

이철진은 한국 근대 춤계의 거목인 한성준과 그의 손녀 한영숙의 춤과 예술적 정신을 전수받은 이애주로부터 한영숙류 전통춤 전판을 사사했다. 특히 근래에는 보기 드문 한영숙류만의 전통춤에 매진함으로써 이철진만의 개성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영숙류 춤을 선보이고 있다.

이철진은 서울예술대를 졸업했고 명지대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런던대학교(2008년) 및 시드니대학교(2010년) 방문 교수, 코스타리카국립대학(2015년) 초빙교수 등 역임한 바 있다. 문의 (02)3675-3336.

박재완 기자

제7회 2022 찬불가 열창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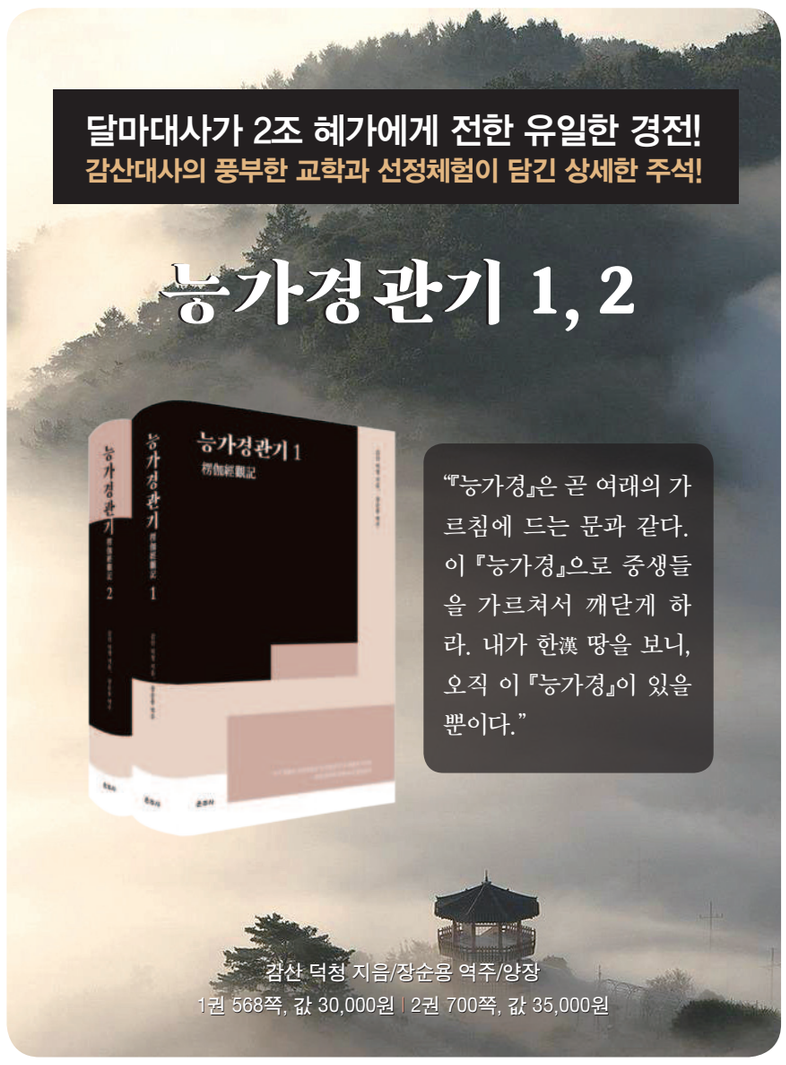
접수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좋은 벗 풍경소리 · 붓다콘서트가 '2022 제7회 찬불가 열창대회'를 개최한다.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동영상을 통한 예선을 치르고 본선은 9월 2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예선 결과 발표는 8월 8일 오후 1시 이후 네이버카페 '붓다콘서트'와 카카오채널 '좋은 벗 풍경소리'를 통해 공지하고, 본선은 현장에서 경연하고 당일 시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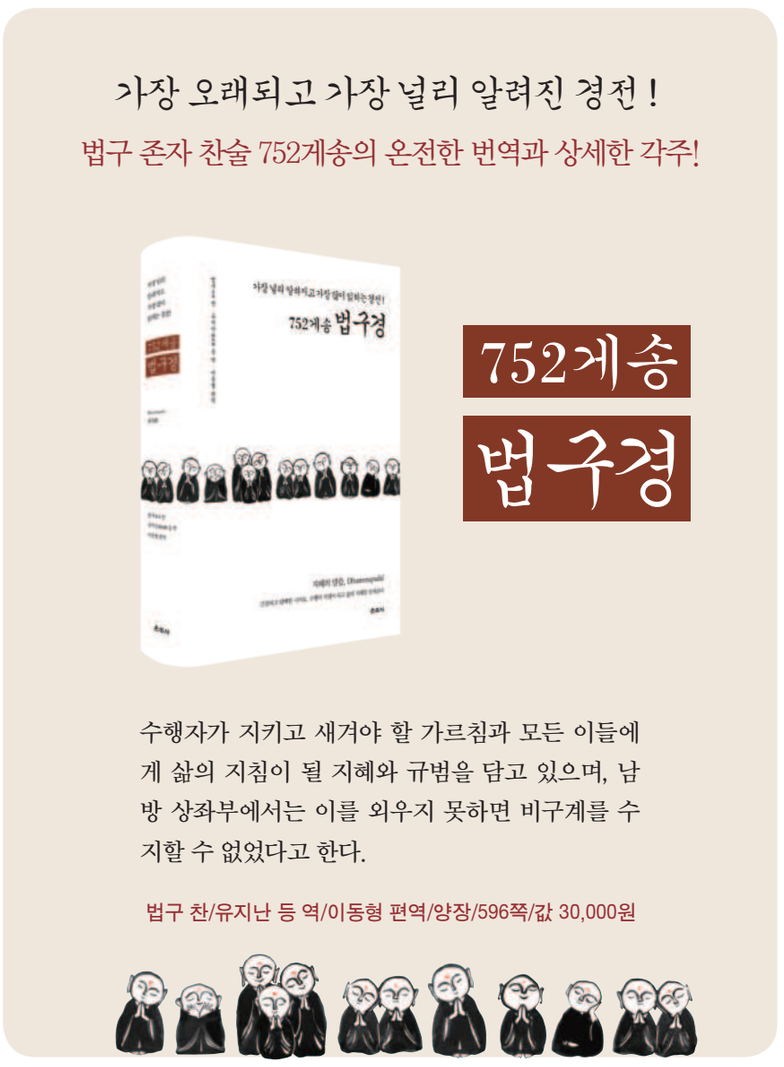
이번 대회에서는 예년보다 대상 수상자(팀)의 상금을 300만 원으로 높였다. 최우수상 1팀에게는 100만 원, 우수상 2팀에게는 각 50만 원, 인기상 2팀에게는 각 20만 원, 응원상 1팀에게는 50만 원, 장려상 3팀에게는 각 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붓다콘서트 카페(http://cafe.naver.com/buddhaconcert/)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한다. 접수방법은 전화(02-723-9836), 우편(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407호 좋은 벗 풍경소리), 이메일(budsori@naver.com)로 하면 된다. 단 예선 동영상은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일(오후 6시)까지다. 문의(02)723-9836.

박재완 기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불교학 · 역사 연구 깊이 더할 총서 나왔다

대한불교진흥원, 대원불교학술총서 '첫 선'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학과 불교사 연구에 깊이를 더할 불교학술총서가 새롭게 발간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은 최근 '대원불교학술총서' 1 · 2 · 3권을 잇달아 발간하며 첫 선을 보였다.

'대원불교학술총서'는 진흥원이 2020년부터 시작한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 사업의 결과물들이다. '대원불교학술 · 콘텐츠 공모'는 불교를 오늘에 맞게 연구하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간된 대원불교학술총서 1권 〈한국불교통사〉 2권 〈불교의 무의식〉 3권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는 1, 2기 선정작들이다.

김경집 한국전통문화대 외래교수가 저술한 1권 〈한국불교통사〉는 1700년 한국불교사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왕조 구분을 통해 기술된 통상적인 불교사와 달리 △불교 전래와 발전 시대(삼국시대) △민족불교의 정립 시대(통일신라시대) △불교의 사회지평 확대 시대(고려시대) △민중신앙으로의 전환시대(조선시대) △개화 · 개혁의 불교 시대(근대불교) △현대화 · 대중화의 지향 시대(현대불교)로 구분해 불교사 전반을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각각 시기에 불교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불교계가 당시 사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조망할 수 있다. 현재진행형이어서 평가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현대불교시기도 동일한 비중으로 서술하고 있어, 현재 한국불교의 모습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데 유용하다.

서술에 있어서도 정사 기록에 중점을 둬 객관성을 확보하고 각주에 근거를 꼼꼼히 남겨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 했다. 한글 서술을 원칙으로 해 가독성을 높인 점도 눈길을 끈다. 다만 인명과 고유명사, 독특한 불교 용어나 개념 등은 한문을 병기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첫 선을 보인 대원불교학술총서 1 · 2 · 3권 〈한국불교통사〉, 〈불교의 무의식〉,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

2020년 학술 · 콘텐츠 공모사업
1 · 2기 공모 당선작 첫 결과물
왕조사 틀서 벗어난 韓불교통사
경 · 율 속 찾은 비구니사 '눈길'
동화 · 만화 문화총서 발간 계획

티베트불교 연구자인 윌리엄 왈드론의 저서를 안성두 서울대 교수가 번역한 2권 〈불교의 무의식〉은 불교에서 중요한 주제인 마음(心)과 의식(識)에 대한 통찰을 담았다. 이 책은 유식학파에 의해 도입된 알라야식 개념이 어떤 인도불교 사상의 맥락에서 출현했는지 그 배경과 성립 과정을 살피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알라야식이 유식학파의 창의적 개념만은 아니며, 이 개념이 초기불교 아래 문제됐던 식이 가진 대립되는 인지적 앎과 윤회적 식이라는 맥락을 통합하려는 시도 중 가장 성공적 이론으로 평가한다.

3권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는 메사추세츠 바레 불교연구센터 위원인 아날라요 스님의 저서로 김철 연세대 명예교수가 번역했다. 이 책은 7종의 초기불교 경전과 율장의 기록을 비교 분석해 비구니 승가가 성립되는 역사를 살펴보고, 비구니 승가의 설립을 둘러싼 여러 기록들의 진의를 추적한다.

이를 통해 아날라요 스님은 상좌부불교, 대승불교 등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제도 · 관습적 차별을 반박한다. 저자는 제도 · 관습적 차별에 대해 쓰여 있는 경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쓰였는지'를 규명하고 '경전 다시 읽기'를 통해 비구니에 대한 차별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며 중생 제도와도 거리가 먼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진흥원은 대원불교학술총서 4권 〈에리히 프롬과 불교〉(박찬국 著), 5권 〈한국 선어록의 문예미학〉(전제강 著)을 근간할 예정이다. 또한, 콘텐츠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동화와 만화를 선별해 '대원불교문화총서' 발간도 추진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학술총서를 통해 불교를 시대 언어로 연구한 저서와 번역서를 출간하는 것이 공모사업의 목적"이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문화총서를 근간해 불교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려 한다"고 밝혔다.

'백지은니수능엄경' 닥나무 한지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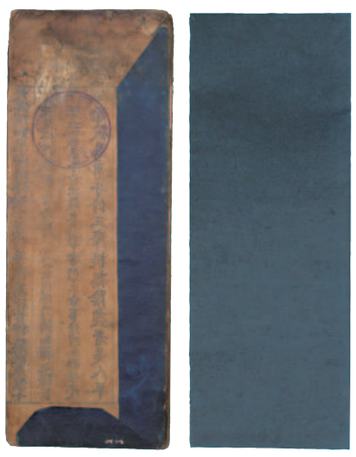
보존과학센터 보존처리 완료
은니로 경전 필사한 6m 대작
결실된 앞표지 등 전부 복원

손상과 결실이 심했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백지은니수능엄경'이 보존처리를 통해 제모습을 찾았다. 보존처리과정에서 닥나무로 만든 한지로 조성된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정영훈)는 "보물 '백지은니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0'(이하 백지은니수능엄경)의 보존처리를 완료했다"고 7월 7일 밝혔다.

보물 '백지은니수능엄경'은 〈능엄경(楞嚴經)〉 10권 중 마지막 권을 은니로 필사한 것이며, 현재 권 1~9는 전해지지 않는다. 경전의 뒷부분에 1356년(고려 공민왕 5) 이방한(李邦翰)이 죽은 어머니를 위하여 썼다는 간행 경위가 적혀 있어 필자와 연대가 명확하다. 가로 11.2㎝, 세로 30.5㎝의 크기이며, 57번 접은 첩의 형태로서 모두 펼쳤을 때 가로 길이가 6.3m에 달한다.

'백지은니수능엄경'은 1943년 보물 지정 당시에는 삼베로 만든 한지를 의미하는 '마지'가 포함된 '마지은니수능엄경'이었지만, 2010년 '하얀 종이'를 의미하는 '백지'가 포함된 지금의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보존처리 과정에서 종이 섬유 분석을 통해 '백지' 중에서도 특히 닥나무로 제작한 한지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보물 '백지은니수능엄경'의 앞표지. 사진 왼쪽이 보존처리 전, 사진 오른쪽이 보존처리 후의 모습.

이 외에도 글자를 쓸 때 사용한 안료, 표지의 염색 재료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글자는 알려진 바와 같이 은(Ag)을 사용했으며, 글자의 검게 변색된 부분은 은과 황(S)이 결합하면서 변색되었다는 사실과 표지의 감색 염색재료로 쪽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백지은니수능엄경'의 손상부분을 최대한 원형을 살려 복원처리했다. 갈변과 찢김, 결실 등의 손상을 입은 본문 종이는 건 · 습식 세척 후 찢기고 결실된 부분을 보강했고, 대부분 결실된 상태인 앞표지는 쪽염색지로 복원했다. 은니 보상화문(寶相華文)이 있는 뒤표지는 마모되어 은색 선이 탈락하고, 이물질이 묻거나 부분적으로 결실되어 쪽 염색지로 결실된 부분을 보강하고 이물질을 제거했다.

본문과 표지에 사용된 은니는 종이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저농도의 아교를 발랐으며, 종이 표면의 오염물은 탈이온수를 사용하여 제거했다.

0.1㎜부터 0.15㎜까지의 다양한 두께의 본문 종이는 찢어지거나 결실된 부분이 있어 보존처리하기 까다로웠으나 전통 한지를 두드려 두께를 맞추고 색 맞춤한 후 손상부위에 덧대는 방식으로 복원했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내년에 보존처리 내용과 연구 내용을 상세히 담은 보존처리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며 "보존처리가 완료된 '백지은니수능엄경'은 소장처인 경북대 박물관에서 내년 중 전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경주 월지 · 동궁서 찾은 고대 목조 결구법

국립문화재硏 보고서 발간
황룡사 복원에 학술적 도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동궁과 월지 출토 건축부재를 조사하고 그 특징을 정리해 〈고대 목조건축 결구법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월 4일 밝혔다.

고대 건축유적에서 목부재는 꾸준히 출토되고 있지만 목부재에 담긴 고대인의 건설기술을 밝히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문화재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 · 정비추진단의 주요 사업 일환으로 경주시와 함께 황룡사지 복원정비연구를 하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원은 국립경주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284건의 건축 목부재 중 대표성을 갖는 38건의 부재에 대해 실측조사를 했다. 이어서 이를 도면으로 작성하고, 부재별 재원과 특징을 정리하여 논고와 함께 보고서에 수록했다. 또한 각 부재의 추정복원도를 작성해 부재의 원래 모습과 쓰임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이번에 발간한 〈고대 목조건축 결구법 연구〉는 지금은 사라진 신라 최대 사찰인 황룡사의 건축물을 복원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 황룡사 건설 당시 치목기술과 결구기술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학술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정경포럼, 박문호 박사 초청 창립포럼

7월 16일 세계물포럼기념관
'과학과 불교의 만남' 주제로

불교의 눈으로 과학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포럼이 열린다.

정경포럼은 7월 16일 오후 1시30분 세계 물포럼기념관에서 '과학과 불교의 만남-과학적 주장은 사실일까'를 주제로 창립기념 포럼을 주최한다.

강연자로는 뇌과학자인 박문호 박사가 참석한다. 포럼 패널로는 이영우 충남대 명예교수, 박승환 세종석림과학기술협동조합이사장, 황성흠 국민대 교수, 김용수 변호사, 임노직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최성달 작가가 참석한다.

박문호 박사는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91~97년 미국 텍사스 A&M대에 유학하면서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오히려 천문학과 물리학, 뇌 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통한다. '연구공간 수유+너머', 삼성경제연구원, 서울대, KAIST, BBS불교방송 등에서 우주와 자연, 뇌를 주제로 강연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뇌, 생각의 출현〉은 그해 베스트 10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에 창립하는 정경포럼은 안동 보경사와 관음사에서 각각 10여 년 동안 꾸준히 불교를 공부해 온 정해학당과 원경학당의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비영리단체이다. (054)842-4080

신성민 기자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73

▶ **74회 예고**
마힌다와 상가밋따는 대비별궁에서만 산다. 왕궁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목갈리뿟다띳사가 아쇼까왕에게 승가 보호자에서 믿음의 상속자가 되려면 아들과 딸을 출가시키라고 조언한다. 두 남매는 아쇼까왕의 권유로 출가를 결심한다.



마힌다, 아버지 아쇼까왕을 만나다

밤새 빠딸리뿌뜨라성으로 올라왔던 안개가 성 밖 들판과 구릉으로 물러났다. 아침 해가 동그란 은화처럼 허공에 떠 있었다. 햇살이 안개를 투과하면서 대지의 기온은 조금씩 올라갔다. 남문 밖에는 군데군데 화톳불을 피운 흔적이 거무튀튀했다. 새벽녘에 외성 밖에서 사람들이 불을 쬐느라고 피웠던 흔적이었다. 외성 성문을 경계하는 군사들이 남문 밖에 모였다. 사람들을 검문하기 위해서였다. 어제 늦은 밤에 남문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밤을 새운 사람들이었다. 남문을 지키는 군사 한 명이 두 남녀를 검문했다.

"어디서 왔소?"

"베디샤나가르에서 왔습니다."

"그곳이라면 망해버린 아반띠국 땅이 아니오?"

"그렇습니다."

"더 조사할 것이 있으니 잠시 저쪽에 가 있으시오."

두 남녀는 변방에서 왔다고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었다. 잠시 후 늙은 수문장이 두 남녀를 부르더니 물었다.

"두 사람은 어떤 사이인가?"

"남매입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저는 마힌다라고 합니다."

여자도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저는 상가밋따입니다."

"성 안에 무슨 일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대왕님을 뵈러 왔습니다."

수문장이 어이가 없다는 듯 마힌다를 쳐다보며 말했다.

"뭐라고? 대왕님은 아무나 알현할 수 없는 분이라네, 그러니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거네."

"대왕님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수문장이 혀를 차면서 말했다.

"쯧쯧, 그 말을 누가 믿겠나!"

수문장이 두 남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자 경비대장이 다가왔다. 경비대장은 아침 순찰을 돌다가 남문에 와 있는 중이었다.

"수문장, 무슨 일이오?"

"이 젊은 사람들이 대왕님을 뵙겠다고 하는데 황당합니다."

"알겠소. 내가 검문해 보겠소."

경비대장이 마힌다와 상가밋따를 데리고 남문 안쪽 경계병 숙직실로 데리고 갔다. 경비대장은 마힌다의 얼굴이 아쇼까왕을 어딘지 닮은 것 같아 신중하게 대했다. 두 남매는 경계병 숙직실에서 검문을 받았다. 경비대장이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웃자인 부근 베디샤나가르에서 왔습니다."

"웃자인이라면 대왕님께서 젊은 시절에 계셨던 곳이지."

"몇 살인가?"

"저는 열여섯 살입니다."

"열여섯 살이라고?"

경비대장이 손가락을 굽어보면서 나름대로 계산을 했다. 현재 아쇼까왕이 35세이고, 웃자인 부왕일 때가 18세였으니 나이로 치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맞을 것도 같았다. 그러나 경비대장은 두 남매가 아쇼까왕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도 나는 그대를 믿을 수 없다네. 함부로 알현시켰다가 사고가 난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하지. 그대가 아들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는가?"

"대장님, 대왕님은 저희들을 바로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이니까요."

"나는 실수를 하고 싶지 않다네. 대왕님께 가서 보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니까."

마힌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낙심했다. 그러자 그때 상가밋따가 경비대장에게 말했다.

"대장님, 제가 딸이라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상가밋따가 자신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뺐다.

"이 반지는 대왕님께서 웃자인을 떠나실 때 제 어머니께 증표로 주었던 것입니다. 이 반지를 보시면 대왕님께서 바로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 그 반지라면 지금 바로 대왕님께 가서 보고하고 오겠네."

코끼리 상아로 만든 하얀 반지였다. 공작새가 음각된 상아반지는 아무라도 낄 수 없는 보물이었다.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라에서 상아반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금반지나 은반지보다 구하기 어려운 것이 코끼리 상아반지였다. 코끼리 상아반지를 끼고 있다면 왕실 귀족이나 부호들이 틀림없었다. 그래도 마힌다와 상가밋따는 초조해 했다. 상가밋따가 말했다.

"오빠, 아버지가 반지를 기억하실까?"

"나도 그 점이 불안해. 기억을 못하시면 우리는 경비대장님을 속인 죄로 감옥에 갈지도 몰라."

경계군사들이 숙직실을 들락거렸다. 불안해하는 마힌다와 상가밋따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피식 웃기도 했다. 두 남매의 옷은 먼 길을 상인들 무리와 함께 오는 동안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런데 그때, 경계병 숙직실 바깥에서 북소리가 둥둥둥 들려왔다. 숙직실 안의 분위기가 돌변했다. 북은 왕이 순행을 떠날 때나 치는 악기였기 때문이었다. 경계병들이 일제히 밖으로 나가 도열했다. 말을 탄 경비대장이 선두에서 달려오고 뒤에는 친위대 군사 서너 명이 북을 두드리면서 오고 있었다. 잠시 후에는 일산이 달린 아쇼까왕 전용마차와 또 한 대의 빈 마차가 보였다. 경비대장이 소리쳤다.

"대왕님이시다! 군사들은 제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경계를 서라!"

이윽고 아쇼까왕이 마차에서 내려 마힌다와 상가밋따에게 손짓을 했다. 두 남매는 아쇼까왕에게 달려가서 땅바닥에 엎드렸다. 상가밋따는 아쇼까왕을 보자마자 흐느꼈다. 아쇼까왕이 말했다.

"고개를 들라. 너희 얼굴을 보고 싶구나."

"저희도 대왕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오, 마힌다는 청년이 됐구나. 상가밋따는 처녀가 됐고."

"네 어머니는 왜 오지 않았느냐? 이 상아반지는 내가 네 어머니한테 준 것이 맞다. 웃자인을 떠날 때 주었지."

"빠딸리뿌뜨라로 일찍 오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간병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베디샤나가르를 떠나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눈을 감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쇼까왕은 짧게 비명을 지르며 이마를 짚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인이 숨을 거두었다는 말에 아쇼까왕은 잠시 비틀거렸다. 경비대장이 달려와 아쇼까왕을 부축했다.

"대왕님!"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웃자인에 가족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구나."

아쇼까왕이 탄식을 하자 경비대장이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왕궁으로 돌아가시어 정담을 나누소서. 여기는 성문 안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입니다."

아쇼까왕은 경비대장의 말을 받아들였다. 전용마차에 올라 눈을 감았다. 마힌다와 상가밋따는 뒤따르는 마차에 탔다. 어느새 안개가 말끔하게 걷히어 강가강처럼 푸른 하늘이 드러났고, 아침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외성 안은 성민들이 북적거렸다. 저잣거리의 가게들은 온갖 물품들로 넘쳐났다. 염소와 개, 소들도 늦잠에서 깨어나 저잣거리를 어슬렁거렸다. 외성을 지나 내성 성문을 지났을 때야 거리는 깨끗하고 조용해졌다. 강가강 쪽의 언덕에 왕궁 건물들이 보였다. 마힌다와 상가밋따는 꿈을 꾸는 것처럼 황홀해했다.

두 남매는 아쇼까왕의 접견실로 경비대장의 안내를 받았다. 아쇼까왕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접견실로 들어왔다.

"너희들은 대비님도 뵙고 조카들도 곧 만나게 될 것이니라."

아쇼까왕이 말한 조카들이란 꾸날라 부왕비가 낳은 아들 삼빠딘과 다샤라타였다.

"대왕님, 아직은 어리둥절합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보거라. 내가 네 아버지가 틀림없느니라."

"저도 대왕님을 뵙는 순간 누가 뭐래도 '이분이 아버지이시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마힌다는 나를 닮았고 상가밋따는 네 엄마를 닮았으니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어머니께서는 반지를 애지중지 아끼셨습니다."

"이 반지가 없었더라면 너희들을 만나지 못할 뻔했구나."

"어머니께서 반지가 있어야 대왕님을 뵐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잘 간수하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데비였지.'

아쇼까왕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허전한 표정을 지었다. 첫사랑의 데비가 그리워지는 것을 숨기지 못했다.

"네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허전하기 그지없구나."

아쇼까왕은 웃자인을 떠날 때 데비를 설득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그때 데비는 자신은 바이샤 출신이므로 빠딸리뿌뜨라 왕실의 왕비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동행을 거부했던 것이다. 데비의 아버지 베디샤데바 선조는 까뻴라국이 망할 때 머나 먼 남쪽인 베디샤까지 내려와 바이샤로서 상업으로 생계를 해결했던 샤까족이었던 것이다. 샤까족 후예인 베디샤데바 역시 상인으로서 무역으로 부를 쌓았고 마침내 베디샤 상인수장이 되었는데, 아쇼까가 부왕으로 내려왔을 때 그를 도왔던바, 그 인연으로 아쇼까와 데비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다. 베디샤데바는 샤까족이었으므로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을 신봉했고, 산치에 개인 절을 지었을 정도였다. 마힌다가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산치동산에서 대왕님을 기다리셨습니다. 대왕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 네 어머니의 성품으로 보아 내 말을 철석같이 믿었을 게야."

실제로 데비는 왕비가 아닌 '부인'의 신분으로 만족하며 산치 절에서 아쇼까가 잘 되기를 기도하며 살았는데, 숨을 거둘 때까지 아쇼까를 잊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아쇼까가 주고 간 상아반지를 보면서 어떤 날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산치동산에 쓰러져 산치 절의 스님들을 놀라게 한 적도 있었던 것이다. 아쇼까왕은 짐짓 분위기를 바꾸어 물었다.

"베디샤데바께서는 잘 계시느냐? 내가 웃자인 부왕으로 갔을 때 나를 가장 많이 도와준 분이었지. 내가 옛 수나빠란따국으로 순행할 때 함께 가기도 했고. 그곳 숫빠라까 도시는 여기 빠딸리뿌뜨라 못지않게 무역이 활발한 곳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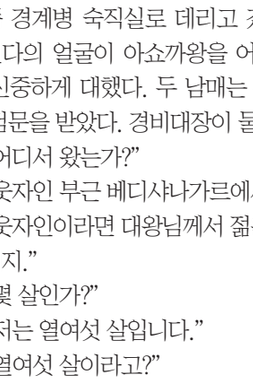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오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셨군. 내가 지은 사원 아쇼까라마가 성 안에 있지. 사원의 목갈리뿟다띳사 주지가 내게 '화려한 왕의 수레도 낡아가듯 몸도 또한 늙어간다'는 고타마 붓다의 말씀을 들려주었어. 그러니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나도 죽고 언젠가는 너희들도 죽겠지."

그날 밤, 두 남매는 아쇼까왕의 지시에 따라 대비별궁으로 갔다.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다르마 대비에게 인사도 드리고, 당분간 그곳에서 생활하기 위해서였다. 다르마 대비 역시 마힌다와 상가밋따가 왕궁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몹시 보고 싶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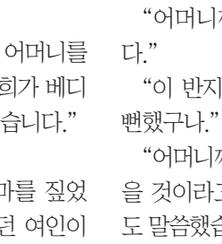
아쇼까왕이 두 남매를 왕자별궁으로 보내지 않고 대비별궁으로 가라고 지시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였다. 하나는 왕실의 법도를 대비 밑에서 익히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바로 왕자별궁으로 갔을 때 다른 왕자들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왕자들 사이에도 적자와 서자, 신분의 차이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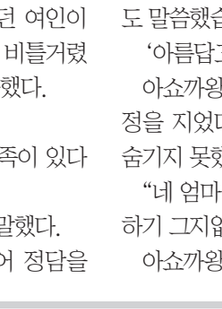
다산민속사주
나는 역학이다
불교계의 역/학/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는 중국에서 기원하여
우리나라 불교계의 고승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역학비법입니다.
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숫자 운명을 품다)
사주공부 어렵게 하지마라, 이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다!!!
10만 명 실관, 17년 역학 강의, 〈나는역학이다〉 대표원장 이동현의 역학통변강의



1부터 9까지 아홉 가지 숫자를 사용하여 일진, 월운, 세운, 대운을 봅니다. 대단히 쉽고 간단하면서도 족집게처럼 명확하게 사주운세를 감명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 지음 | 550p | 180×253×41㎜
정가 ~~60,000원~~
판매가 54,000원(10% 할인)
◈ 책구입 & 동영상강의 신청 ◈
02)877-8771, 010-9687-0080
NAVER 나는 역학이다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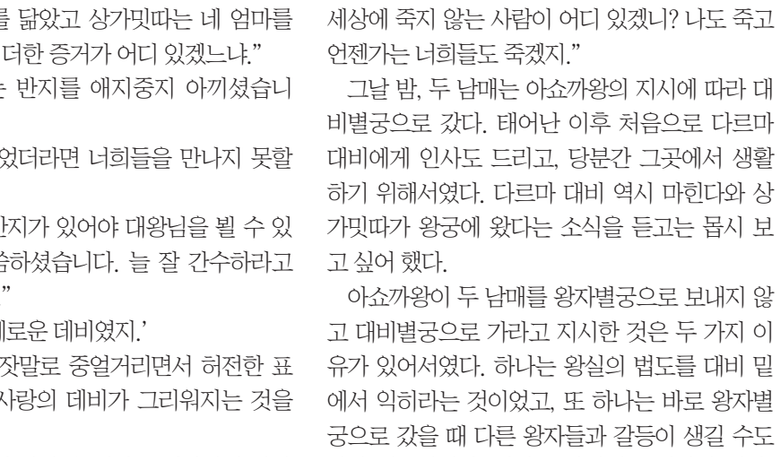
만복승복(가사)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 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⑬ 보문(普門)의 구도 수행 1



▶한줄요약
보문의 구도 수행 과정은 삼국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선승의 구도 수행을 살피는 모범과 범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국 선승의 모범과 범례, 보문 선사

이제부터 한민족 선의 터전을 마련하고 깨달음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선승들의 구도 수행 자취를 따라가기로 한다. 그간 쌓인 그들에 대한 담론은 적실하여 감동을 주지만 미화되거나 과장된 면도 있다. 선승의 행적이 신비화된 경우도 있다. 앞으로 그 허구의 포장이 조금씩 걷히기를 소망하지만, 필자의 무명업식과 망념에 의해 또 다른 사단이 생겨날까 두렵다. 있었던 그대로에 다가가도록 정성과 노력을 다할 뿐이다. 선승의 행적을 거두절미 내세우기보다 맥락과 관계를 통하여 조명해보고자 한다. 특히 선승과 제자, 선승과 선승, 선승과 속인 사이의 관계를 유념할 것이다.

삼국시대 선승을 내세워야 할 이 앞자리에 보문(普門, 1906~1956)을 우선 모신다. "보문 스님이 10년만 더 사셨어도 한국불교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하는 스님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언행일치'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은사 고우(古愚, 1937~2021)의 가르침을 명심했기 때문이다. 보문의 구도 수행 과정은 삼국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선승의 구도 수행을 살피는 모범과 범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보문은 유일한 상좌 희섭에게 자신과 관련된 어떤 기록도 남기지 말라고 했다. 입으로만 전해지던 보문 담론은 그가 입적한 지 56년 뒤인 2012년 〈보문선사〉(보문문도회 김광식 엮음, 민족사)라는 책으로 간행됐다. 보문과 함께 살거나 보문을 만난 적이 있는 스님, 은사를 통해서나 선방 수좌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스님, 재가 제자 등 22명의 인터뷰가 이 책에 담겼다. 소중한 증언들이 가득하지만 부정확한 기억, 부연과 첨가, 비의도적 탈락 등으로 인해 모순되고 상충되는 내용도 적지 않다. 필자는 그런 부분을 꿰뚫어 보아 조정하고 정돈하려는 소망을 갖고 있다.

보리밭에 버려진 아이

보문은 1906년 7월 3일 문경에서 태어났다. 속가 이름은 신현묵(申鉉默)이고 호적상 이름은 신기옥(申奇玉)이다. 그의 출생 및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전혀 다른 두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하나는 성수(性守, 1923~2012)가 전하는 것이다. 성수는 봉암사 결사 중 봉암사를 떠나간 보문이 복천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다. 보문을 존경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보문이 자기 출생과 유년의 비화를 말해줬다고 한다.

보문의 어머니는 7남매를 낳았는데 또 아기를 가지게 됐다. 비슷한 시기에 그의 큰며느리도 임신을 했다. 시어미는 며느리와 똑같이 부른 배를 남에게 보이는 것이 너무나 창피해서 보리밭에서 아기를 낳고 버렸다. 시어머니의 몸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린 큰며느리는 주위 곳곳을 살펴봤다. 보리밭을 뒤진 지 3일째 되는 날 어디선가 아기의 여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밭이랑 한 곳에 아기가 있었다. 보리가 익을 때라 밤에도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아기가 살아 있었던 것이다. 그 아기가 보문이었다. 큰며느리는 아기 보문을 친정집으로 데리고 가서 유모로 하여금 키우게 했다. 보문이 11살이 된 어느 날 동네사람이 보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네 집에 가서 살지 않느냐?" 충격을 받은 보문이 물어물어 자기 집을 찾아갔다. 어머니는 이미 죽었고 형수만 살아 있었다. 그로부터 보문에게는 '내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형수의 은혜는 어떻게 갚을 것인가?' '죽고 사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도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다시 집을 떠났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보문은 밑바닥 삶을 처절하게 살아가게 되고 결국 출가하게 되었다. 성수는 "보문 스님에게 어떻게 중이 됐냐고 물었더니 사연을 다 말하더군"이라며 보리밭 아기 이야기를 보문으로부터 직접 들었음을 분명히 했다. 보문의 상좌인 희섭(喜燮)의 상좌, 즉 보문의 손상좌가 되는 무관(無觀, 1946~)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무관도

형수 도움으로 목숨 건져
어릴때부터 '생 · 사' 사유
독립운동 하기 위해 잠적

은사 희섭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직접 들은 기억이 분명하다고 했다. 희섭이 대구 보현사에서 말년의 보문을 시봉했으니 희섭도 보문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보문이 막내로 태어난 것을 중요한 전제로 삼는데 그 점은 보문이 장남임을 알려주는 호적 상 가족관계와는 너무나 다르다. 이 이야기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기적적으로 구원되는 영웅의 기아(棄兒) 모티프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근대 이전 선승들의 탄생담을 떠올리게 한다. 자기의 기구한 탄생과 구원에 대한 되새김은 보문으로 하여금 이른 시기부터 생사의 문제를 절실하게 떠올리고 사유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인생의 전환점 대구사범학교

보문의 대부분 유년 서사는 보문이 3형제 중 첫째로 태어났다고 소개한다. 보문은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하고 상주의 백부 신익균의 양자가 됐다. 문경 마성보통학교(월정사 승적부에는 상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밀양 박씨 박갑선과 혼인도 했다. 보문은 이 무렵 일본인처럼 일본말을 잘 했고 한문에도 능통하여 〈법화경〉을 한문과 일본어로 거듭 베껴 썼다. 그것을 아들에게 유일한 유물로 남겼다.



기막힌 출생의 사연으로 인해 일찍부터 많은 고민과 사유를 해야했던 보문 선사.

외동아들 신상철은 보문이 대구사범학교에 편입했다는 말을 어머니와 외할아버지로부터 거듭 들었다고 했다. 신식교육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문과 양아버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전언도 있다. 보문은 1932년경 대구사범학교에 편입하여 2년 정도 다닌 뒤 중퇴(심상과는 5년제)했다고 한다. 그때 더욱더 불교에 심취했고 민족해방을 위해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항일학생운동에 어떤 식으로든 동참했으며 사회주의 활동도 했다는 전언도 있다.

보문이 대구사범학교에 편입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게 만든다. 특히 그것은 대구-부산-만주행-금강산 마하연-오대산 상원사로 이어질 보문의 인생 여정과 긴밀하게 연결되기에 소중하다.

잠시 그 무렵 대구사범학교의 실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29년 평양사범학교와 함께 개교한 '관립(官立) 대구사범학교'는 심상과(尋常科)를 중심으로 편제되었는데, 심상과 학생은 졸업하자마자 보통학교 훈도가 되었다. 보통학교를 1, 2등으로 졸업한 전국의 수재들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도 해마다 지원자는 모집인원의 10배~30배가 되었다. 대구사범학교는 황국신민을 배출하려는 일제의 계산에서 설립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항일 지식인의 산실이 되었다. 특히 심상과에는 민족정신에 투철한 사회주의자인 현준혁(玄俊赫, 1906~1945)이 교유(敎諭, 일제 강점기 정식 자격을 가진 중등학교의 교원)로 있었다. 그를 구심점으로 하여 '사회과학연구회'와 '독서회' 등 항일저항 비밀결사가 만들어졌다. 사회과학연구회는 1930년 말 대구사범 1기생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되었는데 1년 뒤 일제에 발각되면서 현준혁과 학생 5명이 구속되고, 1기생 27명과 2기생 10여 명이 퇴학당했다. 1934년에는 제2차 독서회가 발각되어 3기생 6명이 구속되었다. 비밀결사는 대구사범 안에서 확산되어갔다. 1기생은 1929년 94명이 입학하여 1934년 55명만 졸업하였으니, 1/3은 졸업을 못한 것이다. 30%가 넘는 중도 탈락은 그 뒤 기수들의 경우에서도 비슷했다.

보문이 1932년 전후 대구사범학교에 편입했다면 - 대구사범 심상과 입학자 명단에는 보문의 속명인 '신현묵'이나 '신기옥'이 없다. 참고로 1932년 입학인 제4기 명단에는 박정희(朴正熙, 1917~1979)가 있다. - 중도탈락에 의한 결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보문은 편입한 뒤로 대구사범학교 초기 학생들의 이런 항일저항 분위기에 공명했을 것이라 추정한다.

한편 1934년 무렵부터는 학교가 병영화 되어갔다. 학생들은 대구사범학교를 81연대 - 대구에는 일본군 80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 라 부르고, 기숙사는 대구 제2형무소라고 부를 정도였다. 전쟁지도체제와 국민총동원체제가 구축되고 마침내 1938년에는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고 시행되었다. 보문의 중퇴는 대구사범학교의 이런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보문은 그 뒤 대구 황금정에 있던 인쇄소에 취업했다는데, 이 점은 확실하다. 보문이 양자로 간 백부의 집안은 3대째 독자가 대를 이어가고 있었다. 보문이 아들도 남기지 않고 - 1930년에 첫아들을 낳았지만 일찍 죽었다 - 집을 나가버렸으니 집안 어른들의 걱정이 컸다. 보문의 장인이 딸 박갑선을 대구로 보냈다. 보문을 만나 자식을 만들어오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대구의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는 보문을 찾아내어 3일 동안 함께 살았지만 보문은 아무 말도 없이 곧 자취를 감췄다. 박갑선은 그때 신상철을 잉태했다.

보문이 종적을 감춘 것은 부인을 상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이기도 했겠지만 더 심각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문은 1936년 1월 1일자 조선일보 신년사를 읽고 통탄했다.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조선일보의 다짐이었다. 그걸 보고 통탄해한 보문은 조선일보 신년사를 문제삼는 글을 써서 어디엔가 실었다 한다. 그 글에서 보문은 황국신민정책에 대해서 뿐 아니라 강제적 창씨개명에 대해서도 기탄없는 비판을 했다고 한다. 이 기고를 전후로 하여 보문은 일제의 위험인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순사는 대구 처소와 상주의 집에 거듭 나타나 동태를 파악하고 위협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보문이 대구 황금정 인쇄소로부터 사라진 것은 일제의 감시망을 벗어나서 민족의 독립과 가난한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나름대로 새로운 모색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것을 위한 여정은 독립군이 활약하던 만주에서 끝나게 되어 있었다.

〈연세대 객원교수〉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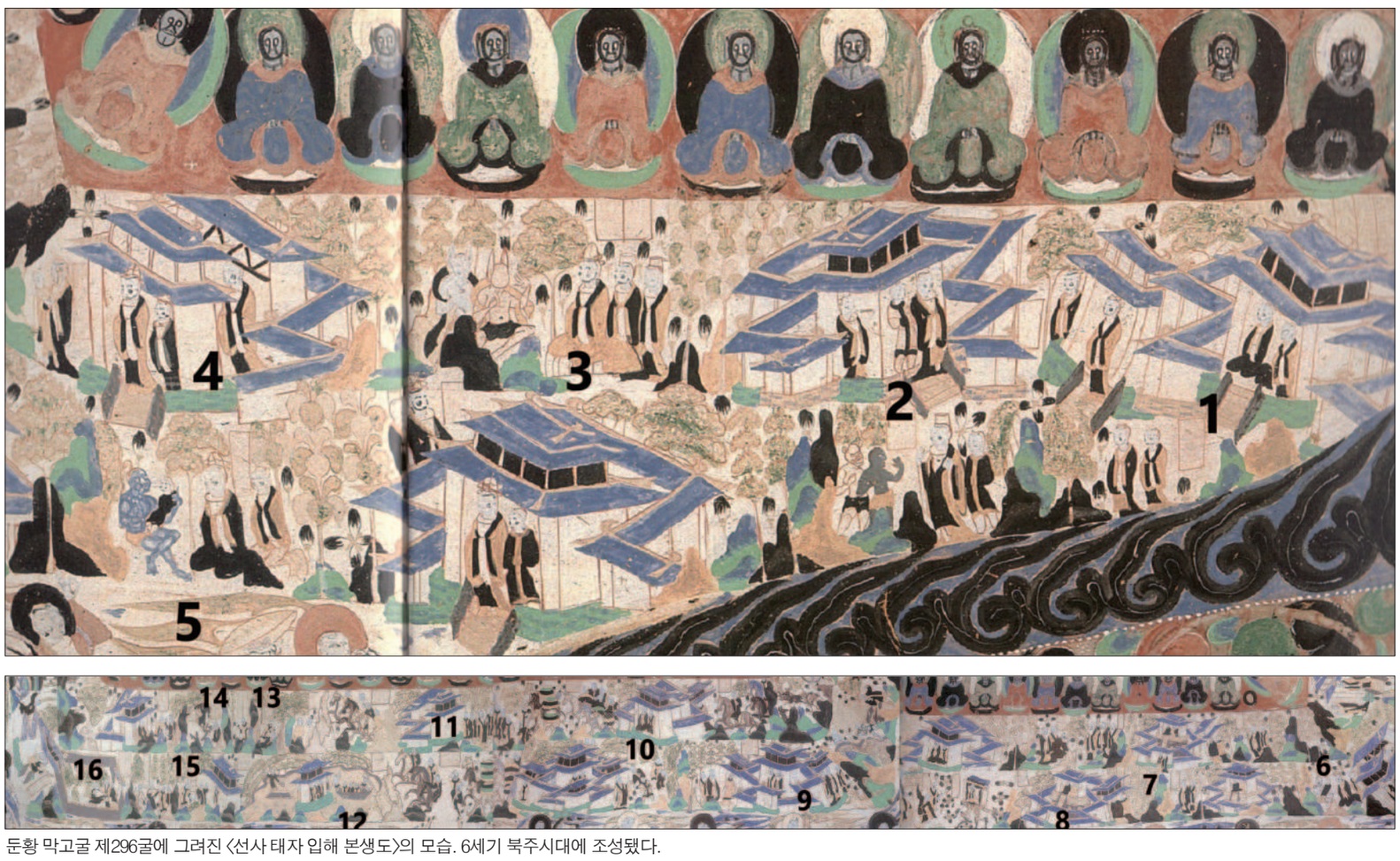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소원성취기도, 장기요양
한반도 시작, 땅 끝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수행도량 견성원 010-8208-7836
사주명리 / 점술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⑬ 선우태자 본생담

▶ 한줄요약
세조가 간행한 〈월인석보〉에는 14개의 본생담이 수록돼 있다. 이중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선우태자 본생담'이다. 이는 북주시대 둔황 막고굴 제296호에 벽화로도 그려졌다.



효·우애·인의 가치 보인 부처님 전생



둔황 막고굴 제296굴에 그려진 〈선사 태자 입해 본생도〉의 모습. 6세기 북주시대에 조성됐다.

수백 번의 희생과 보시를 통해 부처가 되신 석가모니의 전생 이야기는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숭유억불을 정치와 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던 조선왕실에서 간행한 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세조 5년(1459)에 간행되어 조선 전기 훈민정음 연구와 불교학 및 문헌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 〈월인석보(月印釋譜)〉이다. 세조가 돌아가신 아버지 세종과 일찍 죽은 아들 의경세자를 위하여 편찬하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라 사육신 등 많은 신하를 죽인 끝에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 회한과 무상(無常)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세종의 '월인천강지곡' 과 세조 자신이 지은 〈석보상절(釋譜詳節)〉을 합편하여 만든 〈월인석보〉는 간행 당시에는 대략 30권 정도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추측하지만 현재 전하는 것은 모두 19권이다.

현존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분률(四分律)〉 〈현우경(賢愚經)〉 〈분별공덕론(分別功德論)〉 〈다론(多論)〉 〈계단경(戒壇經)〉 〈대품(大品)〉 〈지론(智論)〉 〈갈마소(羯磨疏)〉 〈십송률(十誦律)〉 등에서 인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최고의 학자인 신미(信眉) · 수미(守眉) · 홍준(弘濬) · 학열(學悅) · 학조(學祖) · 김수온(金守溫) 등이 세조의 명을 받아 조선 초기에 유통된 중요 경전을 취합하고 선별한 것으로 당시 불교 경전의 수용 태도를 살필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내용은 석보(釋譜)란 이름에 맞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 혹은 전생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룬다. 한글로 기록된 〈월인석보〉에 실린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라면 조선 전기 사회에서 정치적 혹은 교육적으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거나, 민간에서 큰 유행을 하고 있었던 이야기였을 것이다.

〈월인석보〉에 현전하는 14개의 전생담 중에는 지난 연재에서 다루었던 '수대나태자 본생담' , '시비왕 본생담' , '사신사호 본생담' , '인욕태자 본생담' 등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 이외에,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선우태자(善友太子) 본생담' 이 실려있다. '선우태자 본생담' 은 14개의 본생담 중에서 이야기가 가장 길며 18~19세기에 유행한 고전소설 〈적성의전(翟成義傳)〉의 내용과 거의 같아서 간혹 '선우태자전' 이라 칭하며 15세기에 창작된 작자미상의 고전 소설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우태자 본생담' 은 불교 경전을 원전으로 하는 본생담이 분명하다.

〈월인석보〉에 기록된 '선우태자 본생담' 은 바라내국을 배경으로 마하라사왕의 두 아들인 이복형제 선우태자와 악우태자(惡友太子) 사이에 벌어지는 선행과 형제간의 우애에 관한 이야기이다. 당연히 선우태자는 석존의 전생 인물이며, 악업을 쌓고 선우태자를 시기하여 해하려한 악우태자는 제바달다(提婆達多, Devadatta)의 전생이다. 이러한 '선우태자 본생담' 의 기원은 〈현우경〉 제9권 '선사태자 입해품(善事太子 入海品)'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등장인물의 이름과 몇 곳의 지명만 다르게 적혔을 정도로 큰 차이는 없다.

〈현우경〉의 '선사태자 입해품' 의 내용을 자세히 도해한 그림은 북주(北周, 577~581) 시기에 조영된 둔황(敦煌) 지역의 막고굴 제296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사태자 입해 본생도〉는 복두형 천정 동 · 서 · 남의 삼면에 길게 서술식으로 묘사돼 있어, 마치 장황한 한편의 본생담을 읽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지금부터 경전의 내용에 비춰 그림을 살펴보겠다.

'월인석보' 수록된 본생담 중 하나
선우·악우태자 형제 이야기 담아
'선우태자'는 석가모니 부처 전생
악우 악행에 선우는 자비로 품어

제바달다가 금생에서도 전생에도 여러 차례 석존을 해치려 했으나,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그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셨음을 이야기하며, 먼 옛날 제바달다와의 악연을 말씀하셨다. ①사바세계에 늑나발미(勒那跋彌)라는 왕이 오래도록 아들이 없어 천인이 꿈에서 알려준 ②두 선인(仙人)을 찾아가 아들을 낳기를 청하자, ③각각 두 선인이 죽어서 ④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의 뱃속에 잉태되었다. ⑤열 달 후 두 명의 왕자를 얻은 왕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태자의 이름을 짓게 했다. ⑥임신 후 마음이 선해진 첫째 부인이 낳은 아들은 선사(善事)라 이름하고, 임신 후 마음이 악해진 둘째 부인이 낳은 아들은 악사(惡事)라 이름하였다. ⑦이후 왕은 선사태자만을 사랑하여 세 계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 살게 했고, 선사태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뤄 주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면서 선사태자는 성품이 온화할 뿐만 아니라 총명해 모든 경전을 통달했다.⑧어느 날 궁 밖의 풍경을 좋아하는 선사태자는 금과 은으로 장식한 흰 코끼리를 타고 많은 호위를 거느리고 궁을 나와 거지들, 짐승을 죽여 고기를 베어 파는 백정들, 힘든 고역을 하는 농부들, 동물들을 무참히 죽이는 사냥꾼,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를 보았다. 사람들이 의식을 위하여 중생을 죽이고, 몸을 힘들게 부리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살기 위해 쌓는 죄업과 뒷날의 과보를 걱정하며 궁으로 돌아왔다.

⑨선사태자가 부왕에게 궁 밖의 백성들을 가엾이 여겨 부왕의 창고를 열어 보시하기를 청하자, 왕이 승낙했다. ⑩선사태자는 곧 왕의 창고를 열어 온갖 보물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 주어 왕의 보배 창고는 3분의 2가 줄게 되었다. 나라의 운영과 궁의 살림에 쓸 재산이 바닥을 보이자, 태자가 스스로 재물을 구하여 중생에게 보시할 방법을 생각하게 됐다.

⑪그때 어떤 사람은 말하길 큰 바다에 들어가 용왕궁에 이르러 여의주를 구하면 가장 많은 재물을 얻을 것이라 했다.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큰 결심을 한 선사태자는 동생 악사태자와 동행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칠보가 가득한 보배섬에 이르렀다. ⑫보배에 눈이 먼 일행들과 헤어진 선사태자가 홀로 천녀들이 사는 성에 이르러 전타마니(旃陁摩尼) 여의주를 얻어서 일행들과 헤어진 곳으로 돌아와 보니, 보물을 욕심내어 가득 실은 배가 가라앉고 있었다. ⑬선사태자가 물결이 거친 바다에 빠진 악사태자를 구해주고 여의주를 얻은 이야기를 들려주자, 나쁜 마음이 든 악사 태자가 가시나무로 잠이 든 형의 두 눈을 찌르고 여의주를 빼앗아 도망쳤다.

⑭두 눈을 잃은 선사태자는 떠돌다가 우연히 약혼녀의 나라인 이사발타국(梨師跋陀國)에 이르러 어느 소치는 사람을 만나 그의 집에서 지내었다. ⑮그러나 더 이상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 거문고를 연주하며 눈먼 악사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문고를 연주하는 태자를 본 이사발타국 왕의 딸이 약혼자인줄 모르고 선사태자에게 시집가기를 청하여 선사 태자와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었다.

한편 부왕의 나라로 돌아간 악사태자는 형님과 배가 함께 침몰해 죽었다고 말했으나, 이를 믿을 수 없었던 왕이 선사태자가 기르던 비둘기에 편지를 묶어 태자를 찾아오라 명하였다. ⑯먼 하늘을 날아다니던 비둘기가 선사태자의 거문고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편지를 전해주자, 눈이 먼 태자는 편지에 그간의 사정을 모두 적어서 비둘기에 묶어 보냈다. 비둘기가 전해준 편지를 통해 악사태자의 악행을 알게 된 부왕은 악사를 옥에 가두고 선사태자 부부를 모셔오게 하였다.

궁에 돌아와 부왕과 어머니를 만난 선사태자가 더 이상 악사를 미워하지 않으며, 여전히 동생을 아낀다고 맹세하자 두 눈을 뜨게 됐다. 이후 선사는 동생이 땅속에 숨긴 여의주를 찾아 여의주의 신비스러운 힘을 빌려 텅텅 빈 국고를 채우고, 배고프고 헐벗은 이들에게 먹을 것과 의복을 끝없이 나누어 주었다.

제바달다의 악행에 분노하는 아난에게 석가모니께서 "말 못할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제바달다를 사랑하고 가엾이 여겼다. 하물며 지금 나는 불도를 이루어 번뇌를 모두 없애고 자비를 널리 펴는데 나에게 조그만 해를 입혔다 하여 어찌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수백 개의 전생담 중에서 〈월인석보〉에 '선우태자 본생담' 이 실린 이유는 악인 악우태자를 향한 선우태자의 변치 않는 사랑과 형제애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와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위험도 무릅쓰고 여의주를 얻어 온 선우태자의 행동이 유학을 통치의 기본으로 삼는 조선의 이념을 널리 알리기에 가장 적합하였을 것이다.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강사〉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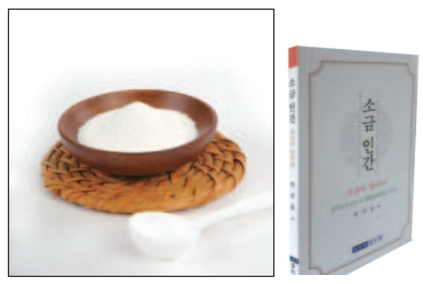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유랑 500년 흥천사 동종, 이젠 '환지본처'할 때

다시 돌아와야 할 성보들 ① 흥천사 동종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내가 왕위에 오르기 전 신덕왕후의 내조가 실로 많았다. 뜻밖에 세상을 떠나니 어진 정승을 잃은 것처럼 슬퍼 저승길 복록을 바라면서 이 절(흥천사)을 창립했다. 그 은택을 미루어 나라를 복되고 만물을 이롭게 해 길이길이 다함이 없도록 해야할지니 나의 이 뜻이 후세에 밝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라."

조선 초 문신인 권근이 쓴 '정릉원당조계종본사흥천사조성기' 중 태조 이성계의 하명을 정리한 부분이다. 정릉 원당인 흥천사의 탄생 배경과 의미, 신덕왕후에 대한 태조의 애정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조선 태조 마지막 찐사랑 '신덕왕후'

신덕왕후 강 씨는 '경처(京妻)'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 데 조언자 역할을 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암살한 뒤 이성계가 아들에게 "불효를 저질렀다"고 꾸짖자, "공은 천하의 대장군을 자처하시면서 어찌 놀라고 두려워하십니까(〈태조실록〉)"라고 나무라며 이방원을 추켜세운 것이 신덕왕후 강씨다. 결국, 이방원을 통해 고려의 마지막 보루였던 정몽주를 과감하게 제거한 것은 조선왕조 건국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어려운 시절, 안팎으로 자신을 보좌하며 조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 세운 왕비 신덕왕후에 대한 태조의 총애는 남달랐다.

실제, 신덕왕후가 병환이 깊어지자 스님 50여 명을 불러 병환의 쾌유를 발원하는 기도법회를 열었다는 기록을 〈태조실록〉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덕왕후가 죽은 뒤에는 아침저녁으로 흥천사에서 재를 올리도록 했으며, 흥천사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태조가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조선의 첫 왕비 신덕왕후는 태조의 마지막 사랑이었던 것이다.

통치 이념에 흥천사 명운 갈려

신덕왕후릉인 정릉은 본래 황화방(현 덕수궁 북쪽)에 있었지만, 훗날 정적이 된 태종 이방원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후 정릉을 후궁릉으로 강등시키고 1409년 사을한(현재 정릉 위치)으로 이전시켰다. 능침사찰인 흥천사도 분사(分司)됐고, 이 사찰은 신흥사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이 시기는 "흥천사와 신흥사가 공존하는 시기(문명대 교수)"였으나, 흥천사는 1424년까지 조계종 본사의 기능을 수행했다.

세조는 신덕왕후 등 왕실 조상의 명복과 중생구제를 발원하며, 1462년 조선왕실 최초로 범종을 조성해 흥천사에 헌납하기도 했다.

문제는 연산군이 즉위하며 발생했다. 연산군은 재임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불교를 탄압했다. 1504년 연산군은 세조가 세운 원각사를 폐사시키고 장악원을 만들어 기생들을 양성했다. 흥천사의 1차 화재가 발생한 것도 이 시기다.

1506년 중종이 즉위했지만 불교 탄압은 꾸준히 발생했다. 유생들은 왕립사찰 황화방 흥천사의 물건을 사사로이 훔쳤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내시를 돌로 내려치는 패행을 보였다. 이후 1510년 3월 28일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된 사리각이 전소됐다.

대노한 중종은 유생들을 '미친 아이(狂童)'라고 부르며 수사할 것을 강하게 지시했지만, 유림들은 석가모니 부도가 사라진 것은 "유가(儒家)의 경사"라며 "폭군 연산군도 흥천사, 흥덕사 방화를 묵인했다. 임금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화가 반드시 종사를 전복시킨다"라고 상소를 올렸다. 조선을 연 태조가 세운 왕립사찰을 유생들이 불을 질러 전소시켰음에도 중종은 '종사 전복' 운운에 아무런 손도 쓰지 못했다. 결국, 1512년 중종은 흥천사 토지를 사대부들에게 나눠줄 것을 명하며 황화방 흥천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Never Ending' 흥천사 동종 유랑사

폐사된 황화방 흥천사의 세조 발원 동종은 당연히 이장된 정릉의 능침사로 이운되는 게 순리였지만, 그리되지 못했다. 홀로 남겨져 오갈 데 없어진 흥천사 동종은 남대문으로 옮겨져 왕실 관리들에게 출근 시간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이는 〈중종실록〉 1541년 6월 1일 기록에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신덕왕후 원당으로 조성된 '흥천사'
태종, 왕후릉 폐지 정릉 이전 분사
1504 · 1510년 화재 전소 후 폐사

1669년 왕후릉 복위…흥천사 중창
흥선대원군 '흥천사'명 복원하기도
原흥천사 법맥, 현재 흥천사 계승해
"역사 이은 흥천사로 동종 복귀를"

동종 환수, 지역 인프라 확장 도움

"김안로가 늘 말하기를 '성 밖에 사는 신하들의 집이 조시(朝市, 조정과 저자)에서 멀기 때문에 새벽 종소리와 저녁 북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조정에 출근할 때에도 그 때문에 지각을 하게 된다' 고 했다. 병신년(1536년)에 정릉의 종을 남대문으로 옮기고, 원각사의 종을 동대문으로 옮기고서 각(閣)을 짓고 종을 달았다. 그리고 새벽과 저녁에 그 종을 쳐서 성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했다."

하지만, 이 용도는 오래가지 않았고, 종각도 허물어졌다. 애물단지가 돼 방치되던 흥천사 동종은 영조 대에 이르러 다시 주목 받게 된다. 〈영조실록〉 1748년 5월 8일 기록에 따르면 영조는 어가를 타고 이동하던 중 동대문 안과 광화문 밖에 종들을 발견해 살펴봤는데 종에는 선왕들의 어휘와 어제들이 있었다. 이에 영조는 "친제(親製) · 친필(親筆)은 존경해야 될 것인데 수백 년 동안 방치함으로써 비바람에 씻기게 내버려 뒀으니, 매우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각각 한 칸씩 집을 짓도록 하명했다.

근대에 이르러서 흥천사 동종은 다시 이운된다. 흥선대원군은 광화문을 신축하고 문루에 흥천사 동종을 걸었지만, 일제의 침탈이 시작된 1910년 창경궁에 새로 지은 이왕가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당시 상황에 대해 언론인 차상찬은 '흥천종의 유래'라는 글에서 "이사를 왔으나 명색이 미술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간 행랑살이를 하게 됐다"고 토로하고 있다. 박물관 내부가 아닌 야외에 동종이 방치돼 있었던 것이다. 1938년 이왕가박물관이 덕수궁 석조전으로 이전하자 함께 이운돼 덕수궁 광명문에 걸렸고, 흥천사 동종은 전시물로 전락하게 된다.

현대에 와서도 흥천사 동종의 수난사는 끝나지 않았다. 덕수궁 광명문에 있던 흥천사 동종을 보러 온 관람객들이 동종 내부에 수정액으로 온갖 낙서를 해놓는 등 사실상 방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2006년에 이르러서야 조선 첫 왕실발원 범종임을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460호로 지정된다. 이후 문화재청은 2018~2020년 광명문을 해체해 원래 위치인 함녕전 남쪽 터로 옮겨 복원하며 흥천사 동종은 보존처리에 들어갔고, 최근 완료했다.

하지만, 흥천사 동종의 유랑은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이 국립고궁박물관 외부에 보호각을 설치해 전시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9일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불교계 측 위원들은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고, 현재 이전 방안을 조계종과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첫 조선왕실 발원 동종인 흥천사 동종. 2006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덕수궁 광명문에 걸렸으나 2018년 광명문 이전 사업이 시작되며 보존처리에 들어갔다.



흥천사 대방 전경. 흥선대원군이 쓴 '흥천사' 현판이 보인다. 신흥사에서 '흥천사'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원(原)흥천사의 역사성을 현재의 흥천사가 그대로 계승했음을 의미한다.

'原흥천사' 역사 이은 '現흥천사'

불교계와 학계는 더 이상 흥천사 동종을 '문간 행랑살이'와 같은 야외 전시물로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제는 일신해 가람을 바로 세운 흥천사가 원(原)흥천사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만큼 흥천사 동종이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한국미술사학계 원로인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는 수차례에 걸쳐 발표한 논문과 기조발표를 통해 흥천사 동종이 흥천사로 돌아와야 함을 주장해 왔다. 그 이유 역시 현재의 흥천사가 황화방 흥천사의 역사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서다. 특히 대원군이 흥천사 명을 복원시킨 것에도 큰 의미를 뒀다.

문 명예교수는 '흥천사의 역사와 흥천사 대종의 귀환' 주제의 기조발표문에서 "1669년 송시열 등의 건의에 따라 신덕왕후의 정릉이 다시 왕후릉으로 복위되며 현 흥천사가 능침사로서 역할을 했다. 이후 19세기에는 적조암, 극락보전, 명부전 등이 중창되며 불사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원군이 1865년 새 흥천사인 신흥사가 원 흥천사를 완전히 계승했다는 뜻으로 흥천사 명을 복원시킨 것은 흥천사가 원래 황화방 흥천사의 역사성을 계승했음을 명실상부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야외 보호각 안으로 흥천사 동종을 이전시키는 계획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상근 문화재환수연대 대표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유물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보존 · 전시하는 곳"이라며 "흥천사명 동종이 조선 왕실에서 발원했지만, 어디까지나 사찰 성보로서 조성됐다. 이를 왕실 유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흥천사 주지 각밀 스님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흥천사는 조선왕실 불교의 시작과 끝이었다. 이제는 흥천사로 돌아와 왕실 발원 성보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태조 이성계와 신덕왕후의 애틋한 사랑이야기를 담은 흥천사와 동종은 문화콘텐츠로서도 활용 가치가 높다. 지역문화 인프라 확장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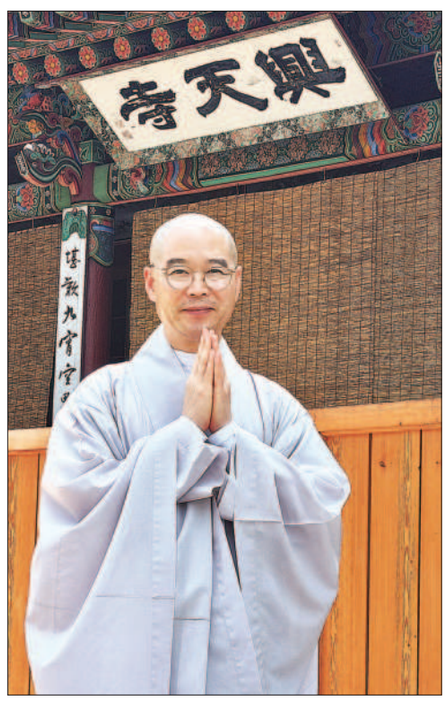
이어 "고증자료와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해 문화재청과 환지본처를 위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사중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사부대중과 함께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화방 흥천사가 폐사되고 방치된 동종이 유랑을 시작한 지 올해로 512년이다. 흥천사 동종은 정치적 복수로, 통치이념을 이유로, 성보로서의 가치를 잃고 이곳저곳을 떠돌다 이제는 박물관 야외 전시물로 전락할 위기다.

흥천사 동종의 500년 유랑사는 이제는 끝나야 한다. 그 끝은 박제된 유물이 아니다. 부처님 법음을 전하는 성보여야 한다.

인·터·뷰
흥천사 주지 각밀 스님

"동종 환수, 조선왕립 흥천사 가치 되살리는 불사"



2014년부터 동종 환수 추진
학술대회 통해 당위성 입증
보존 · 활용 방안들 '무궁무진'
관리단체 지정받아 관리 계획

"흥천사는 조선왕실이 발원한 첫 사찰이고, 흥천사 동종도 왕실이 발원한 첫 범종이다. 다시 말해 흥천사는 조선왕실 불교의 시작과 끝이었다. 동종의 환수는 이런 흥천사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이다."

흥천사 주지 각밀 스님은 7월 4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흥천사 동종 환수의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흥천사는 2014년부터 꾸준히 동종의 환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미술사연구소와 함께 흥천사의 역사와 동종 환수의 당위성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들을 개최하며 환지본처의 당위성을 입증해나가고 있다. 다음은 동종 환수 관련 일문일답.

Q. 원(原)흥천사와 현 흥천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A. 이는 7월 2일 열린 한국미술사연구소가 개최한 '600년 왕실 원찰 흥천사 대종의 흥천사 귀환' 학술대회에서 증명됐다. 현재의 흥천사는 정릉의 이장과 함께 함취정 터에 새로운 흥천사라는 의미로 신흥사라고 칭해지며 능침사찰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100년간 두 흥천사가 공존해왔지만, 정릉의 능침사찰로의 역할로서 건립된 현재의 흥천사가 역할을 했다. 황화방 흥천사의 폐사된 후에는 그 기능을 현재 흥천사가 담당해왔다. 또한 신흥사라는 명칭은 흥선 대원군으로부터 편액을 하사받으면서 흥천사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된다. '흥천사'라는 사명의 회복은 국가 사원과 능침사찰로서의 기능과 법맥을 현재 흥천사가 이어가고 있음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현재의 흥천사는 그 법맥을 이어오고 있다.

Q. 흥천사 동종 이전 장소로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보호각이 거론되고 있다.

A. 흥천사 동종은 전시 관람물이 아니라 법음을 전하는 성보다. 이를 감안하면 조선 최초 왕실사원의 법맥을 이어가는 흥천사에 마땅히 모셔져야 한다. 이를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어필할 계획이다.

Q. 국유문화재인 흥천사 동종이 민간에 보내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다.

A. 문화재보호법 제66조를 보면 국유문화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관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문화돼 있다. 이를 근거로 '흥천사 동종'의 환지본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흥천사는 관리단체로 지정받아 동종의 가치를 보존하려 한다. 현재의 흥천사는 동종을 관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

Q. 흥천사 동종이 환수된다면 어떻게 보존 관리하실 것인가.

A. 현 종각을 활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보관처 설립도 가능하다. 흥천사 주위 토지가 많기에 보존 공간은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첫 조선왕립 사찰인 흥천사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등 등록문화재만 22개다. 아직도 공개 못한 문화재들도 적지 않다. 이 같은 문화재들과 태조와 신덕왕후의 애틋한 사랑 등은 충분히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동종의 환지본처는 이를 위한 '화룡점정'이다. 이 같은 콘텐츠가 개발된다면 지역문화 인프라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Q. 흥천사 동종 환지본처를 위한 향후 계획은

A. 인도에 타지마할이 있다면, 한국에는 정릉과 흥천사가 있다. 타지마할은 왕후의 묘이지만, 태조는 왕후릉과 사원을 함께 조성한 것이다. 흥천사 동종 환지본처는 그 가치를 더욱 격상시키는 불사다. 그래서 동종의 환지본처는 흥천사의 모든 사부대중의 최대 염원이다. 실무적으로는 고증자료와 보존관리 방안을 잘 정리해 문화재청에 제출해 환지본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滅諦만이 궁극의 진리

〈멸제〉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㉖ 멸(滅)

"괴로움이 없어지는 한 가지 진실한 법(一苦滅諦)은 유위의 모양을 여의었으니, 유위의 모양을 여읜 것이라야 항상한 것이며, 항상한 것은 허망한 법이 아니며, 허망한 것이 아닌 법은 곧 진실한 것이며, 항상한 것이며,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이 없어지는 진실한 법(滅諦)만이 가장 으뜸가는 궁극적인 최후의 진리(第一義)가 됩니다."

사정세(四聖諦)가 곧 멸성제(滅聖諦)를 증득하기 위해 설해진 교리이다. 때문에 가장 으뜸가는 궁극적인 최후의 진리(第一義)를 멸성제(滅聖諦)라고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 대목에서 궁극적인 최후의 진리인 제일의제(第一義諦)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고 있다. 유위의 현상이 아닌 일체의 괴로움이 없어진 멸성제가 열반이요, 해탈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가 이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가지가지 법이 설해지는 것이다.

멸(滅)은 범어 비나사(vinasa)를 어원으로 한 말로 생(生) 또는 기(起)의 반대말이다. 그런데 이 '멸'을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단멸(斷滅)과 찰나멸(刹那滅)의 두 가지로 이해한다. 단멸은 한 번 생겼다가 완전히 소멸하여 다시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하고, 찰나멸은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인연에 의하여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생멸현상(生滅現像)으로 볼 때의 생멸이다. 흔히 유위법(有爲法)이라 말한다. 유위법은 네 가지 과정을 거친다. 이를 생(生)·주(住)·이(異)·멸(滅)의 유위사상(有爲四相)이라 하는데 이 유위사상을 본문에 '유위의 모습'이라 한 것이다. 하나의 법이 생길 때 반드시 유위의 사상(四相)이 함께하는 것이다. 생겨날 때 이미 소멸된 것을 예약해 놓는다는 뜻이다. 또 멸(滅)은 무상을 뜻하는 말로 무상의 원리를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말이다. 그러나 생멸의 멸(滅)은 멸성제(滅聖諦)의 '멸(滅)'이 아니고 멸도(滅度)의 멸이요, 적멸(寂滅)의 멸이다. 이 멸은 부처님의 열반을 뜻하는 것이다. 〈승만경〉의 제일의제(第一義諦)가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승(一乘)이나 불승(佛乘)과 같은 말로 권(權)을 모아 실(實)에 들어간(會權入實) 구경을 말하는 것이다.

〈법화경〉 사구게(四句偈)에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고요한 모습이다. 불자가 도를 행하고 나면 내세에 부처가 되리라(諸法從本來 常自寂滅相 佛子行道已 來世得作佛)"라고 하였다. 또 〈열반경〉 사구게(四句偈)에서도 이렇게 밝혔다. "모든 것은 무상하여 생겨났다 없어지는 법이라 생멸(生滅)이 없어지면 적멸이 즐거움이 된다.(諸行無常 是生滅法 生滅滅已 寂滅爲樂)"

두 경의 사구게가 모두 적멸의 멸을 경전의 핵심으로 본 것이다. 바로 불교의 핵심이 멸에 있으며, 멸이 열반이라는 것이다. 모든 번뇌의 불길이 꺼지고 생사를 반복하는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경지, 이것이 수행이 지향하는 최후의 목적지며 최고의 이상(理想)이라는 것이다. 초기 경전을 대표하는 〈수타니파타(Sutta-nipatta)〉에는 열반을 갈애와 욕망의 소멸, 집착의 소멸이라 하고 죽음이 없는 경지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잡아함경〉에는 "열반이 무엇인가? 탐욕이 영원히 사라지고 진에도 영원히 사라지고 우치도 영원히 사라져 모든 번뇌가 영원히 사라진 경지를 열반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소승경전에서는 기존의 도식처럼 번뇌가 사라진 것을 열반이라고 강조하고 대승경론에서는 모든 상(相)이 없어진 것을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입능가경〉에서는 법을 보되 마음에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열반이라 했다.

이렇듯 열반은 불교의 경론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기도 했다. 중론(中論) 등에서는 "실상이 열반이다"하여 인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 곧 연기법의 공성(空性)을 열반이라 했다. 그런가 하면 〈열반경〉에는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고 열반이 그대로 생사다."라고 했다. 그리고 열반에는 상(常), 항(恒), 안(安), 청정(淸淨), 불로(不老), 불사(不死), 무구(無垢), 쾌락(快樂) 등 여덟 가지 맛이 있다 하였다. 이를 열반팔미(涅槃八味)라고 부른다. 이는 상(常), 낙(樂), 아(我), 정(淨)의 열반사덕(涅槃四德)을 늘여 말해 놓은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염불 수행이 곧 일행삼매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㊾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또 전신을 관하는 관상염불 수행법은 〈좌선삼매경〉에 경전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좌선삼매경〉에서 "만약 부처님 도를 구하려면 입선(入禪)할 때 먼저 마땅히 마음을 집중하여 부처님의 생신(生身)을 염해야 한다. 지·수·화·풍·산·나무·초목·천지 등 여러 가지 다른 법을 염하지 말고, 다만 부처님의 몸이 허공에 처한 것을 염하면 큰 바다가 깨끗할 때 금산왕(金山王)이 있어 상호가 원만하고 한량없는 청정한 광명을 내는 것과 같다.

이 허공의 청색 가운데 항상 부처님의 몸을 염하면 문득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눈앞에 계시게 된다. 만약 마음에 다른 반연이 일어나면 다시 거두어들여 머물게 하면 무량겁의 죄가 제거된다."라고 설한 가르침에 근거한 염불 수행법입니다.

용수보살이 주장하는 관상염불

대승불교를 완성한 인도의 용수보살(150~250)은 그의 저서인 〈십주비바사론〉에서 염(念)의 대상으로 '색신'과 '법신'과 '실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불의 종류에 있어서도 '색신염불', '법신염불', '실상염불', '십호염불(十號念佛)'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색신염불(色身念佛)

불자 여러분! 〈색신염불(色身念佛)〉은 '염불품'에서 "부처님의 색신은 32상 80종호로 장엄되어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모든 부처님의 상호를 취하여 억념하는 것이 색신염불이다."라고 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부처님의 32상 80종호의 거룩한 상호를 바라보며 칭명염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수반야경〉에서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일행삼매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마땅히 한가한 곳에 처해 모든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고 하나의 모양도 취하지 말고, 마음을 한 부처님께 몰입하여 오로지 명호를 외우며, 부처님이 계신 곳을 따라 단정한 몸으로 바르게 향하여 능히 한 부처님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상속해야 한다. 그러면 이 생각하는 가운데 능히 과거와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을 친견할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한 부처님을 염하는 공덕이 무량하고 무변하기 때문이다."라고 '일행삼매(一行三昧)'의 염불 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수반야경〉의 '일행삼매'에 대해서 용수보살은 〈대지도론〉을 통해 "법계의 일상(一相)에 몰입한 이것을 이름하여 일행삼매(一行三昧)라 한다."라고 염불 수행이 곧 일행삼매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신염불(法身念佛)

법신염불(法身念佛)은 '여래의 공덕'인 법신(法身)을 염하는 수행입니다. '사십불공법품' 제22에서 "보살은 이와 같이 32상 80종호로써 부처님의 몸을 염하고 나서 이제 마땅히 부처님의 모든 공덕의 법을 염해야 한다.

또 마땅히 40불공법으로써 부처님을 염하라. 모든 부처님의 법신은 다만 육신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중략〉 만약 사람이 이를 염하면 곧 환희를 얻는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은 색신이 아니고 법신이기 때문이라."라고 부처님의 색신이 곧 법신임을 설하고 있습니다.

경에서 설한 바와 같이 법신염불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색신을 염하고 난 후에 법신염불을 수행해야 합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㉖ 고귀한 구함의 경 3

시작 없으니 번뇌 있을 수 없다

"수행승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를 뛰어넘어 '지각과 느낌의 소멸'에 들어 지혜로써 보아 번뇌가 소멸된 것을 안다. 수행승들이여, 그 수행승을 두고 '악마를 눈멀게 만들고, 악마의 눈을 뽑아, 악마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자, 세상에 대한 집착을 뛰어넘은 자'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그는 안심하여 가고, 안심하여 서고, 안심하여 앉고, 안심하여 눕는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는 악마의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을 '시작'이라 하고, 무엇을 '끝'이라고 말하는가?

'끝'이라는 말은 '시작이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시작과 끝이라는 사슬에 묶여 '무엇'과 '누구'를 놓치기 때문이다. 시작했다는 안도감과 시작했으니 끝도 날 것이라는 희망 아닌 희망을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고, '무엇'과 '누구'에 대한 의심은 처음부터 할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시작한다는 명제를 옳음으로 두고, 다음에 대한 의구심만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일이 끝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시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시작이라는 것이 옳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시작이 될 수 없다. 만약 시작이 옳음이 아니라면 그 시작이 옳지 못한데 진행을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따라서 시작이 옳음이 되면 바로 끝이 되어야 하고, 시작이 옳음이 되지 못하면 끝은 영원히 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시작을 물질로 본다면, 물질은 옳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찰해야 한다. 물질이 옳음이 없다면 시작이라는 것은 무의미해 진다. 물질은 항상 변한다. 고정성이 없다. 변하는 것은 실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실재하지 않는다면 물질에서 나타난 느낌과 지각이라는 세계는 악마가 꾸며놓은 덫에 불과한 것이지, 소멸시켜야 하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소멸시킬 필요 없이 저절로 소멸하니, 사라질 번뇌가 없음을 알게 된다. 알아야 하는 것은 느낌과 지각에서 일어난 장애가 아니라 그것을 느낌이라 말하고 지각이라고 말하는 오온에 대한 앎이었던 것이다. 오온이 무엇인지를 알면 시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 끝도 없다는 것을 안다.

끝없는 시도와 좌절 속에서 시작에 대한 문제의식을 견지하는 수행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누구나 시작은 옳다고 당연히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은 존재하고,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것만 알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처럼 여긴다. 그것이 모든 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류다. 수행은 시작이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다. 끝을 아는 것이 아니다. 시작이 없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성실하게 시작해야 한다. 소 뒷걸음치다 쥐 잡듯 대충 하여서는 안 된다. 진심을 다하여야 한다. 그 진심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게 되어야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놓임이 생긴다.

시작했다는 것에서 놓임이 생길 때,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하지 않고 뛰어 넘어진다. 그 '하지 않는 뛰어넘음'이 악마의 눈을 뽑아, 눈을 멀게 하여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하지 않음'은 느낌이 생성될 수 없고 느낌이 생성될 수 없으므로 지각이 생성되지 못한다. 이러한 '하지 않는 앎'은, 가고 서고 앉고 눕는데 어떠한 장애와 번뇌도 생성할 수 없다. 만약 시작과 동시에 끝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느낌과 지각이라는 악마에 의해, 시작과 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목각 인형처럼 온몸이 묶여 악마의 손놀림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시작과 끝, 어디에서 찾는다는 것인가!
그저 악마의 느낌과 지각일 뿐인데
느낌이 일어날 때 그것이 두 번째 생각인 줄 알면
첫 번째 생각 어디에도 일어난 적 없었네.
악마는 느낌과 동시에 동일시에 집중할 뿐
느낌에 대한 시비심 일으킴 없지만,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퍼덕거려 피가 나는 것이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19년간 공장일 전전하다
뇌출혈로 죽음 문턱

미얀마 출신 양묘나잉씨 가족 부양 위해 한국행 택해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병원비 4000만원 '막막'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95호 | 17 | 전면광고

너희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릴 줄 알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항상 안락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합장 010-3586-6091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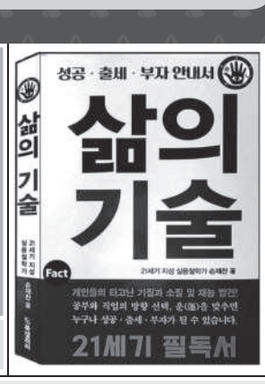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상표등록 1424679호>
포인트 위주로 가장 쉽게 아수해 드립니다.
- 현재 궁금한 점과 그 대안책(타고난 인생·병·영가 일년 신수 등 '왜?' 그러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과거·현재·미래의 사주와 미래에 대한 대안책 제시
- 대상 : 스님, 철학인, 법사님 등(속성반 7강 진행)
- 출장 및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단, 경상북도 이남 지역은 포항에서 직접 지도 및 안내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9 가야선원
문의처 010-2901-8923

롱아를 치료해 드립니다.

010-9457-4311



추천 - 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347-5950

『약』을 드립니다.

연세드신 스님께 약을 드립니다.
노환으로 체력이 많이 약해진 스님께 약을 드립니다.
가래, 기침으로 고생하는 스님께 약을 드립니다.

문당승 010-5454-8315

직원 모집

전남 영암, 도림사 장군당
개인숙소 제공
월 250~300만원 이상
영암 버스터미널 5분거리

010-4554-1122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지역
• • •

010-8721-2198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대구사무실 서울잠실사무실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특수한 기도법

스님께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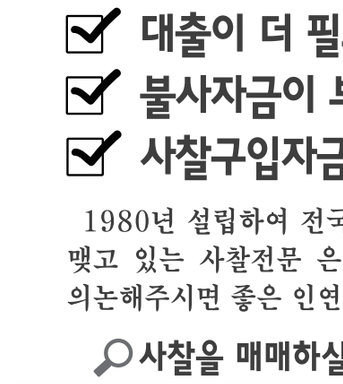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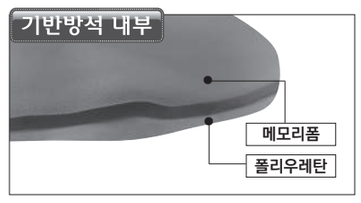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95호 | 18 | 전면광고

해가 뜰 때에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부처님의 복전(福田)도 이와 같아서
모든 어둠을 소멸하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화엄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40억5천
◎ 위치 : 부산시포교원
◎ 입지좋은근린상가
◎ 건평 : 약100평
◎ 주차,공원,아파트
◎ 매가 : 12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경북 상주 목구조 사찰 매매입니다.
- 부지 총면적 : 17,080㎡(5,166평)
- 건물 총면적 : 249.51㎡(75평)
- 가액 : 8억6천만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2천5백(노스님 몸아픈 관계로)
- 가전제품 보시 ●당일법회 가능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담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

010-5421-1536

포교당안내

- 위치 : 대전시 신탄진 톨케이트 인접
- 대지 : 53.5평
  1층 : 요사채 25평
  2층 : 법당 22평
- 주차공간 매우좋음
- 가액 : 3억 3천

010-9058-6163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기도 도량 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체, 공양간
- 가액 : 급매(협의가능)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용주면 봉기리
- 대지 : 300평(종교부지) 농지 : 114평(논)
- 목조법당 : 25평
  요 사 채 : 20평
- 가액 : 4억원

010-4835-173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작고 아담한 사찰
- 건평 : 약 50평
- 건물 3동, 대웅전, 방3개, 스님큰방, 용왕당, 산신당
- 스님 몸이 건강 안좋음
- 가액 : 7천 5백(조정가능)

주지 010-7506-86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대창면 한들길87-5
- 대지 : 200평, 구건물 2동
- 임법당 20평, 방 3개
- 가액 : 9천5백만원

010-7795-9856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쌍정길99-8 불국정사
- 대지 : 206평, 건물 : 전통사찰형태2층콘크리트건물, 1층:방4,주방,욕실(40평) 2층:법당(30평), 산신각(5평) 정원:5층석탑,스님 건강상급매
- 가액 : 3억5천

010-2611-65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시장옆 2층 25평 권리없음
- 부전스님, 공양주 일할분, 쓸분
- 남여 결혼할 분 모십니다.
- 서울 명동 결혼상담

010-5381-141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바닷가 근교
- 부지 : 510평(대지 220평, 전 29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3동
- 토지 : (전)신축 가능
- 가액 : 2억 5천

010-3871-22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연초면
- 대지136평
- 법당3채, 요사채1동, 화장실2, 정원처럼 잔디밭 조성
- 가액 : 3억 (절충가능)

010-4509-4061

절터로 좋은땅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 정남향에 위치, 630평
- 가액 : 평당 1백 20만원

010-9093-8324
010-9052-5736

사찰(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보문로 166(보문산 입구 5거리) ● 2층 43평, 시설금 6백만, 보증금 3백만 (합 9백만), 월세 40만 ● 법당, 요사채(2), 공양간 ● 시설완비(에어컨, 냉장고, 냉동고, 순간온수기, 전기전반시설및증설, 판넬설치완비, 도배, 장판, 음향시설) ● 5년전 인수금보다 6백만 절상(건강문제로 급매한것임)

보문산 지장사 무진 합장
010-3049-5816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314쪽 | 12,6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돌공사 전문 (石)

공/사/개/요
석·굴법당
축대 및 보수공사(石)
까다로운 돌길 공사
석·식자재보관실·저장실

전화 042-624-4037
042-624-4038
042-624-4039
HP 010-5123-4038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42-22, 103호
동진건설 천성건설 합병

불자의 궁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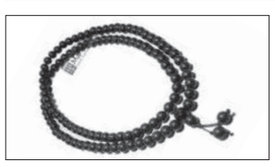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⑬ 부산 해운정사 쉬나무

쉬나무가 일러주는 설법, '만유동일체'
〈萬有同一體〉

인터넷 지도대로 해운대역 2번 출구에서 해운정사를 찾아 올라간다. 빽빽한 도심 사이로 또 인간만의 영역이 생기는 공사 현장을 건너보며 답답증이 밀려왔지만 무심히 가다듬으려 애쓴다. 우리가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확장의 본성을 냉철하게 성찰하기에는 이미 지구가 존폐 기로에서 뜨겁다.

경사 낮은 비탈을 올라 일주문 앞에 섰는데, 지나온 길이 무색하게 드높은 계단이 하늘로 이어지고 있다. '108'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나 싶어 하나, 둘, 세어 보지만 곧 잊는다. 사찰 경계에 있는 듯한 주택가 빈 터 군데군데에서 하얀 꽃들이 수북하게 이채로운 자태를 뽐낸다. 쉬나무들이다.

눈을 부라리며 귀를 연다. 꿀을 찾아 윙윙거리는 벌들이 보고 싶어서다. 기꺼운 상봉을 하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데 방법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다. 머뭇거리는 사이도 잠시 계단 끝 원통보전이 보이는 경내로 들어가 버렸고, 아래로 가는 샛길 담장 위로 쉬나무가 흐린 날에도 환하게 빛나고 있다.

쉬나무는 운향과 낙엽 활엽 소교목으로 낮은 산지 및 마을에 자생하고 있다. 이 나무의 학명이 Euodia daniellii인데, Euodia는 eu(좋다)와 odia(향기)의 합성어이다. 그러니까 식물 분류학으로도 학명으로도 향기가 좋다는 건데, 꽃 무더기에 코를 박고 킁킁거려도 나를 망각시킬 만한 꽃향내가 끼쳐오지 않는다. 그럼 쉬나무는 누구를 위해 뜨거운 여름 모든 에너지를 향기 만들기에 쏟는다는 걸까? 꿀벌이다. 양봉가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밀원식물인 아까시나무를 영어권에서 bee tree(벌 나무)라고 한다. 그런데 쉬나무는 bee tree를 넘어 bee-bee tree라고 불린다. 이는 우리보다 서양에서 쉬나무의 밀원 가치를 더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구름이 낮게 내려앉고 뿌리는 듯 뿌리지 않는 듯 약한 비라도 내려서 그런지 꿀벌들이 드문드문 보인다. 그래도 꽃이 터질 대로 터지는 시기라면 귀가 따가워야 하는데, 혹, 이 지역도 과학이 다 밝히지 못한 수수께끼 같은 꿀벌들의 실종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가 꿀벌을 포함한 곤충의 수분활동에 의존해 생산됩니다"라면서 "만약 지구상의 모든 벌이 사라져 이 농작물을 중국 쓰촨성 마을의 농부들처럼 인공 수정을 하게 된다면, 모든 식자재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라는 글을 발표했다. 자연의 식물을 원예품종으로 만든 것을 넘어 꿀벌의 역할까지 대체해야 하는 파국적 상황이 우리가 행하는 농약 살포 등을 포함한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재앙은 우리가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어두운 현실이 되고 있다.


쉬나무 옆으로 보이는 해운정사 원통보전.

있어야 할 자리에 부재한 생명체들에게 던져지는 연민이 고스란히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 독경 소리 들려오는 해운정사를 돌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헤아려본다.

해운정사 홈페이지를 보면, "경허-혜월-운봉 선사로부터 내려온 이마 위의 일구[向上一路]를 투과하여 불조의 정맥을 이어받으신 향곡(香谷)선사(1912~1978)께서는 40여 년 전, 1967년 진제 큰스님께 부처님의 심인법(心印法)을 부촉하시면서 '네 대(代)에 선풍(禪風)이 크게 흥하리라' 고 예언하셨습니다"라는 소개글이 있는데, 이어지는 글을 보면 "이후 큰스님께서는 모든 인류와 일체 중생을 제도(濟度)하고 임제(臨濟)의 법맥을 이을 법제자를 양성하기 위해 인연터를 찾아 전국의 산천을 두루 돌아다니시다가 마침내 해운대 장수산에 이르시어, 태백산맥이 굽이쳐 내려와 장중한 기운이 맺힌 것을 보시고는, 산의 모습이 장려(壯麗)하고 진중(珍重)하여 '수행자들의 최상의 공부터로구나!' 간파하시고 이곳에 1971년에 터를 잡아 창건하시게 되었습니다"라는 역사가 나와 있다.

조계종 종정을 지내신 진제 스님은 해운정사에서 모든 분들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라는 화두를 깨달아 모든 분들이 부처님이 되고 도인이 되기를 희망하는데, 쉬나무와 벌의 공진화 관계를 참구하다 불광미디어에 실린 진제 스님의 2022년 신년 법어가 마음 깊숙이 와 닿는다.

"인간이 자연에 대한 자세를 바꾸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나와 더불어 남이 존재하고,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며 인간과 더불어 자연이 공존하는 만유동일체(萬有同一體)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 같다. 우리 인간이 참나를 찾아 해탈의 경지에서 극락의 순간을 느끼려면 자연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일심으로 가야 할 자연을 오로지 우리만을 위해 변형시켜 간다면 언젠가 꿀벌 실종을 대신할 인간 실종이 찾아올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꿀벌의 군집 붕괴 현상이 인간 세계에도 닥쳐올 것이며, 아, 그때는 그냥 우리도 무(無)가 되는 것인가?

가파른 계단 아래 해탈문 지붕 위로 쉬나무 꽃잎 하나 살며시 내려앉는 상상으로 참나 화두 붙잡고 더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간다. 해운대 파도가 철썩인다.

〈작가 겸 숲해설가〉

특별기고



이남섭의
불교시 감상

산문(山門) 가는 길

산사 오르면 마음 정갈해지고 마음 푸르러

산문(山門) 가는 길 / 이남섭

고향 집을 나와 산 넘으면
할아버지 옛집 같은 산문이 나온다.
오래전부터 걸었던 길이다.
비단결 바람이 부는 오솔길
바위틈으로 수군거리는
물소리 들린다.
인연이 깊어서일까.
흰 나비 한 마리
청량각* 위를 맴돌고 있다.
궂은 흔적 잘 감추는 사람을
유능하다 누가 말하는가.
피할 수 없는 보따리 짊어지고
오늘도 나는 산문으로 간다.
일주문 지나 세월각에 서서**
마음 하나 꺼내어 달빛에 씻어본다.
쿵쿵 울리는 법고소리
해탈문에 들어선다.
아득히 들리는 흰 나비의 날갯짓
모두 다 내려놓으라 한다.

*청량각(淸凉閣) **세월각(洗月閣)
순천 승보종찰 송광사에 있는 전각 이름이다.

무소유를 말씀하시고 무소유를 실천하셨던 법정 스님 다비식에 참석했던 인연으로 매년 새해 첫날이면 찾아가는 조계산 무소유 길, 내 삶의 에너지가 필요할 때나 좋은 시 한 편 쓰고 싶을 때 종종 찾아가는 곳이다. 불일암은 그리 높지 않은 조계산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법정 스님 영혼의 흔적이 대숲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는 오솔길 끝자락에 있다.

무소유길 오르다 보면 구불구불 이어지는 깊은 계곡 맑은 물소리가 사계절 도란도란 흐르면서 모든 생명의 원형적(原形的) 아우라에 젖어 들게 한다. 물소리와 함께 들리는 솔바람 소리, 숲속에 지저귀는 새소리 들으며 한가롭게 산사(山寺)로 오르다 보면 마음은 정갈해지고 몸은 늘 푸름에 깃들게 된다. 법정 스님 재가 제자 정찬주 작가는 "불일암은 작아서 아름답고 가난해서 맑다"라고 했다. 또한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넘치는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법정 스님 다비식 이후 송광사는 내게 정신적 고향으로 새롭게 다가왔다. 난생처음 본 다비식 풍경은 나에게 많은 것을 시사했다. 송광사 주변 수십 리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고 산사(山寺)는 사람 물결로 홍수를 이루었다. 특히 그날 산사에 108번 울려 퍼진 범종소리는 때 묻은 영혼을 감싸주는 큰 울림이었다. 이후 '불일암' 이란 시를 한 편 쓴 적이 있다.

"빠삐용 빈 의자를 달랑 남겨 놓고/ 머나먼 길 떠나신 큰스님 계신 곳/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오늘도 무소유 오솔길 오른다./ '인생을 낭비한 죄' 짓지 마라/ 조용히 들려오는 임의 말씀/ 만나러 가는 길 어찌하면/ 그 말씀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을까?"

법정 스님 다비식서 인연 후
매년 새해 첫날 불일암 찾아
"자연과 삶은 시(詩)의 모태"

송광사는 조상 대대로 인연이 깊은 사찰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걸어서 소풍을 자주 다니던 곳으로 고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익숙한 사찰이다. 나의 6대조 할아버지와 고조부, 증조부님 모두 유학자로 송광사 관련 한시를 많이 남기셨는데 6대조 할아버지(可隱 李箕大, 송재 서재필 선생 외조부)의 한시 한편을 음미해본다.

송광사(松廣寺) 임경당(臨鏡堂)의 상판운(板上韻)을 짓다 /可隱 이기대(1792년~1858년)

"높은 산은 구름을 머금어 희고/ 위태로운 난간에는 물이 철썩여 차갑다/ 속을 알고 하느님이 비를 주어/ 한가롭게 경물(景物)을 구경하도다."

나의 어머니는 유년에 몸이 약한 나를 송광사 천자암에 데리고 다니면서 불공을 올렸다. 어린 나이에 천자암 가는 길은 가파르고 험준했지만 두 그루 동화 같은 곱향나무가 서 있는 천자암은 어떤 정신적 시원(始原)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옥타비오 파스는 "시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며, 놀이이고 노동이며 금욕적 행위이다"라고 했다. 나는 가끔 유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에 젖는다. 정찬주 작가는 필자를 "고향의 계곡물 같은 시인"이라고 그의 저서〈행복한 무소유〉에서 과분하게 표현했다. 인간의 모든 감정은 선험적인 대상과 결합되어 있다고 하니 송광사는 내 마음의 고향이다. 나에게 또 다른 마음의 고향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요즈음 사람들은 마음의 고향을 잃고 오직 출세(出世)를 위해서 피나는 단거리 경쟁에 열중하고 있다. 너무 출세 지향적이다. 그러다 마음을 잃어버리고 정작 세상으로부터 퇴출(世出)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세상을 살면서 분주하거나 경쟁하지 말고 한사코 깊이 감추도록 하라"라는 할아버지 말씀이 오늘따라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나는 어느 여름날 법고 소리를 듣기 위해 늦은 시간에 송광사에 갔었다. 둥둥둥 쿵쿵 딱딱딱 위아래로 좌우로 둥근 법고를 향해 몸을 날리며 북을 치는 스님은 마치 흰 새가 환생해 밤하늘을 나는 듯했다. 사람들은 어떤 감동했던 순간을 심미적(審美적) 공간으로 인식하곤 한다. 시는 우연히 눈에 띈 꽃 한 송이에서 탄생하기도 한다. 젊은 엄마가 안고 있는 천진난만한 어린애의 눈망울에 스미어 있는 진한 연민이 시의 출발일 수도 있다. 연민은 사랑의 하나이고 사랑은 관심에서 비롯된다. 관심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서 출현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연과 삶은 시의 모태이다.

이남섭은 전남 보성군 문덕면 가내마을서 태어났다. 〈불교문예〉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보성문학상, 전남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보성문인협회 8대, 11대 회장을 역임했다. 시집 〈마음의 강〉 〈아내의 詩集〉을 출간했다.

〈시인〉



마음책 다시 읽기 분노를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 ❸ 세 번째 승리 은밀한 적

▶ 한줄 요약
무의식 속의 자기중심적 태도가 모든 고통의 원인

자아에 대한 착각, '망상' 불러온다

내부의 적과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분노와 증오 충동에 굴복하는 습관을 극복했다. 마음챙김을 통해 내부의 적을 매 순간 주시하고 그 요구를 끝내 물리친다면 이제 몸과 말과 마음이 맹목적인 분노와 위압적인 증오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 맹목적 충동이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통제해 왔는지를 간파함으로써 새로운 내적 자유를 체험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분노의 목소리가 틀림없는 자신의 목소리라고 믿어서 그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다.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수많은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식과 이성을 활용하고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은 충동에 따라 행동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준다. 해악 때문에 괴로움을 겪은 후에도 우리는 평온하고 냉정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치유하고 우리를 해친 자가 더 많은 해악을 끼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우리의 대응은 더 이상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행위는 대체로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내적 자유가 완전한 것일까? 우리는 항상 냉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 스스로에게 정직하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자신이 의식하고 관찰할 수 없는 깊은 곳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 비밀이다. 실제로 우리도 모르고 있는 비밀이다. 이것이 바로 은밀한 적이다. 이 은밀한 적을 찾아내고 그 비밀을 파헤치고 지금까지 자각하지 못했던 것을 자각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부의 적을 통제하는 자신의 능력을 결코 장담할 수 없다.

일종의 내적 반응 양식인 은밀한 적은 불교 심리학에서 '자아 습관(self-habit)'이라고 부르는 것과 철저히 엮여 있다. 이 자아 습관은 욕망과 분노와 망상의 가장 깊은 뿌리이다. 그 자아 습관을 토대로 만들어진 은밀한 적은 '자기 몰두(self-preoccupation)'라는 내면의 목소리이다.

"나는 지금 어떻지? 나는 무엇을 갖고 있지? 나는 거기서 무엇을 얻게 될까? 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은 내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렇듯 쉬지 않고 종알대는 자아의 이 집요한 목소리에 우리는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그 목소리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느낀다.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목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끊임없는 자기 몰두는 가장 치명적인 적이다. 이 강하고 교활한 적은 우리의 진실한 목소리인 척 가장하며 우리를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파멸의 길로 이끈다. 이 적은 우리의 의식을 장악함으로써 우리에게 의식되지 않는다. 이렇듯 은밀한 적은 그림자 속에 살면서 자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우리도 모르는 비밀로 존재한다.

자기 몰두와 자기 사랑

자기에게 몰두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달라이라마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자기 몰두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것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자기에게 몰두한다는 말은 보통 자기가 또는 자기 인생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골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자기에게 몰두할 때는 실존 자체가 적이 되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귓등으로 듣게 된다. 내면의 쉼 없는 독백 때문에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에 몰두하면 소통 불가
자아에 대한 고정관념 형성
자기의식 떠나야 자유 경험

'그들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좋아할까? 전에 만난 사람보다 내가 더 괜찮아 보일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들은 나를 혐오해, 내가 멍청한 말을 했거든. 이건 문제가 있어.'

자기 몰두의 방에 갇히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거나 연결되기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불안하게 흔들리는 자기 이미지를 다지고 암울하고 공허한 느낌을 없애는 데 치중한다.

내적 세계 및 주변 세계와 진정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자기 몰두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 비관론자와 훼방꾼, 비판가 등의 수많은 목소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그것이 필수적이다. 자기 몰두는 그들의 분노와 경멸을 촉발하고 이는 당연히 갈등으로 이어진다.

공동체를 '건강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정의하면서 시인 웬델 베리(Wendell Berry)는 이렇게 말했다.

"고립된 개인의 건강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용어상의 모순이다."

더 나아가 그는 공동체를 '한 장소와 그곳의 모든 피조물'이라고 정의한다.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피조물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적대감과 두려움을 치유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자신을 위해 혼자 힘으로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대신에 이러한 치유는 우리가 각자 더 큰 조직, 더 큰 전체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인식을 요구한다.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다 함께 해내야 한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해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 사고는 '저기'가 어디든 간에, '저기 있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이 케케묵은 생각은 이젠 아무 쓸모가 없다. 일상생활이 이 세계와는 상관이 없다거나 저기서 벌어지는 일은 항상 저곳의 문제일 뿐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겨운 시대에 '타인'을 사물화하지 않고 누군가를 향한 증오에 근거하지 않으면서 윈-윈 해결책을 추구하는 사회변혁 행동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적을 만드는 것은 그 대가가 너무 크다.

이것을 깨닫는 데는 특별히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다. 자연환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역학(epidemiology, 疫學)은 국경이 관념적 구조물이라는 것을 거듭 입증함으로써 상호 연결 및 상호 의존관계의 진리를 우리 앞에 제시한다. 경제학도 그 진리를 상기시키는데, 그리스에서 벌어진 일이 매사추세츠 주 소도시에 살고 있는 내 생활에도 약간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매 순간을 알아차릴 때 삶은 우리가 실제로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 준다. 그 진리는 삶의 모든 우여곡절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곤경에 처할 때, 한순간에 힘없이 무너지는 생계에 직면할 때,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낯선 사람을 기꺼이 새로운 방식으로 대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상호 연결의 진리를 깨닫는다.

은밀한 적은 우리의 뿌리 깊은 자아 습관, 즉 고정적이고 습관적인 정체감(fixed-identity habit)을 딛고 굳건하게 서 있다. 그런데 고정적이고 습관적인 정체감이 정확히 무엇일까? 우리는 '나'가 항상 똑같은 사람, 즉 고정된 주체라는 느낌 또는 '나'의 정체성이 일생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똑같을 거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 이 느낌이 바로 고정적이고 습관적인 정체감이다. 어릴 적 사진을 들여다볼 때 지금의 '나'가 그 '어린 나'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온몸의 세포 한 개도 그 때와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아주 잠깐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그 느낌은 바뀌지 않는다. 변함없이 지속되는 그 느낌을 우리는 습관적 정체감 또는 가장 깊은 무의식에 있는 '본능적 정체감(identity instinct)'이라고 부른다.

이렇듯 내가 항상 똑같은 자아라는 느낌이 습관적 정체감 또는 본능적 정체감을 이룬다. 그 느낌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든지 자신의 '진짜 자아'를 지각하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여기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이 절대적 확신이 '나' -나의 자기중심성, 나의 이기심, 나의 소유욕에 대한 지속적인 몰두의 기반이 된다. 자기 몰두의 이 기반은 겉보기에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우리를 끝없는 좌절과 불만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몰두이다.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충분히 소유하지 못하며 충분히 나답지 못하다는 느낌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습관적 자아감을 탐구하면서 자기 몰두 성향을 되짚어 본다면 '진짜 나'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것들을 단 한개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내 몸의 각 부위와 그 변화를 자각할 수 있다. 감각과 생각과 의견이 매 순간 스치듯 오가는 것을 자각한다. 단어와 이미지가 떠오르고 소멸하는 것을, 느낌과 감정이 그 감각과 단어와 이미지와 서로 엮여 있는 것을 자각한다. 나는 자각 그 자체를 자각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계속 자각하며 때로는 주의가 흩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상상한 구체적이고 고정적이며 독립적인 자아를 나는 그 어디서도 찾지 못한다.

더 깊이 파헤칠수록 나의 자아감이 망상, 즉 오류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한다. 자아감이 망상이라는 인식에 주의를 집중함에 따라 나의 자기 몰두가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것의 격렬한 흐름이 점차 잔잔해진다. 나의 자아감이 몹시 투덜대기 시작한다. 우리는 자신이 미쳐 가고 있다고까지 느낀다. 그리고 그 틈틈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 있는지를 잠깐씩 잊어버리면서 주변 환경에 휩쓸려 자신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완고한 자아감에서 잠깐 벗어날 때 우리는 나 이외에 다른 것들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리고는 깜짝 놀란다. 비틀스(The Beatles)의 멤버인 조지 해리슨(George Harrison)의 노래 제목처럼, '나는, 나를, 내 것(I, Me, Mine)'이라는 다람쥐 쳇바퀴에서 풀려난다.

은밀한 적은 무의식의 구성물로서 강한 본능이지만 의식적 수준에서는 습관으로 작동한다. 우리를 현실과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그 적은 제 존재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오직 자신의 상태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 은밀한 적은 내면을 단단히 움켜쥐고 자기가 견고한 구조물이라는 환상을 강화한다. 하지만 그 적은 신발 끈의 매듭과 비슷하다. 아주 단단히 묶인 것처럼 보여도 끈의 양 끝을 당겨풀 때 우리는 그 매듭이 절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부처님의 위업 중 하나는 고정된 자아감이라는 견고한 매듭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풀어내서 그 견고함이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은 것이다. 외관상 견고해 보이는 자아가 일으키는 환상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다. 자아에 대한 무의식적 집착과 자기 몰두라는 의식적 습관에 더 이상은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내적 자유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다.

저자 : 샤론 샐즈버그, 로버트 서먼 〈담앤북스 펴냄〉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
승정원장 석벽봉

원로원
원로원고문 석법령 위 원 석일우, 석도명, 석청산, 석체법, 석일두, 석혜천, 석혜암, 석진공

총무원
총무원장 석도선 교육원장 석남산 기획원장 석담허 법계고시위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종허 의전원장 석법도 어산장 석도암 감찰원장 석원허
비구니회장 석경호
부원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성덕 감찰부장 석성현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사회부장 석자광 사회부장 석성우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보현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민 지원국장 석해인 봉사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원 의전국장 석균중 수행국장 석성오
종무국장 석성안 문화국장 석원종 의식국장 석성혜 사서국장 석성

비구니회
부회장 석효성 부장 석지현 국장 석충효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현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제천중앙종무원장 석진공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이 사 체법 일두 성만 성우 감 사 성덕 성민
운영이사 남산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법률자문위원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 16층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이경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 (이종길)
부회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보덕심 (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 (이재인)
부원장 혜 정 (이영숙)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법사승단임원
법사고문 도혜 홍보부장 원명 구미부장 혜진
울산원장 법광 부산부장 혜성 대구부장 혜련
종무원장 성종 경기부장 자운 청주부장 혜원
법사원장 목암 전남부장 혜명 충북부장 상학
경남국장 성광 포교국장 청운 삼척국장 정허
사업국장 종현 통영국장 덕인 영천국장 원명
포교국장 덕운 포교국장 혜림 통역국장 정연
종무국장 도연 봉화국장 혜정 포교국장 혜경
서울국장 명덕 화순국장 보정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전화 02)303-5612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95 호 현대불교 21
2022년 7월 13일(음 6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참자기의 그릇을 알고 그저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 보라

주인공 맛을 보고 싶어요

질문 선원에서 공부한 지는 몇 년 됐는데 아직 그 주인공 맛을 못 보고 있어 답답합니다. 뭔가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답변 지금 선생님 영혼이 없으면 그 몸뚱이가 송장이 돼서 말도 못 할 텐데, 그걸 모르세요? 바로 뿌리와 싹이 한데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알고도 싶고요. 그런 거니까 자기 영혼의 뿌리를, 즉 말하자면 불성을 진짜로 믿고요, '다른 데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바로 밀접하게, 뿌리와 싹이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구나. 그러니 진짜로 믿어야겠다.' 하고 거기다가 전부 놓으십시오. 이 생활하는 것을 몽땅 말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이 세상에 탄생을 했기 때문에 있는 거지 탄생을 안 했더라면 무효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아예 이름조차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탄생을 했으니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는 것이지 아, 싹이 없는데 무슨 뿌리가 있겠습니까? 뿌리도 싹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뿌리를 진짜 믿으시고 '이끌어 가는 것도 너고, 또 나를 형성시킨 것도 너니까 깨닫게 하는 것도 너다.' 이렇게 모든 거를 거기다 맡겨 놓으시고 겸손하게, 진짜 자기 그릇대로 사세요. 그릇대로, 참자기의 그릇을 아시고 그저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 보세요. 그런다면 반드시…, 그건 거짓이 없습니다. 영원한 자기의 보배인 부처는 거짓이 없어요.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우연히도 없고요, 아주!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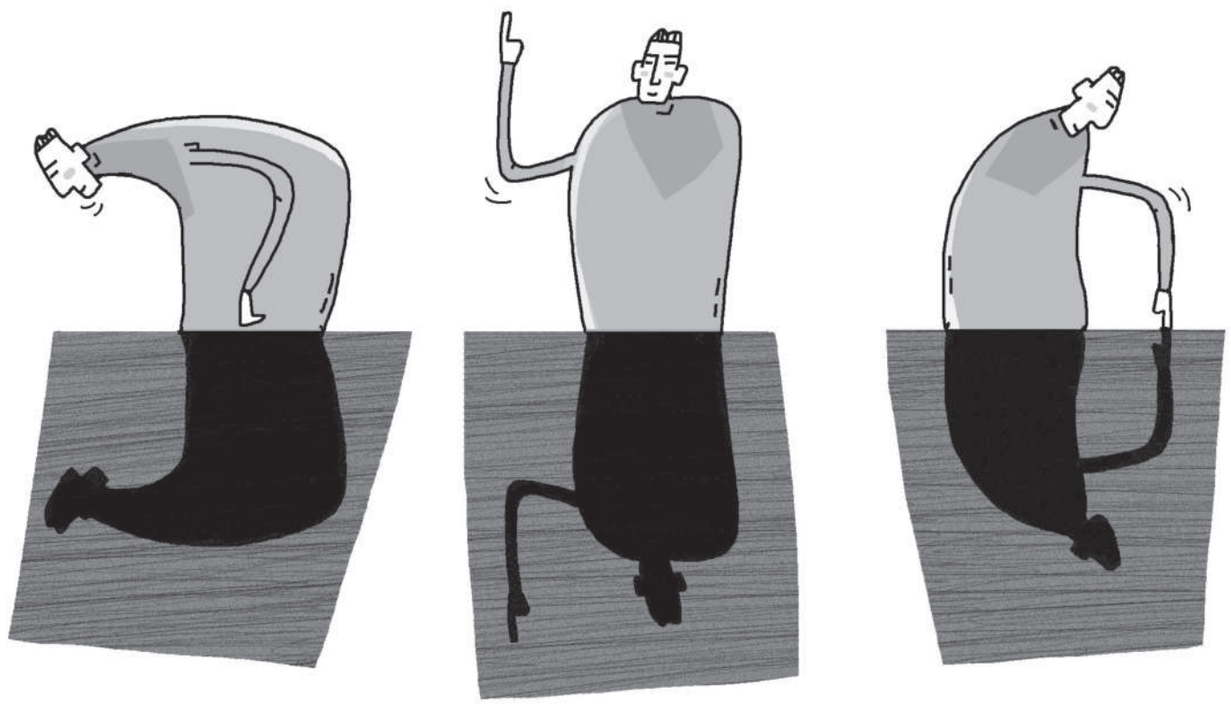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함이 없이 하는 도리에 대해

질문 큰스님의 법문에서는 함이 없이 하는 도리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되는 듯하다가도 알쏭달쏭합니다. 다시 한번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냥 우리가 똥 마려우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똥 누고 시원한 느낌을 느끼고, 또 배고프면 밥 먹고 그냥 '배고프지 않구나' 하는 거, 그냥 무심코 가는 거, 졸리면 그냥 자는 거…. 그렇듯이 우리 생활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함이 없이 공했으니까 함이 없이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뜻이죠. 함이 없이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소리는 정말 50% 그 정신계의 모든 거를 하고 갈 수 있으니깐 함이 없다 이런 거지, 물질계로다가 우리가 함이 있다면 그건 진짜 함이 아닌 것이에요. 물질계로만이 아니라 정신계에서 물질계로 나와서 움죽거리게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그대로 그냥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함이 없이 하고 있다. 나 아닌 내가 살고 있고 함이 없이 함이 있구나 하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함이 없이 하는 것이지 함이 있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신계와 물질계가 혼합돼서 둘 아니게 수레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것이 그냥 공법이다 하는 거죠. 모두를 종합해서 따지게 되면, 그래서 원식으로 하는 거죠. 이 우주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걸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음을 일으키고 꺼내 쓰고 용도에 따라서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함이 없이 하고 있구나. 그것이 진짜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생각하는 것이 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알았다면 그냥 함이 없이 하고 재미있게 웃고 사세요.

내가 이만큼 아니깐 자만한 마음도 갖지 말고요. 자만한 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것도 없고, 내가 할 것도 없고, 내가 준 것도 없고, 내가 받은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물 흘러가듯 사세요. 꽃이 피면 웃고 열매가 맺히면 대견하게 보고 또 그 열매가 무르익으면 모두 배고픈 사람 주고 이렇게 사는 거죠, 뭐. 그러다 보면 훌쩍 이 지구라는 이 그릇을 벗어날 수가 있겠지요.

눈 뜨고 저 불빛을 보고 저 천장을 봐 보세요. 천장에도 황 뚫렸어요. 천장도 막혀 있는 게 아니라 황 뚫렸다고요. 저 문도 닫혀 있는 걸로 보이지만 사방이 다 뚫렸어요. 그래서 허공이 따로 있고 이 집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사람인 거죠. 이거 문 열고 다니고 문 열고 누구 건져 주고 이러려면 어느 천년에 합니까, 그거를.

자성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질문 보통 불자라면 삼귀의, 즉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께 귀의하는 삼귀의를 하게 되는데 자성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우리가 보면 느껴지고, 들으면 느껴지고 그렇게 알아지는 거 아닙니까? 알아지는 그 생활 자체가 그대로 여여하면, 그대로 우리가 믿고 여여하면요, 그렇게 아예 한마음으로 그냥 하면 그 세계가, 삼세계(三世界)가 바로 삼보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삼세계가 삼보가 되는 것입니다. 삼보가 한데 합쳐서 일심(一心)이 되는 것입니다. '삼보' 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한데 합친 것이 삼보입니다. 그래서 일심으로써 꼭 알아야 될 것은 '큰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보배가 바로 나한테 있다. 그래서 삼보가 내 한마음 속에 있으니 부처님과 일체 만물만생이 어찌 따로 떨어져 있으랴. 한도량에 있는 것이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육신, 육바라밀이라고 해도 됩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여섯 가지에 관한 건을 모두 따로따로 할 양으로 애를 쓰면 얼마나 더디겠습니까? 보시라든가 지계라든가 인욕이라든가 정진, 선정 이런 문제를 다 각각으로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러나 내 몸뚱이 속에는 그 여섯 가지뿐만 아니라 천차만별로 있습니다. 왜 여섯 가지뿐이겠습니까. 여섯 가지를 정해 놓는다면 더 이상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스스로 한마음에다 모든 거를, 선도 감사하게 놓고 악도 그렇게, '악하게 되는 것도 그 속에서 나온 거니까 선하게 나오는 것도 너다.' 하고 선과 악을 다 놨을 때 비로소 스스로 생산이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콩이나 팥에다 목적을 두는 게 아닙니다. 콩과 팥, 일체를 모두 다 한데 합쳐서 생산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현도 되고, 법신도 되고, 부처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지장도 되고, 칠성도 되고, 아촉도 되고, 아미타도 되고, 미륵도 되고 전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마음 속의 자생 중생들에게 항복을 받아야, 조복을 받아야 일체 중생들을 나 아님 없이 조복을 받게 할 수 있느니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색이 즉 공이다. 공이 즉 색이니라. 그러니 둘이 아니다. 그대로 더불어 사는 한 공체(共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심(共心)이자 공체(共體)이자 공용(共用)이자 바로 공식(共食)이자 공생(共生)이 아닙니까? 이것이 '나'라고 내놓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나'라고 내놨다 하면 손해가 가요.

여기 수만 명이 이렇게 한데 합쳐서 살고 있는데, 그걸 바다라고 합시다. 바다가 이거는 내 물이고, 그거는 내 물이고, 저거는 내 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물을 떠 가도 '아, 떠 가나 보다.' 할 뿐이죠, 줄지 않고 더불어 살기 때문에,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바다라면 내 마

☞ 22면으로 계속



가지 잎새 불들고 늘어지지 말고 오직 자기 뿌리에 집중하라

☞ 21면에서 계속

음을 한 번 주고 두 번 준다 해도, 상대방이 떠 간다 하더라도 줄지 않는 거다 이겁니다. 마음이 바다와 같아서, 더불어 살기 때문에, 공체이기 때문에, 공심이기 때문에, 공생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 공생으로 살고 공체로 사는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업이 있고 번뇌가 있고 병고가 있고, 가난이 붙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이건 여러분이 신기하고 묘한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살아오던 관습에 의해서 이날은 손이 있으니까 이사를 못 간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손이 있게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와 돌아가는 날, 이사 가서 좋은 날을 내가 택하면 그냥 법이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대로 법이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이 몸뚱이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살고 있죠.

그런데 나라고 하고, 내가 산다고 하고, 내가 벌었다 하고, 내가 즐겁다고 하고, 내가 고통이라고 한다면 고(苦)가 있는 대로 착착 붙죠. '고' 하면 수천 가지가 한데 합쳐진 거예요. 고통이라는 건 새록새록이 많은 거죠. 그 고통을 혼자 짊어지게 되면 그냥 혼자 나타나는 거죠, 그 고통이 말도 할 수 없이. 그러나 더불어 같이하기 때문에 주인공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사는 생명들인데 내가 혼자 산단 말은 안 해도, 내가 혼자 사는 것처럼 하고, 내가 산다고 하고, 잘했어도 자기가 했고 못했어도 그렇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모두? 그런데 그거를 바꿔 보세요. '으응, 더불어 같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요.

그러니까 자기 몸뚱이도 빼놓지 않고 주인공이에요! 더불어 같이한 거니까 같이한 그 속에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죠? 자기 혼자가 아니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동체 속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같이 해결해야죠, 네? 같이 잘못했으면 같이 해결을 해야지, 내가 혼자 했다고 이렇게 꺼덕거리니까 '흥, 너 혼자 했으면 너 혼자 맡아라.' 이러곤 그냥 다 안겨진단 말입니다. 안겨지니까 꼭 고통을 받아야죠.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갔는데 꼭 구를 것만 같고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는데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 '더불어 같이 주인공이, 그렇게 자빠지게 하는 것도 너니까 괜찮게 하는 것도 너다. 에이그, 죽이든 살리든 네가 알아서 해!' 하고 그냥 타고 가다 보니까, 정말 이 차가, 그러니까 운전수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그냥 내리굴렀대요. 굴러서 차는 바스러졌는데 운전수도, 자기도, 또 같이 탄 사람도 하나도 다친 데가 없이 사람은 아주 그냥 감쪽같이 멀쩡했답니다. 그냥 사람은 내던져 놓곤 차만 굴러가서 박살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는 아까 했던 생각이 기억나서 웃었다는 겁니다. '야, 사람은 내던져 놓고 차만 갖다가 박아 놨네.' 이러구요. 그러고 이차로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랬죠? 우리도 이 마음이, 그 의식 자체가 하나로 뭉쳐야 해결을 해도 그냥 해결을 하지, 내가 개별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침착하게, 자기 몸뚱이를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기 몸뚱이가 위성이기도 하고, 블랙홀이기도 하고, 우주이기도 합니다. 내 하나를 터득을 하면요, 다 터득이 돼요.

우리가 결국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바라밀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삼보가 있고 삼심이 있어서, 삼심이 일심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과거에도 내가 살았고 현재에도 내가 살고 미래에도 내가 살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밤과 낮에 비유해서, 밤이면 저승이고 과거, 낮이면 이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승과 이승이 어떻게 둘로 나누어졌을까? 밤에 잠을 자야 낮에 일을 하고, 그러니까 밤이 오는 것이 바로 과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낮이 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밤과 낮이 한데 합쳐져야만이 생과 사도 같이 구르면서 이게 진리의 끈이 되죠. 진리의 끈이 됨으로써 그냥 끝없이 돌아가듯이요.

그래서 조금 아까 무엇을 어떻게 했든 무엇을 들었든, 모두 벌써 과거로 돼 버렸어요. 과거가 돼 버렸다구요. 그런데 과거로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현실에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과거는 벌써 없어졌지요. 그러니 과거도 현실이요 미래도 현실이란 말입니다. 현실의 내 한마음이 바로 삼심이요, 그것이 한데 합치면 삼보가 되고,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자기 전체 한마음으로써 더불어 같이 한가운데 삼보를 중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없으니까 상대가 없죠. 내가 없다면 삼보도 없고, 상대도 없고, 세상도 없고 모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삼보에 귀의하라, 나로부터. 나에게 삼보가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히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면 그때 부처인 것입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하고 움죽거리겠다 하면 법신이자 화신이고, 화신이자 보신이에요. 보신이자 또 금방 화해서 응신이 돼 버리죠.

그래서 예전 공부한 선지식들께서 '그대로 여여하다' 이런 소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니 저거니 이거니 저거니 할 거 없이 그대로, 생활 자체에 그대로 살아나가고 그대로 굴러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너희들의 법이고 생활이 그냥 여여하구나 이런 겁니다.

내 안의 의식들을 어떻게 다스리나요

질문 선 악도 다 놓으라 하지만 또 선업을 쌓으라 하시니 내 안의 의식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요.

답변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해도 안에서 의식들이 그냥 나쁜 생각과 하나로 돌아가고, 좋은 생각을 해도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건 왜냐. 의식들이 자기가 자유자재 못 하기 때문입니다. 의식들이 자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대로 따라서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의식이.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내라, 좋은 생각을 내라' 이러는 겁니다. 남을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아, 내가 수억겁을 거쳐 올 때 어떤 모습은 안 됐을 거냐. 어떤 모습도 안 돼 봤을 리가 없으니까, 그때의 바로 내 모습이로구나.' 하고 그것을 둘이 아니게 생각하라이 소립니다.

그래서 '육신이 태어났으면 마음이 태어나라. 마음이 태어났으면 마음을 길러라.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또 내가 견성했다고 하지 마라. 마음이 태어났다면 견성을 했다고 모두들 하는데 견성했단 말 하지 마라. 어린애가 어른이 돼야 어른값을 하지, 어른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찌 어른값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오'는 탄생하는 거요, 또 길러 내는 거는 '점수'입니다. 그게 이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와 돈오가 둘이 아닌 까닭을 알고 진실하게, 이 이름 찾고 저 이름 찾지 말고 '내가 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다' 이런 생각도 말고, 오직 사람부터 돼야 도가 거기 저절로 붙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건히 가지시고 누가 뭐래도,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철 살다가 가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걸망을 걸머지고 어디 놀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딴 데서 놀러 온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놉니다. 같이 놀다가 해가 지면 다시 헤어져서 돌아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놀다 가는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놀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모습이 참 무섭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무들을 볼 때에 한 뿌리에 가지 잎새가 헤아릴 수가 없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뿌리의 그 근본만 알면 그 가지는 저절로 알아지고 잎새도 저절로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가지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잎새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오직 자기의 뿌리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뿌리에 모든 싹이 붙어 있는데, 그 싹이 잘못 생각을 한다면 뿌리가 썩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벌써 가지가 썩습니다. 그와 같이 나무들은 흙에 가려졌기 때문에, 그 흙에 덮여서 자기 뿌리를 못 봅니다. 그런 거를 무명이라고 합니다. 인간도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보기 때문에 무명이 덮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려진 것이 한 찰나에 밝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질문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입니다. 주인공을 믿고 관하고 있지만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생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법문 한 자락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자기가 고치지 누가 고칩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집을 짓고 사는데 집이 망가진다면 주인이 고쳐야지 딴 사람이 와서 고쳐 줍니까? 자기 집은 자기가 고쳐야 하고,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하고, 제 뿌리는 제 싹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게 상례로 돼 있죠. 나무 뿌리는 수분과 지분, 철분을 위로 공급하고, 위에서는 태양력과 공기력을 또 흡수시켜서 내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응하면서 푸르르게 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애탄지탄하지 마시고, 죽는다 산다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죽이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다!' 하고 탁 맡기시지 죽는 것이 뭣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 옷을 입었다가 벗어 놓고 새 옷을 입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바로 대우가 정해지죠, 차원이 정해지고. 우리가 개나 소나 돼지나 이런 모습을 가진 생명들이라면 그 대접밖에는 못 해 주는 것이지 인간 대접을 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차원도 스스로 기르는 거고, 스스로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해 주고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진짜로 믿고, 죽고 사는 거를 겁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나 사나, 죽을병이 들었거나 죽을병이 안 들었거나, 진짜로 믿는다면 정말 죽는다 하더라도 옷을 벗고 바로 승천이 될 거고, 얼른 쉽게 말해서 이 어항 속에서 벗어날 거고, 또 산다 하더라도 그냥 살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래도 건지는 거 저래도 건지는 건데 왜 겁을 내느냐 이겁니다. 뭐가 겁이 납니까? 누구나가 한 번 옷 벗기는 마찬가지인데.

부처님께서도 깨달으신 과정과 열반하신 과정이 어땠습니까? 염주알을 시발점에서 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종점까지. 종점까지 오니까 다시 시발점 되죠? 그러니까 종점이 됐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종점이 됐다 하면 시발점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었다 하면 그냥 한 찰나에 그대로, 마음공부 한 사람들은 그냥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공부를 못하고 바깥으로만 끄달린 사람은 그 안에서, 그 차안(此岸)에서, 즉 차단된 속에서, 감옥 아닌 감옥 속에 갇혀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세생생에. 그 의식, 관습, 인과에 그냥 매달려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우리가 개구리가 된다면 개구리로 살던 습이 그냥 누적이 돼 가지고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개구리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되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용광로에 다 놓으십시오. 이 줄은 용광로와 같고 바로 자가발전소와 같고 불바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겨 놓기만 하면 모든 거는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 놓고 맡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자기 싹의 자기 뿌리라는 것을 아셨으면 무조건 믿으셔야죠.

그냥 그대로 물 흘러가듯 사세요.
꽃이 피면 웃고 열매가 맺히면 대견하게 보고
또 그 열매가 무르익으면 모두 배고픈 사람 주고
이렇게 사는 거죠, 뭐.
그러다 보면 홀쩍 이 지구라는 그릇을 벗어날 수 있겠지요.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현불 논단 |

전국여성불자회 창립을 환영하며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6월23일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창립
종단 대표 포교단체로서 활동 기대돼
전법 포교는 교단 흥망 좌우하는 요소
신도조직 강해져야 종교는 힘을 얻는다

시대 변화 대처 못하면 생존 불가능해
공부하며 깨어있는 여성불자 양성해야
여성불자회, 불교 중흥 전기 마련하길

지난 6월 23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900명의 여성 불자들이 모여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를 창립했다. 발기인으로만 1080명의 발기인을 모집됐다. 그동안 오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법 포교가 침울했던 분위기를 쇄신하는 교단의 쾌거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불교교단이 새롭게 중흥하는 전기(轉機)가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전국여성불자회는 종단 포교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 교구본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교구별, 지역별 신도조직을 구성하여 종단을 대표하는 포교단체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종단과 교구본사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여성의 권익과 대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앙신도회, 포교사단과 함께 전국여성불자회는 종단의 대표 포교조직으로 3개의 축을 형성해서 새롭게 전법 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교단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전국여성불자회가 돼야 한다. 힘이 없는 교단이나 조직단체는 사회를 올바로 향도할 수가 없다.

만해는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조선불교가 유린된 원인은 세력이 부진한 탓이며, 세력의 부진은 가르침이 포교화 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고 설파했다. 종교의 세력은 신도의 조직 즉, 신도 수이다. 신도 조직의 세력이 생기면 자동으로 포교가 된다. 따라서 포교 전법은 교단의 흥망을 좌우하는 종교의 생명이다.

한국에서 불교여성학을 최초로 강의하고 정리한 이영자 동국대 명예교수는 〈불교와 여성〉에서 "여성이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인간인 여성에 대한 자각 없이는 현대 한국불교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 여성은 불교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법회 참석과 운영, 사찰 운영자금(불사 보시금), 봉사활동 등에서 역할과 활동하는 대부분이 여성 불자이다. 여성 불자의 능력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대사회는 양성평등 사회이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됐고 사회활동도 활발하다. 자랑스럽고 당당한 불자로서 항상 깨어있는 여성불자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경전(불교성전)을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친 삶의 길과 깨달은 내용을 실천하는 신행을 해야 한다. 여성불자는 대승보살로서 경전교육과 전법 홍포를 수행으로 삼고, 보현행을 실천하는 불교신행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 불교교육과 중생 포교는 불교교단의 명운이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승만경〉에 승만 부인은 "저는 이제 부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어받아 어리석은 자를 굴복시키고, 올바른 정법을 널리 펼 것을 서원하나이다"라고 정법을 수호하는 원을 세웠다.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김의정 회장은 자타가 공인한 한국불교의 지도자이다. 뛰어난 지도력으로 잘 이끌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사부대중은 서로 화합하고 존중해야 한다. 특히나 보수나 진보의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젊은 불자로부터 지탄과 외면을 당해 교단이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이나 단체는 항상 위기이다.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가 없다. 전국여성불자회가 펼치는 신행으로 한국불교가 치마 · 노인 · 기복불교에서 탈피해 항상 참신하게 젊어지고 새로운 혁신불교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석도의 일획

한 발만 내딛으면 북한강으로 굴러 떨어질 것 같은 절벽 끝에 소나무가 휘늘어져 있다. 바위 틈새에 발 돋음하고 선 소나무가 바르르 떠는 것 같다. 바람이라도 몰아치면 저 몸을 어찌 가눌 것인가. 강물을 향해 잔뜩 허리를 구부리며 가녀린 팔로 낭창거리는 모습이 아슬아슬하다.

언젠가 보았던 중국 황산의 소나무들도 삼학산의 소나무처럼 새가 되어 날아오르지 못하고 온 몸으로 용트림하고 있었다. 황산의 소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몸이 뒤틀리도록 누구를 기다려왔던 것일까. 수많은 제왕들과 시인 묵객들이 황산을 찾아왔다. 그들은 소나무의 격조 높은 품위와 빼어난 수려함을 영객송, 단합송, 비룡송, 공작송, 기린송으로 찬미했지만 황산 소나무의 속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세워지는 어수선한 시대에 석도(石濤, 1642~1702)가 전국을 떠돌다가 황산에 들렀다. 우뚝 솟은 봉우리들과 봉우리를 덮은 구름바다 그리고 기이한 소나무가 하나로 어우러진 풍경은 석도의 삶을 뒤흔들었다. 그가 지금까지 그렸던 산수화를 새로운 예술세계로 승화시켰다. 기존의 전통적인 화법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법으로 '황산팔승도(黃山八勝圖)'를 그렸고, 그 작품 세계를 서술하는 〈화어록(畵語錄)〉을 집필했다. 석도는 그림 그리기 이전에 작가의 철저한 선(禪)적 수양과 기술이 완숙돼야 또 하나의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일획'이 회화의 근본이며, 일획을 체득한 화가만이 독창적인 화법으로 만상을 화폭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 최주현

〈화어록〉, '일획장'에 "일획이 우주의 모든 것을 포용하게 되니 무수한 필묵이라도 일획에서 시작해 일획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적었다. 또한 일획의 법은 무법(無法)으로써 유법(有法)을 낳고, 유법으로써 모든 법을 꿰뚫는다고 덧붙였다.

석도의 일획은 삼라만상의 근본이며 모든 형상의 뿌리였다. 일획이 만 획이며, 만 획이 일획이었다. 일(一)은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는 만유의 근원, 불성(佛性)을 일컫는다. 노자는 천하 만물은 유(有)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無)에서 생긴다고 했다. 무(無)가 일(一)이고, 그 일에서 만물은 제 모습대로 생겨난다는 것이 아닌가.

석도는 오랜 세월 산천을 주유하며 불자들을 친구로 삼았다. 형상의 외형 뒤에 숨겨진 본성을 찾고자 여러 산을 올라 명상을 했다. 드디어 황산에서 심안이 열려 자연과 혼연일체가 됐다. 소나무가 나이고, 내가 황산이었다. 그 일체의 본성이 여래장(如來藏)인 것을 깨달았다. 석도는 대자연에서 터득한 그 만법일여(萬法一如)의 도(道)를 화폭에 담았다.

저 신묘한 소나무를 그리는 석도의 일획에서 만법의 근원이, 먹물의 진하고 옅음에서 삼라만상이 태어나고 있다. 〈작가〉

社 說

선암사 소유권 분쟁, 이제는 멈춰야

순천 선암사를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 간 지속돼온 소유권 분쟁이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1-2민사부는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항소심에서 조계종선암사의 당사자적격을 부정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등기의 실제 이행자인 윤선웅(조계종선암사 4대 주지, 예비적 피고인)에 대해 조계종선암사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태고종)측이 부담토록 했다.

이번 소송은 소유권 분쟁의 핵심소송으로 주목받았던 만큼 판결 이후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태고종측 승소지만 법리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제기되고 있어 상고심으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소송을 바라보는 불자들의 심경은 복잡하다.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양 종단이 사찰을 두고 소유권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모양새가 우려스럽다. 물론 선암사 소유권은 양 종단에 더없이 중요한 사안일 수 있다. 벌써 수년째 법적공방이 지속되면서도 법적으로 뚜렷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한 이유는, 이 사안이 단순한 재산분쟁을 넘어 역사와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선암사를 두고 이어지는 소유권 분쟁은 한국불교의 아픈 역사에 기인하고 있다. 수년째 지속되는 소송에 따른 불자들의 씁쓸함도 이 때문이다. 이제는 양 종단이 법적공방을 멈추고 소통에 기반한 전향적인 합의를 통해, 화해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길 바라는 여론도 적지 않다.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흥천사 동종 환수, 범불교적 관심을

7월 2일 한국미술사연구소는 '흥천사 대종 환지본처 학술대회'를 열고,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흥천사 동종'이 흥천사로 환수돼야 하는 당위성을 논의했다. 이날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흥천사는 태조의 정비인 신덕왕후의 원당이자 황화방(덕수궁 북쪽) 일대에 창건된 사찰로 현재의 흥천사가 그 역사성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종에 의해 정릉이 후궁릉으로 강등되며 사을한(현 정릉)으로 이전하고 여기에 황화방 흥천사에서 분사(分司)된 신흥사가 건립된다. 하지만 황화방 흥천사는 연산군과 중종 대에 두 차례 화재로 전소돼 폐사된다. 유생들의 패행으로 벌어진 방화였으나 큰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흥천사 동종의 500년 유랑이 시작된 것은 이때부터다.

이후 송시열의 간청으로 정릉이 다시 왕후릉으로 복위되며 현재 흥천사가 능침사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흥선대원군이 '흥천사'로 사명을 변경하며 원(原)흥천사의 역사성을 현재 흥천사가 계승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현재 흥천사 동종은 야외 전시물로 전락할 위기다. 문화재청이 국립고궁박물관 앞에 보호각을 설치해 동종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다. 1910년 이왕가박물관으로 흥천사 동종이 옮겨진 모습을 보고 당시 언론인 차상찬은 "미술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간 행랑살이를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1910년과 2022년 현재와 흥천사 동종의 처지는 비슷해 보인다. 성보로서의 위상은 빛을 바랬고, 야외 전시물로 대접받고 있다. 언제까지 성보를 '문간 행랑살이'를 하게 둘 것인가. 흥천사 동종의 유랑은 끝내야 한다. 범불교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제5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수계는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참된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삼귀의계오계 수계를 통해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서원합니다.
좋은 인연에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2022년 7월 24일 일요일 오후 3시 ~ 5시
■ 장 소 :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
■ 三師 七證師
전계대화상 범석수불 대율사 (전,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갈마아사리 관허수진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장)
교수아사리 선응지현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 계단위원 및 교수사)
존증아사리 심산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3대회장)
존증아사리 원허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존증아사리 목종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수석부회장)
존증아사리 혜성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만초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하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지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 수계동참금 : 3만원
■ 복 장 : 상의(흰색), 하의(편한바지)
■ 문 의 : 사무국 051)501-7554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KBS 과학카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나만의 솔루션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출시!!

FDA 등록

쿨~! 마스크 (연꽃문양/5색)

2중 압축 NEW!!

자외선 차단 및 빠른 건조기능으로
야외활동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된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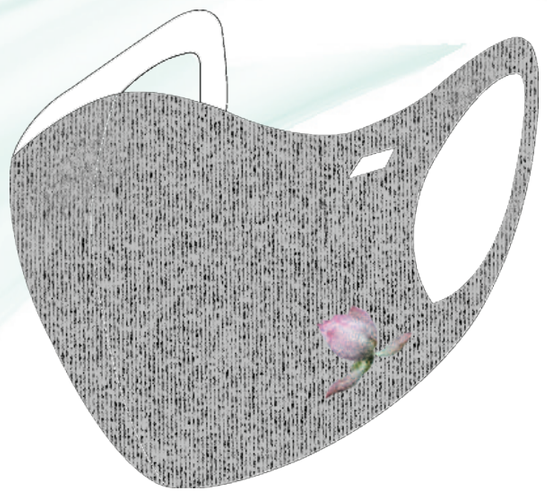
기존제품과 다른점

1. 바깥면의 발수기능이 기존제품보다 우수
2. 이중 압축으로 기존제품보다 얇음
3. 냉감(시원함 정도)이 우수하여 무더운 날씨에 적합

※ **색상별로100개 주문시 350,000원 (개당 3,500원)**
※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주문제작상품으로 5~7일정도 소요됩니다.

색상별 1세트 (100장) ~~550,000원~~ → **3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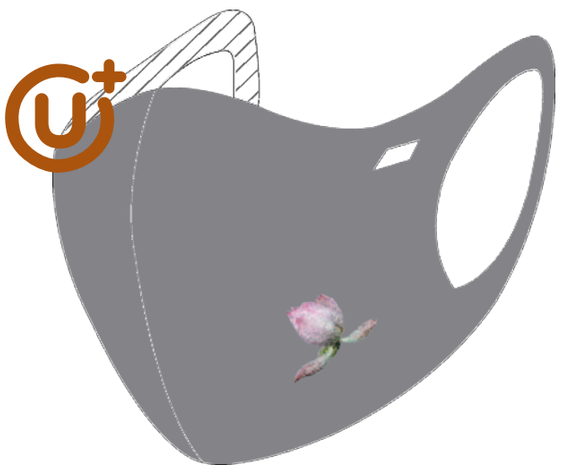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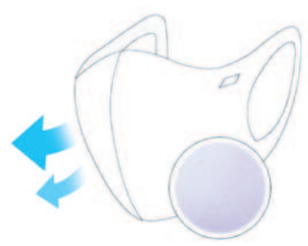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 **연꽃마스크는 주문제작상품으로 제작기간은 5~7일 소요** ※ **최소주문수량은 색상별로 100장 이상**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